

COVER STORY

2025 빈 소년 합창단

COLUMN

청년 춤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여기, 예술

어둠을 빛으로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25 1월 Vol.397



Oliver Stech

Wiener Sängerknaben



2025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VIENNA JOHANN STRAUSS ORCHESTRA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WITH SUMI JO



지휘 | 요하네스 빌드너 Johannes Wildner

2025. 1. 11.SAT 17: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 티켓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 문의 및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051-607-6000, www.bscc.or.kr) | 관람연령 | 7세 이상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지휘 | 이동훈

사회 | 정희정

출연 | 하윤주, 이대하

이희문 & 뽀뽀, 정태춘

궁궁, 트래블러크루

연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정태춘

하윤주

이희문

이대하

이동훈

2025. 1. 17.(금) 19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티켓 |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입장연령 | 7세 이상

문의 |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ARS 1번)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interpark 티켓 1544-1555



독보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



사운드
바이올린

2025. 2. 21.(금) 19:30



주최



티켓가격 전석3만원

관람연령 7세이상관람

장소 부산시민회관소극장

문의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 (ARS 1번)

예매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interpark 티켓 1544-1555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25. 1월호 Vol.397



신년사 06 공연예술이 가진 힘

2025 신년특집 08

Column 36 청년 춤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여기, 예술 38 어둠을 빛으로

Cultural Issue 40 마당놀이가 원조 배우 3인방과 함께 돌아왔다

무대 뒤 사람들 42 (주)예술은공유다 대표 심문섭

현대미술산책 44 칸딘스키와 추상미술의 탄생

Cover Story 1 50 2025 빈 소년 합창단

Cover Story 2 52 (재)부산문화회관 2025 신년음악회

Preview 56

Review 64

Program Guide 68

New Book 79



2 0 2 5 H A P P Y N E W Y E A R

공연예술이 가진 힘

• 차재근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지나,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그리고 부산시립예술단을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에 밀어닥친 정치적 위기는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또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갈등과 분노의 골이 깊어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작금, 문화와 예술이 가진 역할과 가치를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특히 공연예술이 가진 힘은 매우 큼니다.
가슴으로 치닫는 감동은 현존적이며 오래 기억됩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예술은 사회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발트 3국은 비폭력 합창연대를 통해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밥 말리’는 세계적 스타로서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자메이카로 돌아가,
조국의 화합과 평화를 노래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혼돈과 갈등의 시기,
공연장을 찾고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저 한가롭게 소비하는 사치적 행위이거나 쓸데없는 낭비가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얻은 긍정적 에너지는
우리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소통과 치유의 힘으로 작동될 것이며,
인류 공동체가 직면한 당면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의 강이 흘렀으면 합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7개의 부산시립예술단 또한 더욱 분발하여
시민 여러분께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예술의 생생한 감동을 전하는 2025년 상반기 공연 프로그램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한 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공연장이 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특히 지난해는 관람객들을 위한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이 펼쳐졌다. 관객들이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았던 주차장 개선사업에 들어가 주차공간 132면이 새롭게 조성되었고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요금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주차관제시스템을 변경했다. 부울경 최초의 클래식음악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도 지난해 6개월간의 시설 개선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 1일 재개관했다. 이번 개선공사에 따라 챔버홀은 소방설비 보완 등 시설 개선뿐 아니라 일부 음향·조명 설비를 보완하여 더욱 풍성한 음향이 실현되는 수준 높은 음악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또, 지난해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인 ‘부산문화회관 배움터’가 개관되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연습실 1곳을 비롯하

여 배움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 총 17개의 교육 공간이 자리하고 있어 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모두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시민회관에서는 노후화된 영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영상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영상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번 영상 고도화 사업에 따라 대극장에는 최신 유행에 발맞춰 4K 화질을 지원하는 최신형 빔프로젝터를 도입했으며 이 외 이동형 빔프로젝터를 추가 구성, 대극장 및 소극장의 후면 투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공연에 따른 최적화된 공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2025년에도 공연장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올 한 해도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올해 역시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준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월에는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하고 세련된 실내악의 향연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신년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지난해 8월, 주 공연장인 챔버홀의 시설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새로 정비된 음향시설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실내악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올해는 1월 4일, 프랑크푸르트 교향악단 종신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플로린 일레스쿠와 30년 관록의 부산채임버오케스트라가 챔버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린다. 또한 지난해 개막공연으로 화제를 모은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 홍콩필하모닉 비올라 수석 앤드류 링, 길드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클라리네티스트 김윤아가 다시 부산을 찾으며, 아벨과르텟과 피아니스트 홍민수, 그리고 부산의 젊은 실내악 단체들이 정통 실내악의 감동을 선사한다.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는 올해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두 곳에서 저마다 다른 콘셉트의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1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



리는 ‘2025 신년음악회’는 요한 슈트라우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함께 한다. 1월 17일 열리는 부산시민회관 ‘2025 신년음악회’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흥겨운 무대로



펼쳐진다. 이날 무대에서는 사회성 짙은 ‘한국적 포크’를 추구해온 싱어송라이터 정태춘, ‘국악계의 이단아’라 불리는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과 놈놈, 정가 보컬리스트 하운주, 거문고주자 이대하 그리고 경기시나위 사물단원으로



구성된 연희양상을 궁궁, 세계 최초의 택견비보이 트래블 러크루가 함께 출연하여 을사년 희망을 노래한다.

매년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새해 인사를 건네온 ‘2025 빈 소년 합창단’은 1월 2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빈 소년 합창단의 527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빈 소년 합창단이 수백 년간 불려온 성가곡과 모테트, 그들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자리잡은 가곡과 왈츠, 폴카, 그리고 세계 각국의 민요와 영화음악 등 지난 527년의 역사를 음악으로 들려준다.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은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홍석원, 부지휘자 백승현의 깊이 있는 해설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진행되는 고품격 무대로, 기존 한낮의 공연으로 호평받았던 마티네 공연 외에도 직장인들의 즐거운 퇴근길이 되어줄 저녁 공연으로 이틀간 나누어 진행된다. 1월 23일과 24일, 동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헝가리’를 시작으로 아메리카(3월 25일-26일), 북유럽(7월 24일-25일), 프랑스(8월 28일-29일), 영국(10월 30일-31일)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2월에는 2025년 상반기 기획공연 시리즈로, 부산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활동해 온 민간 오케스트라 4개 단체와 함께 브람스 교향곡 전국 시리즈 ‘브람스 사이클’을 진행한



다. 2월 20일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의 '교향곡 제2번'을 시작으로 4월 4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교향곡 제1번'을, 5월 29일 부산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교향곡 제4번'을 연주하며,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7월 25일 '교향곡 제3'

번'으로 브람스 음악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교향곡 전곡을 감상할 수 있다.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하는 '살롱 드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는 2월 21일과 6월 20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주인공은 독보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와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함께하는 독보적인 아티스트 KoN(콘)으로, 관객과 함께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그들만의 매력에 빠질 수 있다.

이밖에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부산 출신의 대중 가수 황치열(2월 15일)과 장민호(2월 22일-23일)가 콘서트를 갖는다.

3월

에는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이 관객과 만난다.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연이은 매진과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3월 7일과 8일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관객 참여로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연극으로, 관객들은 주인공이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역할을 대신 해주며 자연스럽게 연극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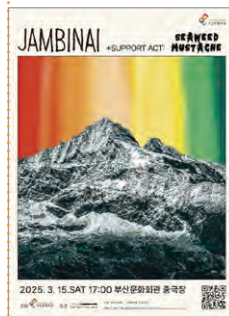
지난해 어린이들과 클래식 간의 간격을 좁혔던 클래식

공연 시리즈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가 관객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계속된다. 3월 15일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동요를 클래식 앙상블 '엘 콰르텟'의 연주와 노래로 전하는 '키즈송 위드 클래식'에 이어 5월 3일에는 세

계 민속음악 선율을 바탕으로 한 클래식 음악 속 다양한

춤곡을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댄스! 댄스!'가 펼쳐진다.

압도적인 감흥으로 세계 무대에서 사랑받고 있는 한국의 포스트 록 밴드 '잠비나이'는 부산 출신의 록 밴드 '미역수염'과 함께 4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는다. 3월 1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4월

에는 두 남녀의 만남과 사랑을 그린 연극 '랑데부'가 부산을 찾는다. 4월 4일과 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지는 '랑데부'는 두 주인공의 교차하는 운명을 다룬 감성적인 작품으로, 사랑과 아픔,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봄의 흥취가 가득한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시민회관 프락축제'도 4월 25일부터 한 달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5월

에는 이름만으로도 설렘과 감동을 주는 유명 아티스트들이 부산을 찾는다. 5월 2일에는 독일 고전주의 전통을 몸속 깊이 간직한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높은 완성도와 탁월한 기교, 지적인 해석으로 바이올린 연주의 척도를 보여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테츨라프는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됐으며 2021/22 시즌 런던 위그모어홀 상주 아티스트, 2022/23 시즌 런던 심포니 '포트레이트 아티스트(Portrait Artist)'로 활동했다.



5월 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10대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오랜 음악지기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과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반가운 재회의 무대를 갖는다. 함께 무대에 오를 때마다 서로가 원하는 가장 솔직한 음악을 만든다는 두 친구는 이번 무대에서 두 솔리스트의 음악적 깊이가 더해진 앙상블로 시대와 사조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5월 29일에는 캐나다 대표 오케스트라인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NAC Orchestra)가 대한민국 간판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함께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리즈 콩쿠르 우승자인 알렉산더 셸리가 이끄는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대담한 프로그램, 풍부한 스토리텔링, 많은 영감을 주는 예술성 및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아 왔다.

이밖에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는 음유시인 정태춘&박은옥 콘서트가 5월 17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어느덧 데뷔 40주년을 훌쩍 넘긴 두 사람의 대표곡들을 만날 수 있다.

6월

에는 세계적 권위의 런던 위그모어홀 스트링 콰르텟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에스메 콰르텟이 부산을 찾는다. 프랑스 디아파종지로부터 '이 네 명의 연주자들이 전하는 서정성과 투명함은 듣는 이에게 예상치 못한 깊이와 매력을 선사할 것이다'는 호평을 받은 에스메 콰르텟이 이번 부산 무대에서 어떤 연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6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난해 '코레오 커넥션'으로 부산을 찾았던 국립현대무용단은 올해 어린이 무용극 '얹! 얹! 얹!'으로 다시 관객과 만난다. 안무가 밝닝쿨·인정주가 안무한 '얹! 얹! 얹!'은 2024년 5월 초연 당시 생명력을 주제로 한 다양한 몸과 리듬의 실험으로 관객과 언론으로부터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화제작이다.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무대로, 6월 14일과 1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상반기 프로그램 오픈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커뮤니티 댄스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는 6월 27일과 28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2025년 제5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초청작으로, 초연 당시에는 중년여성들의 잃어버린 열정을 찾아주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였으나 이후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을 끌어들이며 현대인을 위한 치료 프로젝트로 불리고 있다.



예술의 정수를 담은 아카데미로의 초대

• 김명숙 (재)부산문화회관 교육전시TF팀장

2025년 (재)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아카데미 강좌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특별한 순간 부산문화회관 2025 아카데미 '나는 예술가다'

‘나는 예술가다’라는 타이틀 아래 국악, 무용, 어린이 합창 아카데미를 부산시립예술단과 협업으로 기획하였으며, 단순한 취미 강좌를 넘어, 예술적 깊이와 전문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번 아카데미는 수강생들의 창의적인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무대 경험 및 쇼케이스 등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예술을 통한 변화와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국악 ‘Feel the Vibe : 전통을 담다’ 우리 가락에 물들다

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하는 국악 강좌는 전통의 근본을 살리되, 누구나 쉽게 국악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총 6개 강좌(가야금, 거문고, 해금, 사물놀이, 대금, 피리)는 각 악기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으로 구성되며, 수강생들은 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의 지도 아래 각 악기의 독특한 소리와 음악적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악기와와의 조화를 이루며 무대에서 예술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기존 상·하반기로 운영하던 것을 연간으로 운영하여 강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무용 ‘움트다(UMT-DA) 프로젝트’ 전문성과 창의성의 경계를 허물다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 하는 무용 강좌는 이정운 예술감독이 지향하는 철학인 움트(UMENT)를 바탕으로 합니다. 몸의 움직임에 통해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예술에 대한 갈망이 움트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춤예술의 정체성을 보편적이고 친숙하게 넓혀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립무용단 이정운 예술감독이 강사로 참여하여 ‘디딤 nine’ 훈련법에 기반하여 장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춤사위의 세밀한 동작 분석과 창의적 표현을 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좌는, 일반인(초급), 일반인(중급), 전문가반으로 나뉘어져 참여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무용을 단순한 신체의 움직임이 아닌, 예술적 표현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수업을 통해 무용의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익힐 뿐만 아니라, 쇼케이스를 통해 아카데미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합창 ‘우리의 하모니’ 프로젝트 : 무대에서 자라나는 예술적 감수성

2025년 새롭게 준비하는 아카데미 합창 강좌는 초3~중2 학년을 대상으로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것이 아닌,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무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12월에 있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공연에 합창단으로 참여하여 시립교향악단의 무대에 함께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합창제의 연합합창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무대 경험을 통해 그동안 배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예술의 중요성과 무대의 가치, 그리고 협업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합창 아카데미는 음악적 기초부터 고급적인 합창 기법까지 배우며, 최종에는 무대에 서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성장형 아카데미 프로젝트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예술 아카데미

(재)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 하는 ‘나는 예술가다’ 아카데미를 통해 예술이 주는 감동과 무대에서의 특별한 경험으로 예술이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 새로운 예술의 장에 여러분을 예술가로 초대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산시립예술단 2025년 신년계획

2025

乙巳年

※ 공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오랜 세월, 시민들과 함께 하며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나왔습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도
부산시립예술단은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여러분 곁으로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을사년 새해를 앞두고 2025
년 상반기 정기연주회 라인
업을 전격 공개한 부산시립교
향악단은 올 한 해도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로 새로운 도
전을 이어가는 한편,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협업으
로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
정이다.



홍석원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해 상반기, 6차례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새해 첫 무대인 제616회 정기연주회는 1월 10일, 홍석원 예술감독의 지휘로 개최된다. 활기찬 새해 무대에 어울리는 자유로우면서도 화려한 랩소디와 카프리치오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동양인 최초로 게자 안다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이진상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명곡 '파가니니 광시곡'이 연주되며, 월튼의 '카프리치오 부를레스코'로 시작하여 립스카-코르사코프의 '스페인 기상곡'으로 마무리된다. 발렌타인데이인 2월 14일에는 부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는 제617회 정기연주회 'Valentin'이 펼쳐진다. 사랑을 주제로 한 낭만적인 무대로, 포레의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1919)이 연주되

며, 2024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은중의 깊이 있는 연주로 브람스의 걸작 ‘바이올린 협주곡’을 만날 수 있다.

3월 6일과 7일, 이틀간 열리는 제618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긴장(Spannung)’과 ‘이완(Entspannung)’의 대조를 통한 음악적 흥취를 선사하는 ‘(Ent)Spannung’ 무대가 펼쳐진다. 현대음악 장르에서도 긴장도가 매우 높은 시네티케의 ‘합주 협주곡 제1번’과 베토벤 작품 중 가장 평온한 교향곡 제6번 ‘전원’을 연주함으로써 두 작품이 서로 대비되는 묘미를 즐길 수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최송화와 유다운의 비르투오소적인 연주로 시네티케의 극도의 긴장감을 만날 수 있다. 지휘는 예술감독 홍석원. 4월 11일 열리는 제619회 정기연주회 ‘Paradiso’는 지난해 홍석원 예술감독 취임과 함께 포문을 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시리즈’로, 천상의 삶을 표현한 말러 ‘교향곡 제4번’을 연주한다. 말러 교향곡 중에서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진솔한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투명한 미성과 기교로 호평받고 있는 소프라노 박미자의 기품 있는 음성으로 들려주는 마지막 악장 ‘천상의 삶(Das himmlische Leben)’은 교향곡의 백미로 꼽힌다.

5월 23일 열리는 제620회 정기연주회 ‘New World’에서는 부산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

는 부산콘서트홀 무대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처음 오른다. 협연자 없이, 오롯이 교향악단이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를 책임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콘서트홀 개관을 맞아 영웅적인 모습을 담은 모차르트의 ‘주피터 교향곡’,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을 연주한다. 새롭게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에서 관객들을 만날 부산시립교향악단 무대에 벌써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제621회 정기연주회 ‘DSCH’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정기연주회로, 쇼스타코비치 서거 50주년을 기념, 그만의 이니셜 코드 ‘DSCH’를 넣으며 자유를 외쳤던 쇼스타코비치의 대표곡인 ‘첼로 협주곡 제1번’과 ‘교향곡 제10번’을 들려준다. 특히 ‘DSCH’는 쇼스타코비치의 이름과 성의 독일식 약자를 음표로 변환한 모티브로, 그의 많은 작품에 등장하며 독재에 대한 은유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이번 무대에서 ‘첼로 협주곡’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내외에서 중형무진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첼리스트 최하영이 협연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해도 ‘실내악 시리즈’를 통해 보다 다양해지고 특별해진 실내악 무대를 선보인다. ‘실내악 시리즈’는 정기연주회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다채로운 실내



악 음악의 세계를 소개하는 한편,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아닌 솔리스트로서 단원들의 기량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음악회 입장이 어려웠던 영유아와 부모들을 위한 ‘우리아이음악회’, 실제 리허설을 바탕으로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미완성 음악회’, 부산 청소년 음악인들의 당찬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또한 계속된다.

한편, 2019년 첫 선을 보인 후 색다른 분위기와 음악들로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심야음악회’는 올해부터 예술감독 홍석원과 부지휘자 백승현이 진행하는 해설음

악회로 대체된다.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1월 23일과 24일, 동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헝가리’를 시작으로 아메리카(3월 25일-26일), 북유럽(7월 24일-25일), 프랑스(8월 28일-29일), 영국(10월 30일-31일)으로 떠나는 세계 음악여행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이틀 공연 중 첫날은 직장인들의 즐거운 퇴근길이 되어줄 저녁 공연으로, 둘째 날은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마티네 공연으로 진행된다.

독일 순회 연주회 떠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올해 9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이 참가하는 유명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독일 순회 연주회를 떠난다.

독일의 대표적인 음악축제인 ‘베를린 음악축제(Musikfest Berlin)’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뮌헨 바이에른 방송국 무지카비바 페스티벌(BR Musica viva)’ 초청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회 연주회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세계적 수준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를린 음악축제’는 1951년 베를린 축제주간(Berliner Festwochen)으로 시작되어 2005년부터 현재의 관현악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베를린 페스트슈필레(Berliner Festspiele)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그동안 사이몬 래틀, 다니엘 바렌보임, 쿠르트 마주어, 로린 마젤, 존 엘리엇 가디너, 마리스 얀손스, 샤를 뒤투아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초청받았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닉, 로얄 콘체르트 헤바우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이 매년 참가

하고 있다.

‘무지카 비바(Musica viva)’는 1945년 칼 아마데우스 하르트만에 의해 설립된 후 1948년부터 바이에른 공영방송(Bayerischer Rundfunk)이 주최해오고 있는 현대음악축제로 프린츠레겐트 극장, 헤라클레스 홀, 가스타익 콘서트홀 등 뮌헨 주요 공연장에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9월 20일 독일로 출국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3일 베를린 필하모닉(베를린)에서 열리는 ‘베를린 음악축제’에 참가한 후 25일 프린츠레겐트 극장(뮌헨)에서 열리는 ‘무지카 비바’ 무대에 선다. 특히 현재 유럽에서 활동 중인 가장 중요한 현대음악 작곡가 중 한 명인 작곡가 박영희의 탄생 80주년을 맞아 그의 작품들이 올해 ‘베를린 음악축제’ 공식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박영희의 대표곡인 ‘소리’(1980),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2023), ‘높고 깊은 빛 II’(For Violin, Viola and small Orchestra 2013)을 들려준다. 이번 순회 연주회에서는 2006년 제55회 독일 뮌헨 ARD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벤킴과 베를린 독일교향악단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강별, 한국인 최초로 베를린 필의 정식 단원이 된 비올리스트 박경민이 함께 한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은 2025년 합창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로 관객과 만난다.

부산시립합창단의 올해 첫 무대는 새봄을 맞아 마련한 제 195회 정기연주회 '봄의 교향곡(Spring Symphony)'(3월



이기선

13일)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 작곡가인 벤자민 브리튼의 곡으로, 봄을 예찬하는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고 부산시립합창단과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웅장한 합창과 성악가 최정원, 이아경, 김효중, 김대영이 솔리스트로 출연,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로 2025년 새봄을 맞는 기쁨을 노래한다.

가정의 달 5월에는 3일과 4일, 부산시립합창단 단원들의 합창과 연기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 '피노키오와 파란마녀'가 펼쳐진다. 동화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합창 뮤지컬로 지난해 5월 첫 선을 보여 가족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음악극으로서의 더욱 풍성한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 청소년교향악단과 2310밴드가 연주를 맡아 무대의 완성도를 높인다.

6월에는 지난 2021년 첫 선을 보인 후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6월 20일)가 열린다. 부산시립합창단이 부산 또는 세계에서 활동 중인 지휘자를 초청, 부산 관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선한 울림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무대로, 김해시립합창단, 제주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한 성상철이 부산시립합창단과 호흡을 맞춘다. 특히 이번 무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쟁과 평화 그리고 희망'이라는 타이틀로, 호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넋을 기리며 관객들에게 안식과 평안의 시간을 선사한다.

7월 24일에는 지난 2005년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 '2025 Summer Fantasy'가 제197회 정기연주회로 펼쳐진다. 'Summer Fantasy'는 매년 여름, 클래식 위주의 딱딱한 공연에서 벗어나 관객과 합창으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된 부산시립합창단만의 특별한 무대로, 주옥같은 국내 가요를 풍성한 합창음악으로 들려주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왔다. 올해는 1부 영화음악에 이어 2부에서는 가벼운 클래식 곡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



담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9월 18일 열리는 제198회 정기연주회는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로, 한국의 아리랑 30여 곡을 엮어 만든 작곡가 임준희의 'Song of Arirang!'을 선보인다. 'Song of Arirang!'은 국립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위촉곡으로, 과거가 아닌 시공간을 초월하고 동서양을 새롭게 융합한 글로벌시대의 아이콘으로 아리랑을 담아낸 곡이다. 부산과 광주, 대구 등 3개 지역 시립합창단이 연합으로 기획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위대한 광복의 의미를 음악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교류음악회를 통해 광주(9월 5일)와 대구(9월 25일)에서 동일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11월 18일에는 제199회 정기연주회 '세계의 합창음악 여행'이 펼쳐진다. 부지휘자 임희준이 소개하는 세계의 다양한 합창음악과 시대와 장르를 불문한 다양한 선곡으로 합창음악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2025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제200회 정기연주회(12월 4일)는 지난해에 이어 현대 오라토리오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이 시대의 한 아이'를 부산 초연으로 선보인다. 이밖에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들과 함께하는 합창축제 '제35회 부산합창제'는 10월 28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부산시립무용단

이정윤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 있는 예술 세계를 선보이며 우리 춤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레퍼토리의 개발과 축적에 힘써온 부산시립무용단은 2025년부터는 해외 안무가 초청과 협업을 통한 '해외 안무가 프로젝트(가제)'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간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올해 두 차례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그리고 교류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5월에 열리는 제91회 정기공연(5월 9일-10일)에서는 인간의 삶과 감정, 형체를 한국춤의 정서를 바탕으로 표현한 창작무 '남풍'을 선보인다. '남풍'은 이정윤 예술감독이 지난 2019년,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선정을 위한 제80회 정기공연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이정윤 감독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연출과 안무로 한국춤의 호흡기법과 움직임의 다양한 예술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숨'으로 형상화하고 시각화하여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11월 열리는 제92회 정기공연(11월 7일-8일)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해외 안



이정윤



부산시립무용단

무가 프로젝트(가제)'로, 해외 안무가 초청과 공동 협업을 통한 특별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선사한다.

또, 춤이 관객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춤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이정운의 댄스살롱'(7월 11일-12일)과 안무가를 향해 한 걸음(STEP) 옮겨 걷고자 하는 단원들의 든든한 디딤이 되고자 기획한 '홀路홀춤'(12월 5일-6일)도 2025년 계속된다. 특히 이정운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정운의 댄스살롱'은 올해 한국무용계의 각 세대를 대표하는 무용수들의 협무와 협업으로 꾸며진다.

한편, 부산시립무용단은 9월, 서울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리는 지역의 시·도립 예술단체와의 교류공연에 참여한다. 이번 교류공연은 부산시립무용단을 비롯하여 목포시립무용단, 울산시립무용단, 익산시립예술단 등 4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대로, 협업을 통한 전통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지역의 공연예술 확장, 그리고 상호 예술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통예술 활성화 등을 꾀하고자 마련됐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이번 무대에서 '판소리 적벽가'를 춤극으로 승화시킨 '용호상박'을 선보인다. '용호상박'은 지난 2021년 부산시립무용단의 춤 브랜드화 시리즈의 서막을 알린 공연으로, 지난해 제90회 정기공연을

통해 한국춤 창작의 다양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평단과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난해 창단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그렸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25년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상을 준비하고 을사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한다.



이동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월 17일 열리는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를 통해 관객과 새해 첫 인사를 나눈다. 사회성 짙은 '한국적 포크'를 추구해온 싱어송라이터 정태춘, '국악계의 이단아'라 불리는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과 뽕뽕,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거문고 연주자 이대하, 그리고 경기시나위 사물단원으로 구성된 연희앙상을 궁궁, 세계 최초의 택견비보이 트래블러크루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을사년 희망을 노래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3월 27일 열리는 제229회 정기연주회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올해부터 새롭게 마련한 창작 위촉곡 시리즈 첫 번째 무대로, 젊은 여성작곡가 4명이 ‘부산, 바다’를 주제로 작곡한 창작 국악관현악곡을 초연한다. 창작 위촉곡 시리즈 두 번째 무대는 6월 24일 제230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국악작곡가협회와 함께하는 위촉 창작곡 초연 무대로, 실력 있는 젊은 작곡가들의 새로운 창작곡을 만날 수 있다.

제231회 정기연주회이자 창작 위촉곡 시리즈 세 번째 무대는 9월 30일, ‘위대한 유산’이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이번 무대는 세계인류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무대로, 유네스코 지정 우리 전통 유산인 종묘제례악, 범패, 가곡, 줄타기를 주제로, 새롭게 위촉된 창작곡을 만날 수 있다. 2025년 창작 위촉곡 시리즈 마지막 무대인 ‘부산 국악 작곡 콩쿨’은 10월 28일 제232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부산 국악 작곡 콩쿠르’는 새로운 창작 국악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작곡 콩쿠르로, 전문 심사위원과 일반인, 관객, 그리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직접 심사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며, 이날 무대를 통해 수상자들에게 발표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이번 콩쿠르는 국악 작곡의 저변을 확대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레퍼토리를 구축함으로써 부산 국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관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음악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계속된다. 4월 23일에는 평일 오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휴식과도 같은 무대,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이 펼쳐진다. ‘국악 살롱, Salon’은 지난해 바리스타가 전해주는 커피이야기와 더불어 커피와 어울리는 다채로운 국악곡을 들려주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올해는 지난 1980년, 90년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과 함께 새롭게 창작된 국악창작곡 중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 ‘춘무’(박범훈 곡)를 비롯하여 국악연주로 감상하는 영화 OST, 그리고 가수 홍경민, 해금주자 김유나 부부가 함께하는 이색무대까지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바쁜 일상과 힘든 업무에 지친 직장일들과 시민 모두에게 우리 소리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7월 22일 펼쳐진다.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은 바쁜 일상과 힘든 업무에 지친 직장인과 모든 시민들을 위한 무대로, 퇴근길 누구나 들러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과 위로를 전하는 무대이다. 이밖에 8월 14일 열리는 특별연주회 ‘국악으로 떠나는 세계 음악여행’은 여행 유튜버와 함께 떠나는 세계 음악여행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을 통해 우리 음악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껴보고 이를 통해 국악의 세계화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제233회 정기연주회(12월 18일)는 부산-강릉 동해선 개통을 기념하는 ‘이음’ 국악콘서트로 마련된다. 강원도와 부산광역시를 대표하는 문화 예술단체 간의 교류공연으로,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합동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교류음악회는 부산공연에 앞서 4월 10일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먼저 개최된다. 이밖에 차세대 국악연주자들을 위한 제50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는 11월 21일 펼쳐진다.

부산시립극단

매년 연말이면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부산시립극단은 지난해에도 창작 국악칸타타 ‘가마솥 뽕산’ 무대로 2024년을 마무리했다. 김지용 감독이 연출을 맡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합창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5개 단체가 참여한 ‘가마솥 뽕산’은 부산의 역사, 정서를 담은 융복합 공연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에 이은 부산 브랜드 공연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지용

연말까지 분주한 일정을 보냈던 부산시립극단은 우선 2025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확정짓고 새해 첫발을 내딛었다. 부산시립극단의 새해 첫 공연은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창작초연’으로, 올해는 극작가 차승호, 김민우의 신작을 초연한다. 부산시립극단이 소극장 연극을 지향하며 기획한 ‘스타프로젝트’는 그동안 극단의 레퍼토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시도로, 단원이 주도하는 배우와 연기 중심의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2023년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극작가 김문홍, 2024년 서구의 전통적 연극관을 해체하면서 20세기 연극 운동에 서사극의 체계를 확립한 브레히트에 이어 올해는 부산 연극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킨 신진 작가들의 작품들로 꾸며진다.

우선 뮤지컬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로 화제를 모았던 차승호 극작가의 신작 ‘오롯이 빛나는’은 3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무대에 오른다. ‘오롯이 빛나는’은 각설이 타령을 하며 장터에서 엿을 팔며 살아가는 디올이와 그녀의 아들이자 틱 장애로 절체절명의 기회를 날려버린 고교 3학년 야구선수 우동기가 전국 장터로 다니며 겪는 여행담을 통해 두 모자의 희망 찾기를 그리고 있다.

또, ‘다윗의 비책’, ‘생존의 법칙’ 등 무거운 주제의 작품에서부터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같은 로맨틱 장르까지

두루 쓰고 연출했던 김민우의 신작인 ‘초월자’는 첩보 심리 드라마로,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구성과 빠른 전개가 일품이다. 27살의 실패투성이 청년 김동욱은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의문의 단장에게 이끌려 비밀스러운 조직 ‘극단 초월’에 합류한다. 동료들과의 유대감과 냉혹한 임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동욱은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지만 마침내 세계의 진실을 목도하는데... ‘초월자’는 4월 4일과 5일 이틀간 관객과 만난다. 두 작품 모두 객원연출로 제작되며, 아직 연출자는 미정이다.

2024년 가족 관객들의 많은 환호를 받았던 ‘신데렐라’가 2025에도 다시 돌아온다. 6월 6일부터 한달간 어린이전용극장인 사랑채극장에서 선보이는 가족뮤지컬 ‘신데렐라’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명작동화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왕자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하고 싶은 일과 꿈을 찾아가는 현대적 신데렐라로 재탄생시켰다.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부산시립극단의 장기공연 프로젝트이다.

매년 ‘명작극장, 창작극장, 가족극장’이라는 기조로, 극단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지켜온 부산시립극단은 2025년 하반기에는 고전명작을 위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매년 수많은 무대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합창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는 부산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올 한 해도 역사와 전통에 어울리는 최고의 합창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천경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 한 해 5차례 정기·특별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첫 무대는 3월 29일 열리는 특별연주회 ‘프렌들리 콘서트’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부산 지역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초청, 교류무대를 갖는다. 특히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2003년부터 ‘프렌들리 콘서트’를 통해 전국의 소년소녀합창단과 교류하며 합창을 통한 우정을 쌓아오고 있다. 이번에 부산을 찾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976년 창단한 48년 전통의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매년 창작 합창 뮤지컬, 정통 클래식, 어린이를 위한 음악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왔다. 지난 2023년 5월에는 상임지휘자 체제로 전환, 권기원 지휘자가 취임하여 제2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제166회 정기연주회로 창작뮤지컬 ‘엄마 같이 걸어요’(5월 31일)를 무대에 올린다. 언제 들어도 그리운 그 이름 ‘어머니’를 주제로 가족의 소중함을 그린 작품으로, 어머니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합창과 안무, 영상 등이 조화를 이루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가슴 찡한 감동을 전한다. 9월 13일 제167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세계평화의 염원과 미래를 노래하는 ‘평화의 노래 Song of Peace’를 들려준다. 1부에서 수준 높은 ‘삼바미사’를 시작으로 아름답고 수려한 가곡합창을 선보이며, 2부에서는 다채로운 세계합창의 향연을 신나는 안무와 함께 펼친다. 3부 마지막 무대에서는 신비롭고 화려한 아카펠라 음악을 시작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평화의 노래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13일에는 제168회 정기연주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를 선보인다. 올 한 해 수고한 모든 분들께 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무대로, 아카펠라 고전합창과 즐거운 가곡합창, 그리고 다양한 캐롤과 겨울 음악 메들리로 저물어가는 2025년을 마무리한다. 이밖에 청소년 합창문화의 발전과 합창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해온 제36회 부산청소년합



부산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창제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합창축제로 펼쳐진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난해 창단 30주년을 맞이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25년에도 더 내실 있는 기획과 운영, 과감한 도전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단체로 거듭날 계획이다.

다양한 연주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부산 음악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으로 부산 시민과 만나왔다. 특히 백승현 수석지휘자와 함께 단단한 기량을 다지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최근 들어서는 단원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극대화하고 음악적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내외 정상급 협연자를 초청,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여왔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지난해 3차례 정



백승현

기연주회를 통해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과 생상스 '교향곡 제3번', 베토벤 '교향곡 제5번'을 차례로 연주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에스메 콰르텟의 하유나와 허예은, 오르가니스트 박준호, 트리 오 콘 스피리토 등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췄다.

올해도 정기연주회에서는 음악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레퍼토리부터 오늘날 꾸준히 무대에 오르며 사랑받는 레퍼토리, 그리고 아름답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레퍼토리로 단원들을 기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연주 관람의 즐거움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기획연주회에서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유망주음악회가 솔로 혹은 소규모 앙상블 레퍼토리로 세 차례 펼쳐지며, '솔로리스트들의 축제'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연주 기량이 우수한 단원들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협연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부산시립예술단의 기획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통해서 성악가들과의 협업으로 극음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이밖에도 다양한 시민들과 호흡하고 문화소의 지역을 찾아가 음악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찾아가는 공연',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공연도 올 한 해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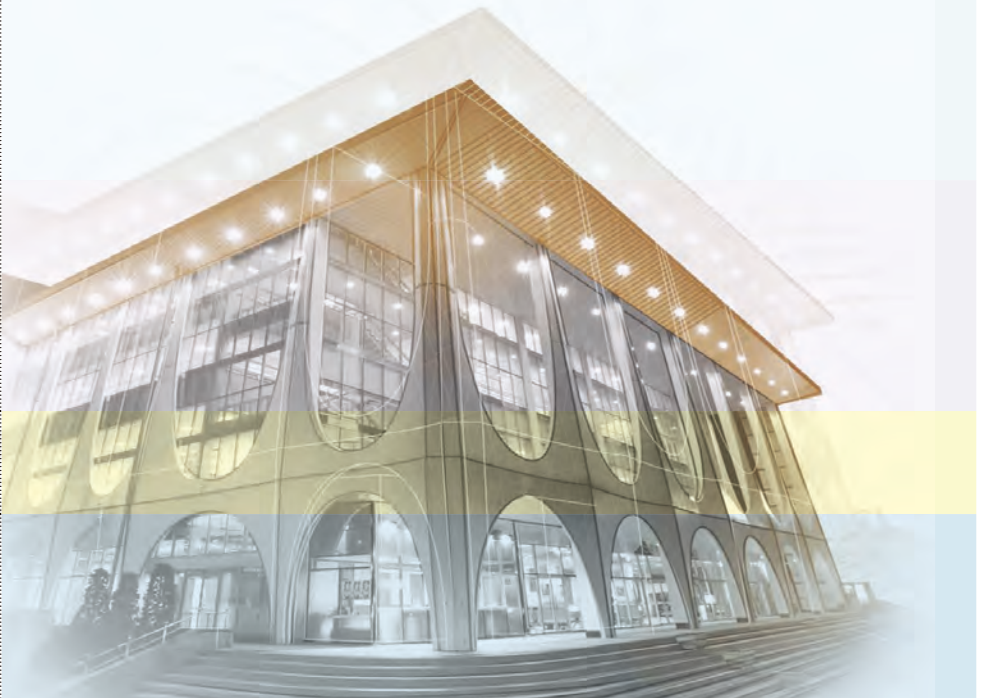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25 Performance Calender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문화회관 대극장	기획 1/4(토) 13:00, 18:00 2024-25 린 전국투어 콘서트 'Queen of Serenade' 1/11(토) 17:00 2025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2/20(목) 19:30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1_ 유나이티드 코리아안 오케스트라		4/4(금) 19:30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2_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5/29(목) 19:30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3_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6/5(목) 19:30 에스메 콰르텟 리사이틀
	예술단 1/9(목) 19:30 교향 '미완성 음악회' 1/10(금) 19:30 교향 'Rhapsody & Capriccio' (제616회 정기) 1/11(토) 19:30 교향 'Rhapsody & Capriccio' (제616회 정기)	2/14(금) 19:30 교향 'Valentein'(제617회 정기)	3/13(목) 19:30 합창 '봄의 교향곡'(제195회 정기) 3/27(목) 19:30 국악 'New Composition Series I <부산, 바다>(제229회 정기)	4/1(화) 19:30 청교(제76회 정기) 4/11(금) 19:30 교향 'Paradiso'(제619회 정기)	5/3(토) 11:00, 15:00, 5/4(일) 17:00 합창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제196회 정기) 5/9(금) 19:30, 5/10(토) 15:00 무용 '남풍'(제191회 정기) 5/13(화) 19:30 청소년교향 '2025 솔로리스트들의 축제'(특별) 5/22(목)-5/24(토) 평일 19:30, 토요일 17:00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바리데기' 5/31(토) 17:00 소년소녀 '엄마 같이 걸어요' (제166회 정기)	6/18(수) 19:30 교향 '미완성 음악회' 6/19(목) 19:30 교향 'DSCH'(제621회 정기) 6/24(화) 19:30 국악 'New Composition Series II- 부산국악작곡가협회와 함께하는 <초연의 밤>(제230회 정기)
문화회관 중극장	기획 1/4(토) 17:00, 1/8(수) 19:30, 1/10(금) 19:30 2025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1/23(목) 19:30, 1/24(금) 11:00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헝가리'		3/15(토) 17:00 잠비나이 콘서트 with 미역수염 3/25(화) 19:30, 3/26(수) 11:00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아메리카'	4/4(금) 19:30, 4/5(토) 15:00 연극 '랑데부'	5/2(금) 19:30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5/3(토) 17:00 김영옥&김다윤 듀오 콘서트	6/14(토), 6/15(일) 14:00 국립현대무용단 '압! 압! 압!'
	예술단	2/21(금) 19:30 교향 '실내악시리즈 1'	3/5(수) 19:30 교향 '미완성 음악회' 3/6(목)-7(금) 19:30 교향 'Ent)Spannung' (제618회 정기) 3/29(토) 17:00 소년소녀 '프렌들리 콘서트'(특별)	4/23(수) 11:00 국악 브란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특별)		6/20(금) 19:30 합창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특별) 6/25(수) 16:00 교향 '부산음악콩쿠르 수상자 연주회'
문화회관 챔버홀	챔버홀 1/14(화) 19:30, 1/17(금) 19:30 2025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4/30(화) 19:30 교향 '실내악시리즈 2'		6/14(토) 17:00 청소년교향 '유랑주 음악회'(특별)
	사랑채극장					6/6(금)-7/6(일) 공휴일 주말 11:00, 14:00 극단 '신데렐라-너의 뜻대로'(특별)
시민회관 대극장	기획 1/17(금) 19:30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1/23(목) 19:30 2025 빈 소년합창단	2/15(토) 17:00 황치열 The Special			5/17(토) 17:00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5/29(목) 19:30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예술단					
시민회관 소극장	기획 1/17(금) 19:30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1/23(목) 19:30 2025 빈 소년합창단	2/21(금) 19:30 살롱 드 바이올린 토크콘서트 I '대니 구'	3/15(토) 15:00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키즈송 위드 클래식'		5/3(토) 15:00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클래식 댄스 댄스!'	6/20(금) 19:30 살롱 드 바이올린 토크콘서트 II 'KoN(콘) 6/27(금) 20:00, 6/28(토) 15:00 당신은 지금 바비레따에 살고 있군요
	예술단		3/28(금) 19:30, 3/29(토) 17:00 극단 '스타프로젝트-창작초연' (제79회 정기)	4/4(금) 19:30, 4/5(토) 17:00 극단 '스타프로젝트-창작초연' (제79회 정기)		
야외관	시민회관 전시실		[전시실1] 3/7(금) 14:00, 19:30, 3/8(토) 14:00, 17:00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야외광장] 4/25(금) 12:10 2025 시민뜨락축제	[야외광장] 5/2(금), 5/9(금), 5/16(금) 12:10 2025 시민뜨락축제	
순화·해외 공연				4/10(목) 19:30 국악 강릉-부산 동해선 개통 기념 <이음> 국악 콘서트' (강릉아트센터) 4/17(목) 19:30 교향 '2025 교향악축제' (서울 예술의전당)	5/23(금) 19:30 교향 'New World'(제620회 정기, 부산콘서트홀)	

*기획공연은 상반기 일정만 게재합니다. 이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7/25(금) 19:30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7/24(목) 19:30 합창 '2025 썸머판타지' (제197회 정기)	8/14(목) 19:30 국악 여행 유튜브와 함께하는 <국악으로 떠나는 세계음악 여행>(특별)	9/13(토) 17:00 소년소녀 '평화의 노래 Song of Peace'(제167회 정기) 9/16(화) 19:30 청교(제77회 정기) 9/18(목) 19:30 합창 'Song of Arirang' (제198회 정기) 9/30(화) 19:30 국악 'New Composition Series III <위대한 유산>(제231회 정기)	10/28(화)-30(목) 19:00 합창 '제36회 부산합창제'(특별) 10/31(금) 19:00 소년소녀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11/1(토) 15:00 소년소녀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11/7(금) 19:30, 11/8(토) 15:00 무용 '해외안무가 프로젝트' (제192회 정기)	12/4(목) 합창 현대오라토리오 2 '이 시대의 한 아이'(제200회 정기) 12/9(화) 19:30 청소년교향제(78회 정기) 12/13(토) 17:00 소년소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제168회 정기) 12/18(목) 19:30 국악 2025 송년음악회 '부산-강릉 동해선 개통 기념 <이음> 국악 콘서트' (제233회 정기)
7/24(목) 19:30, 7/25(금) 11:00 부산시향과 함께 건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북유럽'	8/28(목) 19:30, 8/29(금) 11:00 부산시향과 함께 건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프랑스'		10/30(목) 19:30, 10/31(금) 11:00 부산시향과 함께 건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영국'		
7/11(금) 19:30, 7/12(토) 15:00 무용 '이정윤의 댄스살롱' 7/22(화) 19:30 국악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특별)		9/11(목)-9/13일(토) 평일 19:30, 주말 17:00 극단(제80회 정기공연)	10/24(금) 19:30 교향 '실내악시리즈 5' 10/28(화) 19:30 국악 'New Composition Series IV <부산 국악 작곡 콩쿠르>(제232회 정기)	11/18(화) 19:30 합창 '세계의 합창음악 여행'(제199회 정기) 11/20(목) 19:30 교향 '제81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1/21(금) 19:30 국악 '제50회 청소년 협연의 밤'(특별)	12/5(금) 19:30, 12/6(토) 15:00 무용 '홀로홀쏘'(특별)
	8/12(화) 19:30 교향 '실내악시리즈 3'				
6/6(금)-7/6(일) 공휴일 주말 11:00, 14:00 극단 '신데렐라-너의 뜻대로'(특별)					
7/19(토)-20(일) 14:00, 17:00 극단 '대한민국 국공립극단페스티벌' (경주예술의전당)					



독자들과 함께하는

2025년 나의 즐거운 문화생활

2025년 창간 33주년을 맞는 <예술의초대>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

올해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신년 계획을 소개합니다.

<예술의 초대>는 앞으로도 부산지역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며
부산의 문화와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부산콘서트홀에 가는 기대

김희성 동서대학교 교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전, 다가올 새해에는 어떤 기분 좋고 즐거운 소식들과 멋진 공연들이 계획되어 있을까 설레면서 기다리게 된다. 많은 음악회를 찾아다녔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음악모임을 하고, 비전공자지만 소속기관에서 음악감상회를 15년 이상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클래식 음악사랑은 진심이라는 자부심으로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2025년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염원한 클래식 음악 전용 홀인 부산콘서트홀이 완공되어 부산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5월 개막공연은, 그 어떤 연주회보다도 기다리면서 꼭 티켓을 구해 현장에서 그 감격을 함께 누리보고 싶은 마음이다. 부산콘서트홀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부산시민들의 자랑거리와 사랑받는 명소가 되길 바래본다.

작년 부산시향 지휘자 및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홍석원 지휘자의 2025년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부산시립예술단은 민간단체에서 소화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부산시민들에게 소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홍석원 지휘자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여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들려주길 희망한다. 올해 부산시향의 연주회 중에서는 쇼스타코비치 사망 50주년을 맞아 제621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인 교향곡 제10번이 개인적으로 올 상반기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다. 함께 연주될 첼로 협주곡 제1번도 최하영의 협연이니 6월 19일은 무조건 문화회관으로 갈 것이다. 올해도 여느 해와 같이 시향 정기연주회 100% 출석을 다집해본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김영욱 & 김다솔 듀오 콘서트, 에스메 콰르텟 리사이틀 또한 기대되는 공연으로 벌써 예매했고 연주를 기다리고 있다.

2026년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완공되면 부산은 그 어떤 도시 못지않은 외적인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이들 홀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위상정립과 내적인 충실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목적은 그 어떤 것에서도 최고가 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각 홀의 위상에 적합한 작품들이 “제대로” 무대 위에서 펼쳐지길 문화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래본다.

세상, 사람 그리고 나를 만나게 하는 힘

박주호 서양화가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백건우 선생의 연주를 듣고 왔습니다. 평생을 피아노와 함께 한 그의 연주는 힘을 뺏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보다 온전히 공기와 소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도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남에 있어 상대방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힘을 주기보다 힘을 빼는 사람.

예술의 역할이 어찌면 이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술과 만남을 통해 나를 드러다 보는 일, 이러한 알아차림을 통해 내 삶이 더 풍부해지는 일, 이것이 예술의 지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만나듯이 좋은 예술은 세상, 사람 그리고 나를 만나게 합니다. 그 만남들이 새해에도 따뜻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공연 정보

안세범 바리톤

2024년 12월, 부산시립예술단의 '가마췌 뫼산' 공연에 참여하면서 부산에 다양한 시립예술단이 있고 실력 또한 출중하다는 걸 크게 느꼈습니다. 성악가로서 주로 오페라나 독창회, 가곡연구회 같은 공연을 많이 찾아 다녔는데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산에서 연주되는 다른 분야의 예술 공연에도 큰 영감과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2025년에 열리는 시립예술단의 다양한 공연들을 꼼꼼히 찾아 다녀볼 생각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극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함께 있으며 해마다 많은 공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고 관람해보는 시간들을 가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공연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연들 또한 부산 시민들에게 좀더 쉽게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훌륭한 퀄리티의 연주를 많이 올리고 있으니 이 또한 관심을 가져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부산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등 부산의 주요 공연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채롭고 흥미로운 공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매달 초에는 각 공연장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없다면 귀국 독창회, 귀국 독주회 등 초대로 제공되는 공연도 많이 있으니 그런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에는 문화 예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시립예술단에서 준비하는 많은 공연들을 통해 몸과 마음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울리는 연주

이윤희 피리 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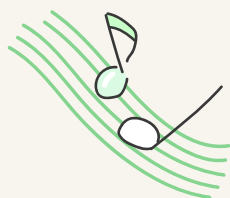
‘로봇트는 피리를 불 수 없다’라는 타이틀로 연말 첫 독주회를 열었다. 이 공연은 나에게 단순한 연주를 넘어, 연주자로서의 마음을 다지고 음악의 본질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피리는 인간의 숨결과 감정을 담아내는 악기다. 하지만 준비 과정 내내 고민했던 것은 기계처럼 완벽하지만 감정 없는 연주와 인간의 열정이 깃든 연주의 차이였다. 로봇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연주한다고 해도, 인간처럼 감정을 담아내는 소리는 결코 흉내낼 수 없다. 이번 공연을 통해 나는 음악이 단순히 소리를 내는 기술이 아니라, 연주자의 감정과 마음이 깃들 때 비로소 울림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숨결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소리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을 무대 위에 고스란히 담아내고자 했다. 준비하는 과정은 때로 힘들고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게 했지만, 그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를 더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

올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리의 따뜻함과 전통음악이 가진 현대적 가치를 전하고 싶다. 나의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단순히 소리만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나누고자 한다.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나만의 음악적 언어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인간의 열정이 담긴 연주가 가진 힘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감성을 채우는 한 해

박성신 주부홍보단



2025년이 성큼 다가오며,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설렘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내년은 공연 관람뿐만 아니라 전시회 참관 등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풍성한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년에는 오페라 공연 관람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오페라는 음악, 연기, 무대 예술이 결합된 종합 예술로서 강렬한 선율과 드라마틱한 스토리 속에 담긴 감동과 아름다움, 강렬함을 선사하는데요, 현장에서 오페라를 관람한다는 것은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예술의 정수를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술관과 박물관을 더욱 자주 찾으려 합니다. 현대미술과 전통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 작품들은 시대와 호흡하며 많은 볼거리와 생각할 것들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관람하며 작품 속에 담긴 작가의 의도와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고 깊이 탐구하며, 감상하는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예술은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025년, 더욱 풍성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감성을 채우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술의 초대> 독자 여러분도 각자만의 특별한 예술활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술을 통한 여유와 긍정의 힘

이민진 주부홍보단

2025년 을사년을 곧 앞두고 있다. 1년의 시간은 얼마나 빠르지. 2024년 순간순간 즐겁게 보냈었는데 내년 새로운 행복을 기대하게 된다. 한 해동안 부산문화회관의 다양한 공연들을 즐겼었는데 새로운 한 해도 새로운 공연들로 문화생활을 즐기길 바란다.

2024년도 공연 중 기억에 남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 내년 공연들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봄에 있었던 <화이트데이 브런치 콘서트>이다. 본홀이 아닌 로비에서 공연이 열리고 VIP로서 대접받는 듯한 원형테이블에서 기분좋은 브런치를 제공받으며 부산시립합창단의 연주를 듣는 것, 그리고 사연소개도 듣는 토크콘서트. 연주자들과 가까이서 소규모 살롱처럼 이뤄지는 공연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 공연을 마치고 부산문화회관 앞 잔디밭에서 같이 관람한 엄마와 같이 봄바람을 맞으며 거닐던 하루가 좋게 기억에 남는다. 이런 공연이 후반기에도 있을까 했는데 내년 계획이 있다면 기대해본다.

둘째는 소프라노 조수미와 함께하는 2025 신년음악회이다.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무대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대표적인 왈츠, 폴카, 오페레타 등이 연주된다.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해석, 빈의 음악 세계의 정수를 맛볼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신이 내린 목소리 조수미의 왈츠 ‘레몬꽃이 피는 곳’, ‘빈 기질’, 그리고 오페레타 ‘박쥐’ 서곡 중 ‘내가 순진한 시골 처녀를 연가할 때’를 들을 수 있고 그녀의 화려한 콜로라투라 테크닉과 끼, 더불어 수준 높은 애티튜드와 손동작 하나 하나까지 눈을 땔 수 없는 무대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문화생활은 삶의 각박함 혹은 우울함, 힘듦 가운데 행복한 추억으로의 선물이 되니 이 얼마나 좋은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예술을 통해 여유와 긍정의 힘을 얻고 심을 누리고 영혼이 살찌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니 예술의 초대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2024년 말,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고, 설레임으로 2025년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예매 안내에 따라
벌써 10여개 의 공연을 예매하였습니다.
2025년은 (재)부산문화회관 공연과 함께
행복한 문화생활을 하겠습니다.

김미선(부산시 남구 오륙도로)

취미가 그림그리기와 전문카메라
사진찍기입니다. 2025년에는 그림과 사진
기술 향상을 위해 워크숍과 전시 관람에
참여하고, 정기 창작과 지역 활동을 통해
문화적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김민균(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 기대하는 공연: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손열음님의 연주
* 계획: 일이 바쁜단 핑계로 미루지 말고
두 달에 한 번은 문화생활 즐기며 나를 위한
온전한 시간 가지기, VIP 회원 유지하여
예매권 쓰기, 티켓북에 티켓 가득 채우기

김은정(부산시 북구 사랑로)

봄의 왈츠, 여름의 탕고, 가을의 재즈,
겨울의 클래식으로 이뤄진 레파토리를
원해요. 발길이 닿아 들린 전시장의 작품이
있기를 바래요. 부산문화회관 앞 잔디에서
열리는 소규모 공연도 있으면 좋겠어요.

김아영(부산시 남구 분포로)

나의 기대에 항상 부응해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2025년 새해에도 기대합니다.
행복한 저녁을 만들어줘서 좋고, 강의 때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홍보 엄청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산문화회관의
기획공연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공연이 많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은희(부산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2025년에는 클래식 음악인 한 명을 깊게 사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유명한 곡만 알던 브람스의 곡들을 모두 들어보고 싶고, 첫 음 첫 마디만 들어도 어떤 곡인지 알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공연알림 설정해두고 브람스 공연을 자주 찾고, 관련 책을 읽고, 그의 음악을 플레이 리스트에 가득 넣어두는 넉넉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과 계획이 있습니다 :)

김재현(부산시 금정구 오시계로)

제일 기대되는건 '푸른 뱀의 띠' 2025년 신년음악회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가 찾아왔어요~ 시험관시술 여러번 끝에 얻은 아기라 더욱 소중합니다. 7월 출산 예정인데 아기와 함께 좋은 문화공연으로 태교하고 싶습니다.

김태림(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2025년에는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아이 중심 공연을 많이 관람하고 싶다. 매년 사랑채 극장에서 부산시립극단이 선보이는 질 높은 공연을 보고 있는데 <미운오리새끼>, <신데렐라>에 이은 고전의 새로운 해석을 기대한다. 2025년에는 <ㅋㅋㅋ 키즈클래식> 공연이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리는데 이미 예매했고 이 공연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아이와 함께 하는 문화의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남세현(부산시 동래구 연안로)

올해에 저는 엄마로써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바쁘고 빡빡한 생활속에 문화생활을 즐겨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인데 그래도 2025년 (재)부산문화회관 공연들 목록을 살펴보니 내년에는 문화생활을 꼭 즐겨보고 싶은 기대감이 들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빈 소년합창단 공연이 제일 기대가 되네요~ 저희 아이들과 꼭 함께 공연 보고 싶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관람하고 싶습니다.

김혜정(부산시 수영구 호암로)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 기대돼요. 관람도 체력이 받쳐줘야함을 느꼈어요. 몇 시간 동안 앉아 있고, 무대 후 힘찬 박수를 위해 새해엔 운동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노정연(부산시 사하구 하신변영로)



○

○



일단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기대하고
있고, 홍석원 지휘자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빠놓지 않고 관람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오페라를 많이 보고 싶어요.

우현아(경남 창원군 귀동길)

영도에 살면서 이제껏 영도밖으로 안나왔는데
2025년 부터는 영도밖 문화생활로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다양한 문화활동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약속~~!!

박정아(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1년에 꼭 2번은 공연관람으로 시간을 보내는게
워킹맘인 저에게 단비같은 시간입니다.
2024년에는 루돌프 부흐빈더의 공연과 압판
츠베덴 공연,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공연관람으로
행복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있을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와 손열음
피아니스트의 공연이 무척이나 기다려 집니다.
아이가 더 크면 함께 공연을 즐기고 싶어요~^^

박희정(부산시 해운대구 센텀2로)

얼마전에 연극 <이단자들>을 보고 왔는데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고 소재도 참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25년도에도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과 <랑데부> 작품이 기대됩니다.

문정은(부산시 서구 총무대로)

손열음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기대됩니다. 피아노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손 연주자의 이름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딸이 우연히 영상으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접하고 팬이
되어 예술의 전당 공연을 다녀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저게 자랑을 했습니다. 내 품을 떠난 딸, 멀리 있는 딸과
교감을 하기 위해 유튜브를 보며 손열음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감상하다가 마침 내년 5월에 공연이 있는걸 알고
1도 고민없이 예매했습니다. 음악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언어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공연을 관람하고 딸과 어떤 수다를 떨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박미희(부산시 금정구 구서중앙로)

지구 정반대편 해외에서 근 10년을 근무하다
고향인 부산으로 최근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즐기지 못한 고향의 문화생활의 결핍을 보상 받듯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공연들을 다양하게
찾아서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요즘입니다.
2025년에는 부모님들과도 함께 공연을 즐기며
행복한 순간을 많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백소라(부산역시 남구 오륙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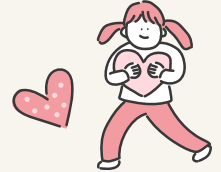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 중 예술단 회원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국악관현악단 회원으로 댕컴 가입하였지요.

2025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도 2개
예매했고요. 그동안 유튜브로만 들었는데 내년에는
공연장에서 우리의 소리와 연희를 직접 듣고 보고
느끼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설레네요.

송수빈(부산시 남구 동명로)



2024년 1월 11일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와
조수미님이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가 제일 기대되고 2025년에는
음악회뿐 아니라 연극, 뮤지컬, 오페라, 영화,
콘서트, 롯데자이언츠 야구경기, 부산아이파크 축구,
KCC이지스 남자농구, BNK썸 여자농구 직관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상우(부산시 동래구 온천장로)

2025년 부산문화회관에서 가장 기대되는 공연은
<당신은 지금 바비레파에 살고 있군요>입니다!
누군가의 엄마, 딸, 아내로 살아왔던 여성의 입장에서
그녀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라는 카피가 너무
좋았습니다! 2025년에는 뮤지컬, 연극,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들로 다채롭게 채우고 싶어요~

윤수진(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항상 설레고, 어떠한 멋진 공연을 펼쳐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예술의 초대> 책자를 통해
몰랐던 이야기들, 또 소극장의 공연들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를 선두로
5월 기획 공연까지 예매 완료했으며, 2024년에는 몇번
누락된,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연말까지 빠지지
않고 출석 도장 찍는 것으로 나만의 2025년 문화생활을
채울 계획입니다. 나의 마음과 인생을 행복하게 채워주는
멋진 공연들 기획하고, 연주, 전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다(부산시 부산진구 신암로)

2025년 부산문화회관에서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며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습니다. 특히 청년 예술인들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감동을 느끼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는 계획입니다. 공연 외에도 전시회와
워크숍에 참여하여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 예술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깊은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선근(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로)

○

○

저는 올해 연극을 시작하게 된 아마추어 연극인이자 직장인입니다. 2025년에는 부산국제연극제 등 다양한 연극 축제를 즐기고 연극 공연을 많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황주혜(부산시 동래구 여고북로)

올해 퇴직을 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 한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공연 관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불안하기도 하지만 충실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이수아(부산시 사하구 하신변영로)

2024년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전시 관람으로 삭막한 일상에 눌러진 예술에 대한 욕구가 부활함을 느꼈어요. 예술과 담을 쌓은 남편과 손잡고 분기별로 뮤지컬, 합창, 연극 공연을 관람하면서 직장에서는 퇴직을 맞이했지만 새로운 문화인생으로 제2의 인생을 설렘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2025년 신년음악회와 빈소년 합창단 공연이 기대되고 꼭 보고 싶어요.

이정희(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중년이 다 되도록 과학강사로 10년간 학생들 가르치는 일과 대학원만 다니다가 올해부터 문득 다른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관객문화교실에 다니며 영화에 흠뻑 취해 살면서 드문 드문 전시회도 가고 시민작가전에도 참여해보면서 2024년은 새로운 세상을 맛 본 한해였습니다. 내년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전시회뿐만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현장감있는 예술공연도 즐기고 아카데미같은 곳도 참여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이벤트가 어떻게 입문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이성전(부산시 동래구 사직로)

올해부터 계속 기대중인 공연은 무엇보다도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공연이에요. 테츨라프의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하는데 마침 부산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중입니다. 거기에 더해 부산문화회관에서 기획중인 <브람스 사이클 시리즈>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요. 브람스 교향곡을 한 달에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호사를 부산문화회관에서 누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부산문화회관은 공연보다도 아카데미 강연과 마티네 공연으로 먼저 알게 되었는데, 지역에서 고퀄리티의 밀도있는 강연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다가오는 2025년에도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예술, 인문학 강연으로 풍성한 내면을 채우는 한 해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혜연(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하는 기획공연뿐 아니라
대관공연의 단체관람을 많이 진행합니다.
올해는(지금 글을 쓰는 시점에서) 창작칸타타 <가마췌 뫼山>과
연극 <더 드레서> 단체관람이 남아 있습니다.
2025에는 좀 더 많은 공연의 단체관람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혹시 티켓북이 당첨된다며 참여하는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네요.
늘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공연이 끝나면
설문이 진행되는데 내년에는 부산시립극단의 작품을 다양하게
만나고 싶은 바람입니다. 클래식, 국악관현악, 연극, 뮤지컬,
오페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은정(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가장 기대하는 공연은 당연히 소프라노 조수미가
협연하는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신년음악회입니다. 다가올 새해의 첫 시작부터 웅장한 감동을
선사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계획은 계속해서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VIP)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공연안내
및 티켓발권을 통해 '높은 문화의 힘'을 축적해가는것이지요.
초등학생 아이와 매달 1회 이상 공연예술을
관람하는게 목표랍니다.

최성재(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퇴근 후 1일1클래식 공연관람. 집이 부산문화회관과
해운대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중간지점이라서
공연 관람하기 너무 좋아요. 세계적 스타이든 어린
학생들이든 가리지않고 매일 갑니다. 올해 부산예고
예술제 무대는 기대 이상의 수준높은 공연이었어요.
가게에 부산예고 학생 12명이 밥먹으러 와서 한식집에
클래식이 나오고 있으니 묻더라구요. 그냥 클래식이
좋아서 틀어놓는다고 했죠. 그리고 학생들 3개 공연
다보러 갔다고 하니 엄청 좋아하고 뿌듯해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클래식 공연보면 무명의
연주자들에게도 조그나마 힘이 되고, 더 중요한건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거리가 생겨서 남은
인생이 즐거울 것 같아요.

표상진(부산시 해운대구 삼어로)

신년 음악회 관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내가 매달
행복할 수 있게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을
관람하면서 클래식과 더욱 친해질 예정입니다.
또 두 달에 한번씩 미술 전시들을 보면서 교양도
쌓을 예정입니다. 덧붙여 크리스마스 때는 발레
<호두까기인형>을 보고, <재야 음악회>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

황은서(부산시 부산진구 서전로)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서른 분께는
(재)부산문화회관 티켓북을 신년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 분들 중 다섯 분께는 2025 문화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청년 춤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 최찬열 춤 비평가



기실 몸은 정신이나 의식보다 세계와 더 가깝다. 몸과 정신, 둘 다 똑같이 세계에 속하지만 그렇다는 말이다. 곧 몸은 정신이나 의식보다 세계와 더 맞닿아 있고, 마치 곤충의 더듬이같이 자기가 속한 세계를 곧바로 감지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드러낸다. 그러기에 몸짓은 생각이나 이것의 표현인 글보다 앞서 세계를 나타내 보인다. 세계와 소통하는 몸의 떨림이 분절되고 뼈대가 잡혀 질서와 체계를 이룰 때, 몸짓은 생각이 되고, 말이나 글이 된다. 그렇다면 몸짓은 모든 언어 형태의 모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몸짓은 세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몸의 말이고, 춤은 이런 몸의 예술이다. 인간을 그가 가진 정신의 중심성이나 초월성 혹은 특권성이 아니라 세계와 관계를 맺는 몸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에 의해 춤은 여전히 동시대에도 중요한 예술 장르일 수 있는 것이다.

실존하는 몸은 '지금-여기'에 거주하는 몸이다. 곧 몸은 언제나 이미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에 속한다. 달리 말하면 '지금-여기'를 떠난 몸은 없다. 정신이나 의식은 주로 세계를 초월하지만, 자기가 속한 세계를 초월한 몸은 없다는 말이다. 이는 몸이 '지금-여기'라는 국지적 공간성을 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몸짓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면 그 몸이 속한 '지금-여기'가 감지된다. 그런데 몸이 체화하고 있는 이런 국지적 장소성이 바로 지역성이 아닐까? 또 지역성은 우리 몸이 속해 있는 '지금-여기'의 장소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경상도 지역의 덧뵈기춤을 보면서 어렵지 않게 지역성을 간파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몸이 자신의 몸짓으로 자기와 로컬리티를 드러내는 것이 춤이다. 곧 춤은 몸 자신이 속한 로컬과 그 안에서 몸이 겪어온 온갖 삶의 굴곡을 눈에 띄게 고스란히 드러내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춤꾼의 몸은 여느 다른 몸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 세상을 포착하고 느끼어 안다.

하지만 '지금-여기'를 떠난 몸은 있을 수 없지만 포획된

몸은 있다. 아니 우리 대부분의 몸은 포획된 몸이다. 곧 우리의 몸은 기존 가치들이 기입된 몸이고, 이데올로기와 담론, 자본과 권력은 이런 몸을 코드화하는 외부적 힘이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데 편리하고 유용하게 구조화된 몸, 곧 코드화되고 습관화된 이런 몸은 최소치로 축소된 의미 영점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몸이다. 춤꾼의 몸도 여기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말하자면 자본과 권력이 유포하는 자극적인 감성이 전방위적으로 유혹하는 스펙터클한 세상에서, 고착된 춤 제도와 담론 안에서, 낡은 춤 관념을 강력하게 고수하는 춤 이데올로기 안에서, 대부분 춤꾼은 기존 춤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자기와 세상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한다. 요컨대 핏기 없이 창백한, 한갓 허무한 이러한 몸놀림이 아니라, 몸의 차원에서 교착된 채 작동하고 있는 감성의 분화에 저항하며 새로운 감성, 이질적인 몸짓-감각을 만들어 내는 춤 실천이 요긴한 시대라는 말이다.

그래서 요모조모 따져서 다시 청년 춤을 생각해 본다. 기존 춤 제도와 관습, 담론과 메소드, 춤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며 차이를 만들어 내는 춤이 청년 춤이기에. 또 청년 춤이 새로운 감성의 플랫폼이 되어, 여기서 예술과 생활 문화, 공동체 문화가 소통하고, 여러 장르의 예술이 융합하고, 주류 감성과 주변부 감성이 섞이는 등 다른 감성들이 교류하기를 요망하기에. 그렇게 청년 춤의 현장에서 전통춤과 거리춤, 하위 춤과 예술춤, 현대춤과 창작춤, 민속춤과 공동체 춤 등 다양한 몸짓-감각이 공존하는 장이 형성되고, 이질적인 춤들이 마구 횡단하면서, 이것들을 재배치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새로운 감성의 별자리를 만들어 낼 때 춤의 장래는 한층 더 밝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 춤판은 예술적 혁신이 일어나는 실험의 장이 될 때, 그리고 동시대적 감성이 넘실대는 춤판이 될 때, 청년이라는 말에 걸맞은 존재감을 뽐낼 수 있고, 또한 이곳에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을 가진 춤꾼, 실험적인 안무가, 독자적인 춤 영역을 구축하는 춤꾼, 기존 움직임을 탈구축하는 춤꾼 등 여러 장르의 청년 안무가들의 활동이 다채

롭게 펼쳐져야 할 것이다. 사실 청년 춤꾼은 기존에 창작 관행을 단순하게 반복하거나 답습하는 자가 아니다. 외려 그들은 기존의 춤이 가진 결핍성을 포착하고 진단해 새로운 춤적 주체화의 유형을 제시하고 입증하는 자이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춤적 가치와 새로운 몸짓 감각을 창안하는 전복의 춤꾼이면서, 언제나 기성 춤, 주류 춤에 강력하게 판지를 거는 발칙하고 재기발랄한 춤꾼이다. 그래서 동시대 춤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생성하고 변형되면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 춤에 깊이 각인돼 쉬이 변하지 않는 고착된 관행과 구태를 타파하는 춤적 소수화를 실천하는 자이다. 나이와 젊음이 청년 춤꾼의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곧 청년 춤꾼은 춤과 춤추는 몸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안무 개념을 다양화하거나 확장하고, 동시대적 창작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존 춤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거나 고쳐 아주 새롭게 하는 춤 실천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는 반시대적 춤꾼이다.

실로 청년 춤의 역할과 책임이 이렇게 막중하지만, 오늘 부산 춤 세계에서 청년 춤이 처한 상황은 그리 낙관하지는 않는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열악하다. 게다가 부산 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판국이기도 하다. 한때 한국 춤 세계를 선도하던 부산 춤이 예전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적절하고 자명한 진단이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위기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할 것으로 보이고, 이 추세를 저지할 만한 다른 뾰족한 수도 없어 보인다. 특히 부산 춤을 이끌던 청년 춤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지역의 대학교에서 무용 전공 학과가 대부분 사라짐에 따라 청년 춤꾼들을 배출하는 시스템과 토대가 거의 무너진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대학교에서 했던 역할을 대신할 만한 별도의 청년 춤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요컨대 해마다 떠들썩하게 개최되는 국제적인 규모의 춤 축제도 좋고, 춤 마켓도 좋지만, 청년 춤을 다시 살려 내지 못한다면, 부산 춤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또 부산은 춤을 생산하기 보다는 소비만 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어둠을 빛으로

박소윤

(재)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한 해의 시작은 나라와 민족마다 다르다. 태양이 땅을 비추어 새싹이 나는 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해를 비릇하는 일에서 등장하는 것은 불이다.

음력으로 설을 맞는 우리나라에서 새해는 새로운 농경살이의 시작이었다. 설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눈과 얼음이 녹아 비와 물이 되는 절기인 우수(雨水)가 되는데 이는 설이 지나

면 땅이 녹는다는 뜻이다. 설로부터 대보름까지 정월은 축제의 시간이었다. 깨끗한 쌀로 빚은 떡과 술로 천지신명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의 놀이에는 쥐불놀이나 달집 태우기와 같은 불놀이가 있었다.

서아시아의 신년은 낮과 밤의 시간이 같아지는 춘분(春分)이다. 이날을 광명의 신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ā)가 암



흑의 신 아흐리만(Ahriman)을 이기게 되는 첫 시작으로 여겨 노우루즈(Nowruz)축제를 연다. 이 축제 때에도 불을 피워 그 위를 뛰어넘는 놀이를 즐긴다고 한다. 시베리아의 에벤족의 새해는 하지(夏至)이다. 하지는 북반구에서 낮이 가장 긴 날이다. 순록은 보통 먹이가 넉넉해지는 봄에 새끼를 낳는데 이 시기를 지난 후에 새해맞이 축제인 헤브데넥(Хебденек)을 갖는다. 자연이 살아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헤브데넥 역시 모닥불을 피우는 불의 정화의를 포함한다. 고대 게르만족은 동지(冬至)를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며 이 시기에 올(Yule) 축제를 열었다. 이 전통이 북유럽 및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새해 축제로 발전하였고 오늘날 크리스마스 축제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올 축제 역시 통나무를 태워 한 해의 번영과 행운을 기원하였다고 한다.

불은 나쁜 것을 소멸시키고, 빛을 부여하며 따스함으로 생명을 기르는 것이다. 고대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불을 신성하게 여겼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는 불은 악과 거짓을 물리치는 정화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또한 불은 우주의 조화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의미도 갖기에, 불을 가지고 노는 민속풍습은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기원(祈願)의 놀이가 된다. 필자는 우리나라 민속놀이에서 음악과 춤이 불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음력 정월에 마을 사람들의 집과 우물가, 들판 곳곳을 다니며 춤추는 지신밟기가 그것이다. 어딘가에 숨어있을지도 모를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가정과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지신밟기에서 팽과리, 징, 북, 장구, 날라리, 소고의 어우러짐은 한바탕 불꽃놀이처럼 찌렁찌렁 찬란하지 않은가.

고대의 불놀이는 오늘날에도 달집태우기나 불꽃놀이로 이어진다. 달집태우기를 할 만한 공간이 있는 지역에서는 달집태우기를 하지만, 과밀한 도시에서는 달집태우기 대신 불꽃축제를 갖는다. 서울과 런던, 파리, 뉴욕, 시드니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12월 31일 24시를 기점으로 쏘아 올린 불꽃이 2025년의 시작을 밝힌다. 불꽃놀이는 불놀이의 현대적 진화이다. 지난해의 묵은 응어리는 모두 불꽃으로 산개하게 하고, 어둠 속을 가르는 짹하고 환한 빛처럼 희망찬 새해가

오기를 기원하는 의식인 썸이다. 그믐날의 불놀이는 새해 아침의 해맞이로 이어진다.

태양은 땅에서 지퍼 올리는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쬐는 빛이다. 태양은 그 자체로 불덩어리이며 천지를 따스하게 끼안는 기운이다. 제천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해를 양모해 왔지만, 본격적으로 해맞이라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린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1980년대 후반 지역축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변동 가운데 생겨난 해맞이 축제는 해운대, 간절곶, 해남, 서천, 거제도 등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해맞이 축제에 신명의 기운을 북돋우는 음악, 춤 등 문화행사가 어우러지는 것은 당연하다.

기후와 풍토, 농경이나 수렵과 같은 주된 생활방식에 따라 새해의 첫날은 설, 춘분, 하지, 동지 등으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묵은 더러움을 소멸시키고, 깨끗한 기운으로 다시 일상을 시작하는 경건한 결심만은 한결같다. 새해가 열린다는 것은 한 우주가 새롭게 탄생하는 일이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생명의 승리이자 어둠을 이긴 빛은 지난날의 고됨과 슬픔을 모두 이겨낸 평안함과 환희로의 재생이다. 그 우주의 섭리와 자연 절기와의 조화 가운데 번성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새해의 민속놀이 속에서 자연은 대상이 아닌 우리 자신이며, 강하게 결속되어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은 꿈을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협력자이다. 그 둘 사이에서 하늘의 뜻과 인간의 소원을 전하는 것은 예술의 일이다. 예술은 사람들의 염원을 표출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그 기원하는 마음을 살피고 섬기기에 사람들은 예술로 새해를 맞게 된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제 갈등, 국내 대통령 계엄과 탄핵, 지역소멸 등 국내외의 정치경제 여건이 편안하지는 않지만, 이 시국에도 또다시 예술의 힘으로 한 해를 경작할 용기를 내어볼 것.

그림자 없이는 「밝음」도 있을 수 없는 것을.

오오 다만 네 확실(確實)한 오늘을 놓치지 말라.

- 주요한 <불노리>(1919년)



1

•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국립극장에 마당놀이가 5년 만에 돌아왔다. 국립극장은 마당놀이 대표작 <심청이 온다> <춘향이 온다> <놀보가 온다> 등 세 편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엮은 손진책 연출 <마당놀이 모듬전>(11월 29일~2025년 1월 30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으로 관객몰이 중이다.

특히 올해는 윤문식(81)·김종엽(77)·김성녀(74) 등 원조 마당놀이 배우 3인방이 13년 만에 함께 출연해 화제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민은경 이소연 김준수 유태평양 조유아 등 국립창극단 스타 배우들,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젊은 배우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마당놀이가 한국 공연계를 대표하는 국립극장의 기획공연이 된 것은 그 출발을 생각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당놀이는 원래 야외에서 이뤄지는 모든 놀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공연 장르로서 ‘판소리 등 국악을 토대로 한 한국적 연극’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1981년 12월 MBC 마당놀이 <허생전>부터다. 당시 MBC 창사 20주년 기념 공모전에서 극작가 김지일과 기획자 이영운의 제안이 채택된 것이다. 김지일이 각색한 대본을 토대로 연출가 손진책, 작곡가 박범훈이 창작진으로 합류했다. 그리고 극단 민에 출신 배우들이 주요 배역을 맡았다.

서울문화체육관에서 무료로 열린 마당놀이 <허생전>은 관객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지만, 당시 관계자들은 1회성 행

사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당시 이진희 MBC 사장이 ‘한국적 코미디의 전형’이라고 칭찬하며 방송에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1월 1일 신정 명절에 내보낸 녹화방송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MBC의 연중 사업으로 자리잡게 됐다.

MBC는 1982년 2회 마당놀이부터 극단 민에에 제작을 직접 맡겼다. 손진책 등이 소속된 극단 민에가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수용한 연극을 지향했던 만큼 마당놀이를 만들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이후 MBC가 5회부터 마당놀이를 유료화했지만, 압도적 인기로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연로가 통제되던 시절에 풍자와 해학으로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당놀이에 대해 연극계 일부는 상업적인 오락물로 낮게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박제화된 전통 연희와 고전을 현재와 연결하는 고리로써 마당놀이를 평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1987년부터는 연출가 손진책이 윤문식 김성녀 김종엽 등과 함께 새로 창단한 극단 미추가 MBC와 손잡고 마당놀이를 제작했다. 그런데, MBC와 극단 미추는 작품을 둘러싼 방향성의 차이 등 여러 문제로 종종 갈등을 겪었다. 2001년 ‘마당놀이’ 상표권 분쟁까지 벌였는데, 법원은 “마당놀이는 보통명사”라며 극단 미추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마당놀이라는 타이틀을 단 공연이 이곳저곳에서 만들어지게 됐지만, 대중은



2



3

- 1 <마당놀이 모듬전> ©국립극장
- 2 <마당놀이 모듬전> 간담회
(김종엽, 윤문식, 연출가 손진책,
작곡가 박범훈, 안무가 국수호)
©국립극장
- 3 <마당놀이 모듬전> 배우
3인방(윤문식, 김성녀, 김종엽)
©국립극장

극단 미추의 공연을 압도적으로 선호했다. MBC가 극단 미추에 맞서 가요나 뮤지컬 요소를 강화하고 연예인을 많이 출연시킨 작품을 내놓았지만, 대본의 완성도가 높지 않았던 데다 연예인들이 마당놀이에 걸맞은 연기력이나 찰진 재담을 보여주지 못했다. ‘마당놀이 인간문화재’로까지 불린 윤문식, 김성녀, 김종엽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이들 3인방의 카리스마는 마당놀이의 배우 세대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극단 미추는 2007년엔 중국에 마당놀이 <삼국지>를 수출하기도 했지만, 2010년 마당놀이 30주년을 기념하는 <마당놀이전>을 끝으로 제작을 중단했다. 3인방의 노화에 따른 배우 세대교체가 시급했던 상황에서 연출가 손진책이 국립극단의 초대 예술감독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30년간 35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마당놀이가 후대 세대에도 계승됐으면 좋겠다던 손진책의 바람은 4년 뒤인 2014년 겨울 새로운 형태로 실현됐다. 국립극장이 기획공연으로 마당놀이를 부활시킨 것이다. 손진책이 다시 연출을 맡았고, 그의 부인이자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인 김성녀가 연희감독을 맡았다. 그리고 극작가 배삼식, 작곡가 박범훈, 안무가 국수호 등 기존 창작자들이 힘을 모았다.

하지만 출연진으로 윤문식 김성녀 김종엽 등 3인방과 기존 극단 미추 단원들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국립창극단 단원들이 중심이 됐다. 첫 국립극장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주역은 국립창극단의 김학용 서정금 민은경 등이 맡았다. 2010년대 들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창극을 경험한 단원들에게 마당놀이는 창극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주로 가설 텐트극장에서 공연된 극단 미추의 마당놀이와 달리 국립극장 마당놀이는 국립극장 내 해오름극장에서 열렸다. 무대 위에 3면의 가설 객석을 설치하는 한편 기존 객석을

대형 천으로 감싼 ‘극장식 마당놀이’다. 주최나 무대가 바뀌었지만, 마당놀이의 귀환에 팬들도 반가워했다. 덕분에 마당놀이는 제작극장으로 변신을 꾀하던 국립극장의 겨울 레퍼토리로 바로 자리잡게 됐다.

그런데, 2015년 두 번째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는 유난히 풍자와 해학이 적었다. 이 때문에 마당놀이가 극장에 들어오면서 특유의 야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풍자와 해학이 사라졌던 이유는 1년 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촛불 시위가 잇따르는 등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밝혀졌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취소 압력을 받아 전체적으로 위축됐던 것이다. 국립극장이 문체부를 설득해 공연을 올렸지만, 이전 같은 시사 풍자와 패러디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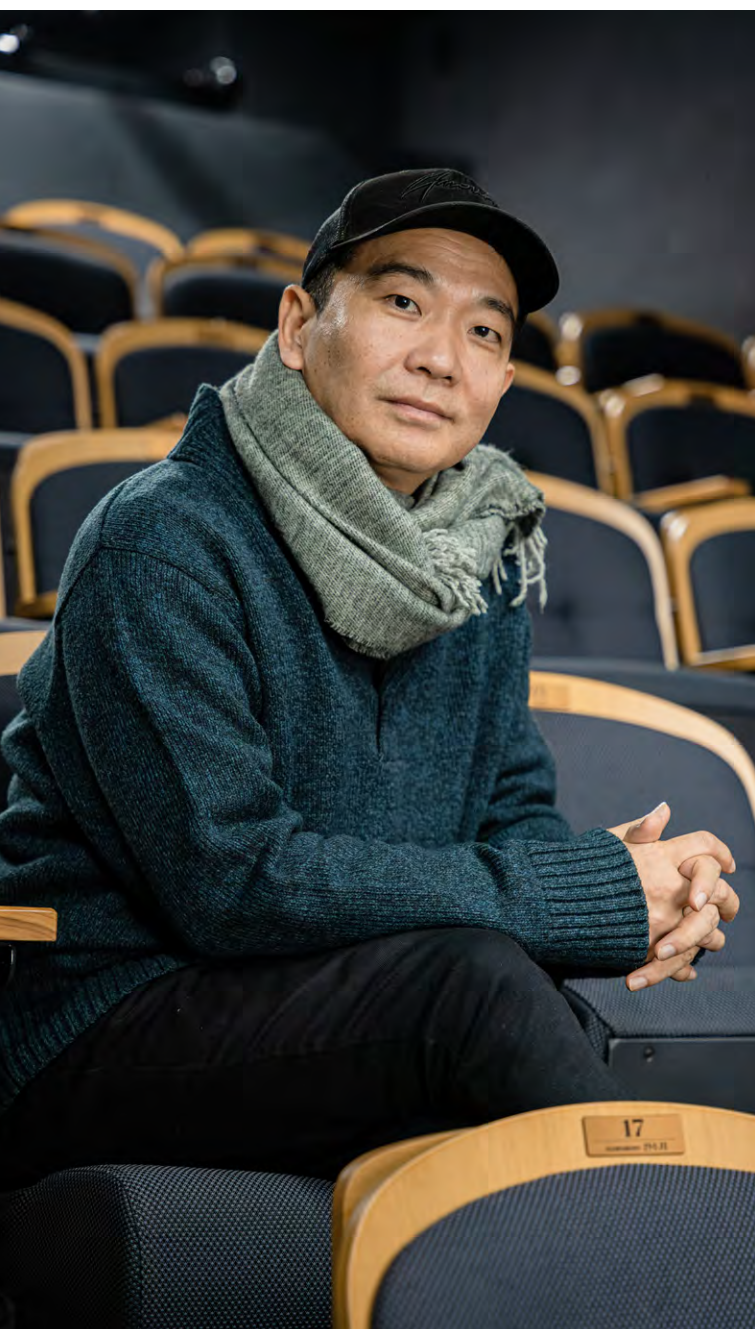
하지만 2016년 마당놀이 <놀보가 온다>부터는 다시 특유의 풍자와 해학이 되살아났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를 빗댄 각종 패러디가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2017년엔 리노베이션에 들어간 해오름극장을 대신해 하늘극장에서 <심청이 온다>가 올라갔다. 돛형극장인 하늘극장은 원형 무대와 그 무대를 둘러싼 객석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프로시니엄 극장인 해오름극장보다 마당놀이에 더 어울렸다.

2018년과 2019년 하늘극장에서 2년 연속 올라간 <춘향이 온다>를 끝으로 국립극장에서 마당놀이는 중단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해오름극장 재개관 등 국립극장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관객에게 아쉬움이 컸다. 다행히 마당놀이가 이번에 5년 만에 부활해 인기몰이 중이다. 답답한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웃음으로 달래주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마당놀이 3인방을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이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큰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부산이 발굴하고 키워서 서울로 세계로

(주)예술은공유다 대표 심문섭

• 박나무 자유기고가



학교 다닐 적 배웠던 연극의 3요소를 한 번 떠올려 볼까? 어릴 때는 ‘배우, 희곡, 무대’로 배웠던 것 같다. 거기에 하나를 더해 4요소라고 할 때 “연극을 만들면 뭐해? 관객들이 봐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서 ‘관객’을 끼워줬던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 모든 문서에서 배우와 관객, 그리고 희곡을 3요소로 꼽고 있다. 4요소라고 했을 때 무대를 포함하고 있으니, 무대가 섭섭할 만도 하겠다. 배우가 희곡을 들고 관객을 앞에 두고 있으면 거기가 길바닥이든 해변이든 연극이 되는 걸까? 연극이라면 일단 희곡으로 무장된 배우를 무대에 올려놓고 봐야하는 것 아닐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지만 실은 무의미한 질문이다. 어차피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공연은 아예 못 이루어질 일이며, 또 그 3~4요소만 갖고 공연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무대와 조명과 음향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으며, 희곡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배우들이 희곡을 보자마자 천재적으로 캐릭터를 소화하는 것도 아니니 연출자가 있어야 하고, 또 조연출도 있겠지. 또 누군가는 포스터 한 장이라도 전봇대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누군가는 보러오지 않겠나? 포스터는 또 누가….

연말의 시상식 수상소감처럼 여러 역할과 사람이 언급되었지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졌다. 연극이든 영화든, 뮤지컬이나 오페라, 또 드라마와 광고. 모든 영역에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 즉 제작자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은 다를지라도 제작이라는 행위가 없으면 그 작품은 존재 자체가 없는 것. 작품에 있어서 제작자는 조물주의 역할과 같을진대, 우리의 눈에는 제작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믿는 자들에겐 조물주가 절대적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없는 존재이기도 하니까…. 무대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우보다 더 리얼한 표정으로 울거나 웃고 있을 제작자 중 한 명을 만나기로 하고, 광안리의 어댑터씨어터를

찾았다. (주)예술은공유다의 대표 심문섭. 공연예술과 관련한 단체로서는 드물게 주식회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 그이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극장 어댑터시어터의 극장주이기도 하다. 제작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인터뷰의 시작은 어리석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제작자는 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흔히 ‘편딩’이라고 하는데,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돈이 필요하니까. 우선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개인투자자를 설득하거나 해서 일단 시작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죠. 그리고 대본과 배우, 그리고 연출자를 섭외하고 무대에 올립니다. 이 과정의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죠, 투자를 받아오지 못하면 모든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티켓팅을 통해 관객들을 극장에 불러 모아 함께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나가면 작품을 다시 팔 곳을 찾습니다. 판권을 판매하는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공연하는 것도 판매의 일종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어쩌면 시작도 끝도 없는 굴레 속에서 계속 회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999년부터 연극판에서 연출자와 기획자로 잔뼈가 굵은 그이는 2017년 ‘예술은 공유다’라는 이름의 회사를 만든다. 예술은 누구에게 소유되거나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다는 뜻이라 하니, ‘어댑터’라는 연결도구를 극장명으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다. 그리고 캐주얼오페라 <라 트리비아타>를 부산에서 100회 공연, 서울 대학로에서 50회 공연, 김해 울주 등 다른 지역에서 50회 공연하는 등 지역 업계에서는 흔치 않은 성공사례를 만들기도 한다. 2021년 어댑터플레이스 소극장을 광안리 해변에 열고 수많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더니, 2024년 6월에는 2관을 역시 광안리에 열고, 어댑터시어터 2관 운영체제를 만들었다. 연극을 넘어서, 뮤지컬, 오페라, 코미디극, 낭독콘서트, 수다콘서트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정



적인 무대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했다고. 수영의 공연문화 예술 가이드북 <at광안리>를 펴내기도 했다. 내 주변의 공연이나 체험의 기회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어댑터 역할을 누구보다 충실히 하고 있다.

“긴 외지생활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올 때 몸이 너무 아팠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먹은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자’였다. 워낙에 오페라를 좋아했고, 그것을 내 손으로 무대에 올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나처럼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전국적인 ‘대본공모’와 ‘배우모집’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발굴하고 키워서 서울로, 세계로 배출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 속에서 부산의 공연예술문화도 잘 성장하리라 믿는다. 그것이 제작자로서 내가 할 일이고, 어댑터시어터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예술은 공유다’가 믿는 가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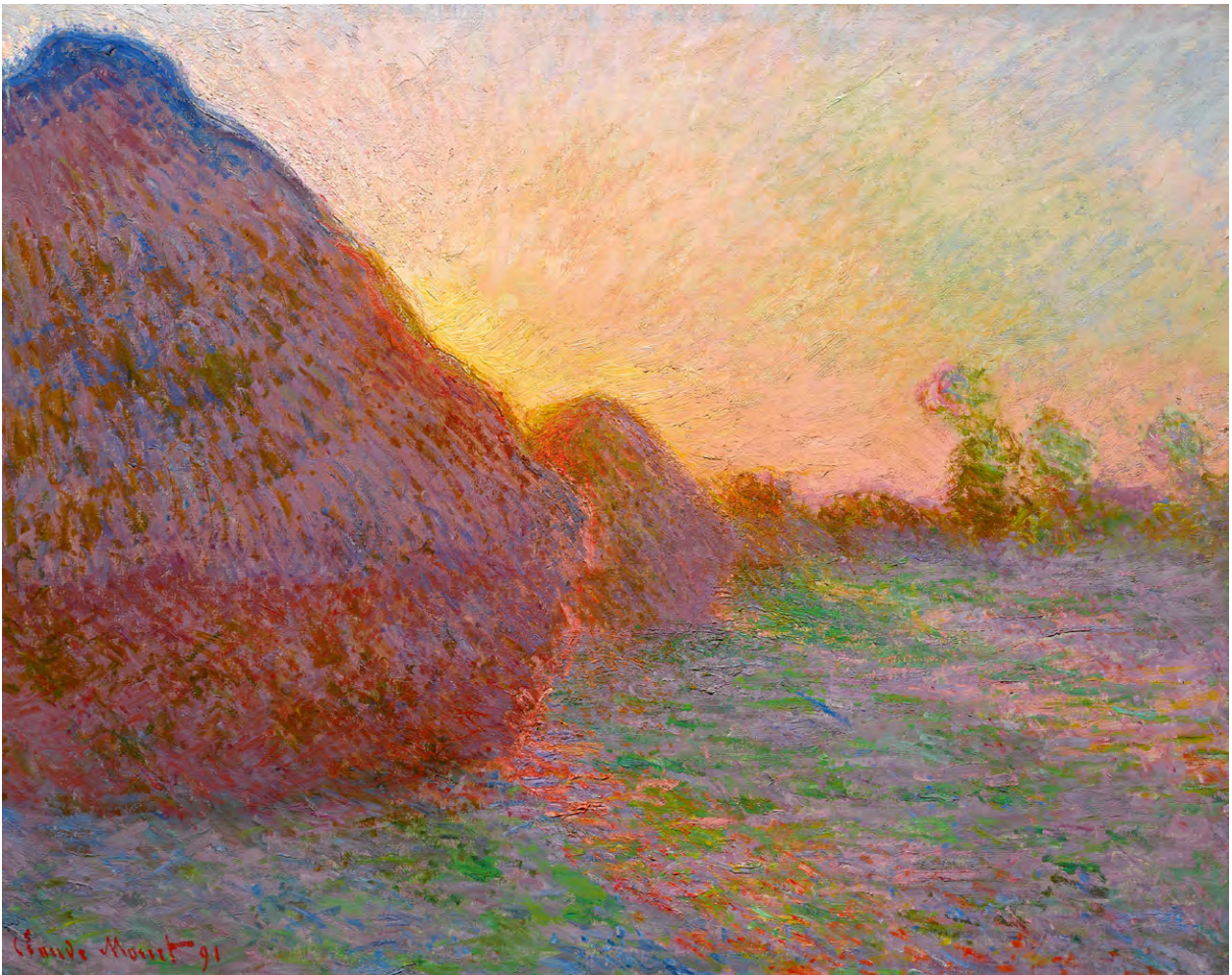
누군가에게는 뼈를 깎는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변모하여 관객에게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술의 역할이기도 하겠다. 오늘 내가 편안한 관객 노릇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심문섭을 비롯한 모든 제작자의 건투를 빈다.

■ 문의/ 어댑터씨어터 0507-1388-1447
instagram.com/adapter.theater

칸딘스키와 추상미술의 탄생

•
박승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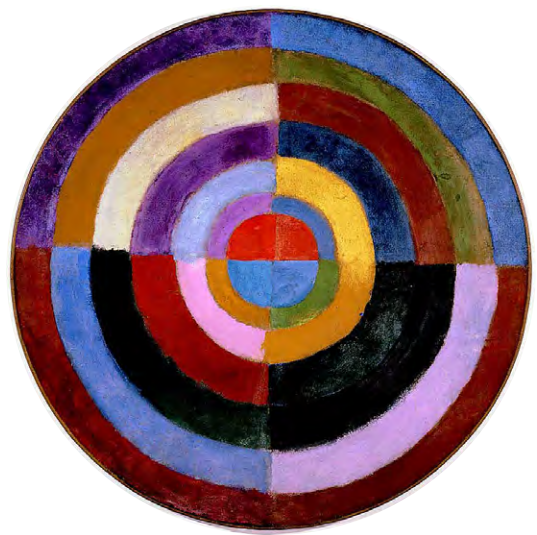
클로드 모네, <건초더미>, 1890, 캔버스에 유화, 73×92.5cm, 하소 플래트너 컬렉션(The Hasso Plattner Collection)

1896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프랑스 인상주의 전시에서 모네의 <건초더미>(1890~1891) 연작을 본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어떠한 계시를 받았다. “카탈로그의 제목을 보고서야 그 그림이 건초더미를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림의 대상이 사라졌다고 느꼈는데, 그 경험은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칸딘스키는 모네를 통해 미술에서 대상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네가 추구했던 것은 ‘건초더미’라는 사물이 아닌, 자신의 감각(인상)이었다. 19세기 인상주의가 일으킨 혁명은 미술에서 주제, 즉 일반 상식에 근거한 대상이나 신화, 종교, 역사 등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의 감각, 주관의 표현이었다.

같은 해 칸딘스키는 모스크바의 극장에서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Lohengrin)>을 관람하면서 또 한 번의 계시를 받았다. 그는 음악을 듣던 와중 자신이 음악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눈앞에 색이 보였다. 거칠고 광포한 선들이 내 앞에서 움직였다.” 예술가를 꿈꾼 서른 살의 칸딘스키는 모스크바 대학의 법학 교수를 그만두고 새로운 예술이 꿈틀대는 독일 뮌헨으로 향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경험한 공감각적 경험을 미술로 표출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캔버스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익숙한 형상 대신 ‘거칠고 광포한 선과 색채’가 난무했다.

공감각적 경험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비단 칸딘스키뿐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초 여러 화가들에게서 볼 수 있었고, 1910년이 지나면, 그것은 마침내 ‘추상미술’로 드러나게 된다. 이미 야수주의가 보여준 거침없는 색채와 입체주의의 기하학적 형태는 추상미술의 토대가 되었다. 더불어 20세기가 되면서 서구 사람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술문명과 산업자본주의의 눈부신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꿈, 환상, 욕망 등에 주목했던 19세기 낭만주의 운동과 합리적 인간상을 부정했던 쇼펜하우어, 니체의 영향으로 프로이트를 필두로 하여 정신분석학, 심리학 등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앞에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을 쇄신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미술은 외부 사물을 모방한다는 전통적인 예술관을 버리고 지금껏 개척되지 않았던 공감각과 인간 정신으로 눈을 돌렸다.

화가들은 특히나 음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 음악은 순전히 청각적 요소만을 활용한 추상적인 예술형식이다. 아무것도 보



로베르 들로네, <동시 원반>, 1912~1913, 캔버스에 유화, 134cm, 개인 소장

이는 것이 없지만, 음악은 귀로 들어와 우리의 심장을 울리고, 감정을 고조시킨다. 음악이 멜로디, 리듬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화가들은 회화 본연의 요소인 형태와 색채로 인간의 정신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12년부터 로베르 들로네(Robert Delaunay, 1885~1941)는 입체주의를 응용하여 다트 판처럼 보이는 원색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동시 원반>, <리듬>이라는 제목을 지닌 들로네의 작품들은 음악이 음의 배열과 떨림을 통해 음색과 화음을 표현한 것처럼 캔버스를 분할하여 색을 칠하고 거기서 색채의 떨림과 하모니를 드러냈다. 들로네는 그리스 신화 속 음유시인 오르페우스의 이름을 딴 미술 운동인 오르피즘(Orphism)의 창시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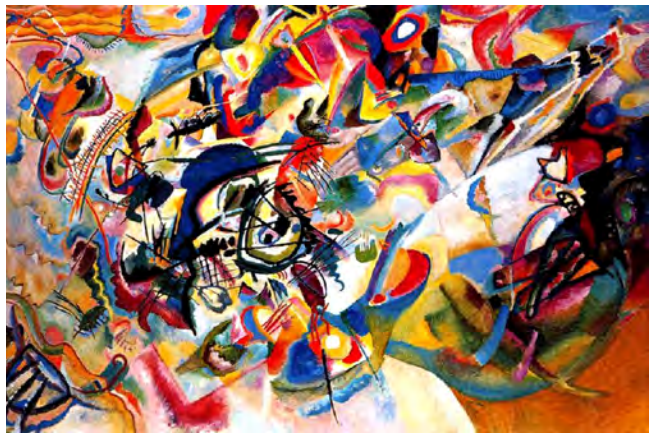
한편 뮌헨에서 칸딘스키는 당대 현대미술인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야수주의, 입체주의 등을 흡수했고, 마음 맞는 화가들과 함께, ‘깊은 영혼(영적 세계)’을 뜻하는 ‘푸른’과 ‘기사(騎士)’를 합쳐 ‘청기사(Der Blaue Reiter)’파(派)를 결성하였다. 청기사와 회원들은 문명과 자연의 구분을 넘어 신과 세계를 동일시하는 범신론에 관심을 가졌고, 우주와 인간 정신의 결합을 형상화하였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정신과 무한한 우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분명 관습에 근거한 표현 형식은 아닐 것이다. 이제 새로운 미술 형식이 요구되는데, 바로 '추상'이다. '추상(抽象)'은 우리 눈 앞에 펼쳐진 세계를 정신적으로 가다듬는 작용을 넓게 이른다. 인간이 만든 개념, 이론 등은 모두 추상의 결과이다. 이렇듯 추상은 물질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인간 정신이 개입된 세계를 말한다. 미술에서의 추상은 더욱 복잡한데, 사물의 형태와 색채를 간략하게 처리한 것부터, 인간의 감정, 관념, 상상 등을 관습적 매개 없이 곧바로 표현한 것까지 넓은 의미에서 추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칸딘스키는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을 듣고 그가 받았던 영혼의 울림을 <인상 III-음악회>(1911)로 제작했다. 화면에는 지휘자, 연주자, 악기 등 음악을 드러내는 '사물(매개)'이 등장하지 않고, 흰색 바탕을 배경으로 대각선으로 쏟아지는 검은색과 노란색과 그리고 왼쪽 아래의 다채로운 색채를 통해 음악의 선율과 음악이 빚어내는 감동을 회화적으로 보여준다. 이전에 겪었던 예술에서의 놀라운 경험들 그리고 뮌헨에서의 활동은 이후 하나의 선으로 떨어져 칸딘스키에게서 추상미술로 나타났다.

추상미술을 시도했던 화가들 중에서 칸딘스키가 선구자로 알려지게 된 것은 그가 추상의 필연성을 이론



바실리 칸딘스키, <인상 III-음악회>, 1911, 캔버스에 유화, 78.5×100.5cm, 렌바흐하우스 미술관, 뮌헨



바실리 칸딘스키, <구성 VII>, 1913, 캔버스에 유화, 200.6×302.2cm, 트레티야코프 갤러리, 모스크바

적으로 정립했기 때문이다. 추상미술이란 순전히 화가의 직관에 근거하여 그려진 것으로 보이지만, 칸딘스키는 가장 추상적인 예술인 음악을 응용하여, 미술(회화)도 인간 정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저서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1911)에서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통해 추상미술에서 선, 형태, 색채의 조화와 구성이 중요하며 각각의 색채와 형태는 모두 그러한 이유(필연성)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원(圓)-파랑-하늘(정신), 사각형-빨강-대지(중용), 삼각형-노랑-낮(세속, 물질)을 상징하며 다양한 색채형태는 그에 상응하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추상에 대한 신념과 이론화를 바탕으로 칸딘스키는 회화에 실내악, 관현악(오케스트라), 협주곡, 교향곡(심포니)과 같은 음악적 편성을 도입하였고, 추상을 활용하여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림을 그렸다. <구성 VII>(1913)은 칸딘스키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다채로운 화면을 보여주는데 수많은 악기에서 뿜어내 나오는 울림과 화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색채형태가 뿔어나가면서 서로 다투기도, 조화를 이루기도 하며 그림 전체가 사납게 울려 퍼진다. 관람자는 이를 통해 관습적으로 보던 세상과 사물 대신, 새로운 세계와 만나게 된다. 이처럼 추상미술은 인간 정신을 근간으로 형태와 색채라는 회화 본연의 요소를 극대화하여 미술(회화) 본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제 드디어 온전한 의미의 순수미술이 탄생했다.

INVITATION TO THE ARTS

G 가람아트홀	621-6669	G 액터스소극장	611-6616
가온아트홀	1600-1602	어댑티씨어터	0507-1388-1447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에저포소극장	852-9161
공간소극장	611-8518	열린아트홀	527-0123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글로벌아트홀	505-5995	영화의전당	780-6000
금정문화회관	519-5661~2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C 동래문화회관	550-6611	C 차상아트홀	728-0993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드림씨어터	1833-3755	초콜릿맥토리	621-400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 애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인디아트홀	623-6232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BOF아트홀	0507-1330-3001
부산문화회관	607-6000	K KBS부산홀	620-7181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S SM아트홀	1600-1602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H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2774-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SUN	MON	TUE	W
전시실 제42회 대한민국미술대상전 1월 8일(수)-1월 12일(일) (사)한국현대미술협회 644-0005 부경서도대전 제20회 전국공모전 1월 15일(수)-1월 18일(토) (사)한국서도협회부산지회 516-5678			
5 음악실현실 짜임 정기연주회 'New Solo Pieces with Strings IV' 17:00 중 2만원·1만원/음악실현실 짜임(050-6568-0222)	6	7	8 2025 부산문화회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중 6만원·4만원/(재)부
12 디즈니 OST 페스타 17:00 대 10만원·8만원·6만원/아트인뮤직(02-525-4420) 제7회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중 무료/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010-2831-2836)	13	14 2025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IV '아벨과르텟+피아니스트 홍민수' 19:30 챔 전석 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5
19 제3회 김희수 트럼펫 리사이틀 17:00 챔 전석 1만원/김희수(010-5530-5777)	20	21 2025 Nexen 월석문화재단과 함께하는 MUSICA BUSAN 19:30 중 2만원·1만원/KNB방송교향악단(850-9568)	22 제27회 유나이티드 코리아 19:30 중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
26 부산시민교향악단 제3회 정기연주회 17:00 대 무료/부산시민교향악단 (010-9081-4731, 010-9888-6888) 트리오 헤르만 정기연주회 17:00 챔 초대/트리오 헤르만(010-8287-8136)	27	28	29

ED	THU	FRI	SAT	
1	2	3	4	
			 2024-25 린 전국투어 콘서트 'Queen of Serenade' 13:00, 18:00 대 14만3천원 13만2천원/취월드쇼마켓(1566-5490)  2025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I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with Florin Iliescu' 17:00 중 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8	9	10	11	
챔버페스티벌 II '' 19:30 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19:30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6회 정기연주회 'RHAPSODY & CAPRICCIO'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5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III '월드스타 실내악 페스티벌' 19:30 중 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5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17:00 대 15만원·13만원·11만원·9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5	16	17	18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제13회 정기연주회 19:00 대 전석1만원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010-9944-8825)	 2025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V '부산의 젊은 연주자' 19:30 챔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비바아첼 인터내셔널 필하모닉 '부산시민을 위한 신년음악회' 17:00 챔 6만원·4만원/(주)블렌딩아트컴퍼니(746-2023)
2	23	24	25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케스트라(010-5468-4658)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헝가리' 19:3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마티네 '헝가리' 11: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Vienna Waltz in Busan' 17:00 중 3만원·2만원/KNB방송교향악단(010-7990-9568)	
9	30	31		

 2025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V
'부산의 젊은 연주자' 19:30

첼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SUN	MON	TUE	WE
전시실 효원사우회 회원전 1월 14일(화)-1월 19일(일) 전시실1 효원사우회 010-2564-7583			1
5	6	7	8
12 2025 어린이 서커스 마술쇼 11:00, 14:00, 16:00 Ⓢ 전석 4만원/KM기획(010-4095-3005)	13	14	15
19 가족매직쇼 '구구뽀의 매직쏘라구' 11:00, 14:00 Ⓢ 전석 4만원/쥬전공이엔티(1522-2061)	20	21 장애인 음악회 19:00 Ⓢ 부산장애인마이스협회(010-4220-9450)	22
26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11:00, 14:00 Ⓢ 전석 5만원/쥬더화랑이엔티(1800-6567)	27	28	29

ED	THU	FRI	SAT
	2	3	4 장사익 소리판 '꽃을 준다, 나에게' 16:00 대 15만원·12만원·9만원·6만원 (쥬공연마루(1588-0766))
3	9	10	11 2025 어린이 서커스 마술쇼 11:00, 14:00, 16:00 소 전석 4만원/KM기획(010-4095-3005)
5	16	17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19:30 대 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18 가족매직쇼 '구구뽀의 매직쏘라구' 11:00, 14:00, 16:00 소 전석 4만원/쥬전공이엔티(1522-2061)
2	23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5 빈 소년 합창단' 19:30 대 8만8천원·6만6천원·4만4천원·2만2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4	25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11:00, 14:00, 16:30 소 전석 5만원/쥬더화랑이엔티(1800-6567)
9	30	31	



천사들의 합창으로 전하는
희망과 위로의 새해 인사

2025

빈 소년 합창단

1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VIP 8만8천원 R 6만6천원 S 4만4천원 A 2만2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청소년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527년 전통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이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2025년 새해 인사를 전한다.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 중 하나로 꼽는 빈 소년 합창단은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빈 국립 오페라단과 함께 빈 궁정악단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유서 깊은 합창단으로, 지난 2017년에는 그들의 고유한 전통과 음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이들의 오랜 인기의 비결은 합창단의 깊은 전통과 역사, 한결같이 지켜온 소년 특유의 순수하고 깨끗한 목소리다. 특히 폭넓은 레퍼토리로 누구나 쉽게 빈 소년 합창단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전 세계가 이 합창단을 사랑하는 이유이다.

빈 궁정악단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527년 전통의 유서 깊은 합창단

빈 소년 합창단은 1498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였던 막시밀리안 1세의 칙령에 따라 빈 궁정성당에 소속된 성가대에서 출발했다. 이 전통에 따라 빈 소년 합창단은 지금도 매주 일요일, 호프부르크 왕궁 예배당에서 진행되는 미사에 참가하여 성가를 부르고 있다. 빈 소년 합창단은 궁정 전속으로 활동해오다 1918년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탄생으로 해체의 위기를 맞았으나 당시 황실 성당 주교였던 요제프 슈니트 신부에 의해 비영리 민간단체로 재편되며 오늘에 이르렀다. 1922년 교황으로 선출되었던 비오 11세는 당시 빈 소년 합창단의 연주를 듣고 '마치 천사의 노래를 듣는 것 같다'고 격찬하면서 이후로 빈 소년 합창단에게는 '천사의 소리'라는 명성이 따라붙게 되었다.



빈 소년 합창단은 현재 7세에서 15세까지 변성기 전 소년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통해 음악 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3개 팀은 해외 투어를, 나머지 1개 팀은 왕궁 예배당 미사와 자국의 연주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4개 팀은 그동안 빈 소년 합창단을 거쳐갔던 작곡가 하이든과 모차르트, 브루크너, 슈베르트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하이든과 슈베르트는 단원으로, 모차르트와 브루크너는 지휘자로 활동한 바 있다. 합창단은 매년 300회 해외 순회공연을 통해 전 세계 50만 명 이상의 관객과 만나며 천사들의 합창으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슈트라우스 왈츠에서 민요 아리랑까지 위로와 치유를 노래하다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사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은 지난 1969년 첫 내한 공연 이후 지난 50년간 약 35개 도시, 150회 넘는 공연을 통해 최고의 스테디셀러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25년 한국투어에서는 'Strauss For Ever!'라는 주제로 빈 소년 합창단의 527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휘자 올리버 슈테히가 이끄는 슈베르트 팀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빈 소년 합창단이 수백 년간 불려온 성가곡과 모테트, 그들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가곡과 왈츠, 폴카, 그리고 세계 각국의 민요와 영화음악 등 지난 527년의 역사가 담긴 음악들을 들려준다. 특히 슈트라우스의 '황제 왈츠'로 활기찬 신년 인사를 시작하며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를 풀어낸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으로 한

국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025년 새해에 울려 퍼질 맑고 청아한 빈 소년 합창단의 목소리는 희망의 상징인 파랑새처럼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관객들의 마음에 위로와 치유를 선사할 것이다.

◆ Program

-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황제 왈츠 작품 437
- 슈만/ 물의 요정 작품 91/2
- 멘델스존/ 오라토리오 '엘리아' 중 '눈을 들어보아라' 작품 70
- 슈베르트/ 시편 23편 작품 132
- 브람스/ '젊음의 샘' 작품 44 중 '이젠 장미가 피어나고', '산은 뾰족히 서 있네', '강 옆엔 버드나무가 있고', '교회의 마당을 건너네'
- 요제프 라인베르거/ 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 슈베르트/ 마왕 D.328
-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프랑스풍의 폴카 '가수들의 즐거움' 작품 328
-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비엔나의 정신 작품 354

- Inter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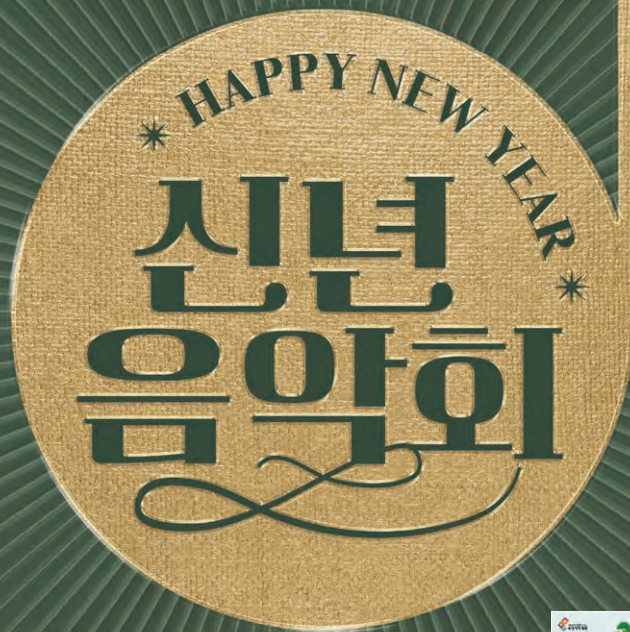
- 세바스티안 이라디에르/ 아메리칸 가곡 '비둘기'
- 스위스 민요/ 구기스베르크에서 온 브레넬리
- 베르톨리니/ 오스트리아 자장가 '작은 쥐가 잠에 들려 하네'
- 에른스트 토마/ 이탈리아 민요 '바람까지 부는 날씨'
- 크로아티아 가곡/ 오, 깊은 바다여
- 한국 민요/ 아리랑
- 리처드 셔먼, 로버트 셔먼/ 영화 '메리 포핀스' 중 '침침 체-리'
- 빌리 아일리시 오코넬, 피니어스 오코넬/ 영화 '바비' 중 '나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 알란 멘켄/ 영화 '인어공주' 중 '언더 더 씨'
- 요제프 슈트라우스/ 빠른 폴카 '영원히!' 작품 193
-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작품 314



2025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을사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줄 (재)부산문화회관 '2025 신년음악회'가
1월 11일과 17일,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펼쳐진다.



2025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1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IP 15만원 R 13만원 S 11만원 A 9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1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VIP 5만원 R 3만원 S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슈트라우스의,
슈트라우스에 의한,
슈트라우스를 위한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1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2025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는 올해 요한 슈트라우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함께 하는 무대로,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와 폴카로 새해 인사를 건넨다.

‘슈트라우스의, 슈트라우스에 의한, 슈트라우스를 위한’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증손인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에 의해 지난 1966년 창단된 후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비롯하여 당대 빈 작곡가들의 곡과 음악세계를 최고 수준으로 구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도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년음악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지휘자 빌리 보스코프스가 1968년부터 오케스트라를 이끌었으며, 그가 타계한 후에는 발터 골드슈미트, 루돌프 비블, 쿠르트 뵘스, 알프레드 예슈베, 올라 루드너, 프란츠 바우어 토이슬, 마르틴 지그하르트트로 이어지며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지켜왔다.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는 지난 1999년부터 세계 최고의 공연장 중 하나로 꼽히는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무대에 정기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주요 공연장인 린츠 브루크너하우스, 그라츠 슈타이어마르크 무지크페라인에서도 공연해오고 있다. 현재는 요한 슈트라우스 스페셜리스트인 요하네스 빌드너가 지휘를 맡아 그 전통과 명맥을 잇고 있다. 요하네스 빌드너는 프라하 국립 오페라 상임지휘자 및 라이프치히 오페라 제1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후 1997년부터 10년간 독일 뉴 필하모니 웨스트팔렌의 음악감독으로, 2010년부터 5년간은 런던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지휘자로 활동했다. 2019년 9월부터는 덴마크 쇠네르윌란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활동중이며 빈 음악대학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소프라노 조수미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없는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소프라노로, 폴리 존타 국제 콩쿠르, 프랜시스 비유티 국제 콩쿠르, 스페인 비냐스 국제 콩쿠르, 남아프리카 프레토리아 국제 콩쿠르, 베로나 국제 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1986년 이탈리아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콜렛토’의 ‘질다’역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했다. 1988년 그의 오페라



조수미 ©Seonhee Cho



요하네스 빌드너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Lukas Beck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카라얀과 만난 조수미는 그로부터 ‘신이 내린 목소리’,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라는 극찬과 함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오페라 ‘가면무도회’의 ‘오스카’ 역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콜로라투라의 대가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런던 코벤트 가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 등 세계 정상급 오페라 무대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주빈 메타, 로린 마첼, 플라시도 도밍고 등과 같은 최상급 지휘자와 연주자,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 연주하며 명성을 떨쳤다.

이번 신년음악회에서는 전 세계 신년음악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대표적인 왈츠, 폴카로 꾸며지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소프라노 조수미와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협연무대가 펼쳐진다. 조수미는 이번 무대에서 왈츠 ‘레몬 꽃이 피는 곳(Wo die Zitronen blühen)’, ‘빈 기질(Wiener Blut)’과 오페레타 ‘박쥐’ 중 ‘내가 순진한 시골 처녀를 연기할 때’를 노래한다.

프로그램

- 오페레타 ‘박쥐(Die Fledermaus) 서곡
- 가벼운 여흥(Leichtes Blut) 폴카 작품 319
- 파괴자(Demolierer-Polka) 폴카 작품 269
- 가속 왈츠(Accellerationen Walzer) 작품 234
- 오페레타 ‘박쥐’ 중 ‘카드리유(Quadrille)’ 작품 363
- 빈 숲 이야기(Gschichtn aus dem Wienerwald Walzer) 작품 325
- Intermission
- 황제 왈츠(Kaiser-Walzer) 작품 437
- 빈 기질 왈츠(Wiener Blut) 작품 354 _소프라노 조수미
- 레몬꽃이 피는 곳 왈츠(Wo die Citronen blüh’n) 작품 364 _소프라노 조수미
- 기사 파즈만(Ritter Pásmán) 작품 441
- 크라펜 숲 속에서(Im Krapfenwald’l) 작품 336
- 똑딱(Tik-Tak) 작품 365
- 오페레타 ‘박쥐’ 중 ‘내가 순진한 시골 처녀를 연기할 때 (Spiel ich die Unschuld vom Lande)’ _소프라노 조수미

우리 가락, 우리 소리로 을사년 희망을 노래하다

1월 17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에서는 지난해 창단 40주년을 맞아 새롭게 비상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을사년 희망을 노래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이동훈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이동훈

함께 사회성 짙은 ‘한국적 포크’를 추구해 온 싱어송라이터 정태춘, ‘국악계의 이단아’라 불리는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과 노늌,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거문고주자 이대하 그리고 경기시나위 사물단원으로 구성된 연희양상블 궁궁, 트래블러크루가 출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 에너지를 선사하는, 회화적 이미지의 아침을 국악으로 표현한 작곡가 강상구의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로 신년음악회의 막을 올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어서 고전적인 목소리로 현대적인 감성을 아우르는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와 함께 ‘3월에 오는 눈’, ‘황홀극치’, ‘아름다운 나라’를 들려준다. 국가무형유산 제30호 가곡 이수자인 하윤주는 깊고 아정한 전통 음악인 정가에 매료되어 한국 전통 소리의 근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 준단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 KBS 국악대상 가악부문 수상자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이듬해 문화체육부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하윤주

거문고 협주곡 ‘유완(遊玩, 송정 곡)’은 선비들의 풍류를 거문고 특유의 주법과 장단으로 그려낸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이자 거문고 연구회 부산동보악회 회장인 이대하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이어서 등장하는 이희문은 국악계의 파격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경기민요 소리꾼으로, 방대한 레퍼토리의 보고인 경기민요를 모티브로 장르의 융합을 시도하며 한국 예술계의 변방에 놓인 전통 성악을 공연의 중심으로 끌어와 관객에게 ‘소리’를 듣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오고 있다. 특히 ‘밴드썩썩’, ‘한국남자’, ‘오방신과’, ‘강남오아시스’ 등 지속해서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과 함께 경서도 민요와 전통 양식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면서 독보적이며 대체 불가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조원석, 양진수의 경기소리 프로젝트 ‘농놈’과 함께 액을 막고 복을 부르는 ‘어허구자’를 비롯하여 ‘어랑브르지’, ‘나리소사’, ‘허송세월말어라’를 들려준다.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는 음유시인 정태춘은 한 편의 시 같은 노랫말과 서정적인 곡조의 초기 대표곡부터 한국 사회



이대하



이희문



정태춘



궁궁

의 모순과 저항을 담은 노래까지 한국현대사를 치열하게 거처온 한국 대중음악의 거장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대표곡인 ‘떠나가는 배’, ‘92년 장마, 종로에서’, ‘떠나가는 배’, ‘에고 도술천아’, ‘시인의 마을’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인 풍물과 비보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판놀음II’(이준호 곡)에서는 풍물 연희양상을 ‘궁궁’과 비보이 ‘트래블러크루’가 출연, 신명나는 가락 속에 역동적인 비보이 무대가 펼쳐진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연희·사물놀이 파트로 이루어진 ‘궁궁’은 ‘무궁무진한 긍정의 전진’, ‘신명을 내는 반복의 율림’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무대에서 다재다능한 끼와 신명을 표현하고 있다. 2016년 ‘춤으로 세계를 여행해보자’라는 뜻으로 창단한 비보이 ‘트래블러크루’는 특히 전국 최초 택견 비보이팀으로 유명하다.

프로그램

- 강상구/ 국악관현악 ‘아침을 두드리는 소리’
- 이정훈(편곡)/ 3월에 오는 눈, 황홀극치, 아름다운 나라
- 송정/ 거문고 협주곡 ‘유완(遊玩)’
- 이동훈(편곡)/ 어허구자, 어랑브르, 나리소사, 허송세월말어라
- 이동훈-이경섭(편곡)/ 떠나가는 배, 92년 장마 종로에서, 에고 도술천아, 시인의 마을
- 이준호/ 풍물과 비보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판놀음II’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트래블러크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16회 정기연주회

Rhapsody & Capriccio

1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해 7월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홍석원 지휘자와 새로운 도약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월 10일 제616회 정기연주회 'Rhapsody & Capriccio'로 2025년 관객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지휘 홍석원

홍석원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스

위스 취리히 게자 안다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우승한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활기찬 신년 무대에 어울리는 자유로우면서도 화려한 랩소디와 카프리치오로 무대를 꾸민다.

첫 곡인 '카프리치오 부를레스코'는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윌리엄 월튼이 뉴욕 필하모닉으로부터 창단 1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위촉받은 곡으로, 곡 전체가 전반적으로 활기차고 쾌활하다. 이어지는 무대는 피아니스트 이진상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거슈윈이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작품으로, 예술음악과 재즈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초연 당시에도 큰 성공을 거두며 오늘날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협연자 이진상은 2009년 스위스 취리히 게자 안다 콩쿠르 우승과 함께 대회 역사상 최초로 슈만 상, 모차르트 상 그리고 청중상의 모든 특별상을 휩쓸며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섬세한 감수성과 유려한 테크닉, 날카로운 지성과 카리스마를 겸비했다는 평론가들의 극찬과 대중의 열렬한 호응을 얻으



피아노 이진상

며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비엔나 챔버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WDR 방송교향악단 등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은 물론, 루체른 페스티벌, 부조니 페스티벌, 에르�스트 페스티벌,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 등 여러 음악제에 초청되어 연주한 바 있으며, 2015년부터는 '베토벤 트리오 본'의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진상은 '공장에 간 피아니스트'로 유명한데, 완벽한 소리에 대한 갈증으로 피아노 악기 자체에 심취하게 되면서 명 테크니션 슈테판 크뉴퍼를 사사하며 스타인웨이 오스트리아에서 피아노 테크닉을 공부했고, 이후 스타인웨이 함부르크 본사에서 피아노 제작과정에 직접 몸담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있으며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라벨의 '스페인 랩소디'는 오케스트레이션의 장인이라 불리는 라벨이 첫 번째로 작곡한 관현악곡으로, '밤의 전주곡', '말라게냐', '하바네라', '축제' 등 스페인 특유의 정취가 가득한 네 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인을 주제로 한 또다른 곡인 립스카-코르사코프의 '스페인 기상곡'은 스페인의 민속음악과 춤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곡으로, 스페인의 색채와 리듬을 러시아 음악의 양식으로 재해석하여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616

RHAPSODY & CAPRICCIO

§

1월 10일(금)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홍석원 / 피아노 이진상

월튼 / 카프리치오 부를레스코
거슈윈 / 랩소디 인 블루
라벨 / 스페인 랩소디
림스키-코르사코프 / 스페인 가상곡



617

VALENTEIN

§

2월 14일(금)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백승현 / 바이올린 박은중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포레 /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스트라빈스키 / 불세 모음곡(1919)



618

(ENT)SPANNUNG

§

3월 6일(목), 7일(금)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홍석원 / 바이올린 최송하, 유다윤

시네티케 / 합주 협주곡 제1번
베토벤 / 교향곡 제6번 <전원>



619

PARADISO

§

4월 11일(금)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홍석원 / 소프라노 박미자

1부 추후공지
말러 / 교향곡 제4번



620

NEW WORLD

§

5월 23일(금) / 부산콘서트홀
지휘 홍석원

모차르트 / 교향곡 제41번 <주피터>
드보르자크 /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621

DSCH

§

6월 19일(목)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홍석원 / 첼로 최하영

쇼스타코비치 / 첼로 협주곡 제1번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10번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한낮의 명품 공연으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재)부산문화회관 마티네 콘서트가 2025년, 더욱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관객 곁으로 돌아온다.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홍석원, 부지휘자 백승현의 깊이 있는 해설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로 진행되는 고품격 무대로, 기존 한낮의 공연으로 호평 받았던 마티네 공연 외에도 직장인들의 즐거운 퇴근길이 되어줄 저녁 공연으로 이틀간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첫 날인 1월 23일과 24일, 동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헝가리'를 시작으로 아메리카(3월 25일-26일), 북유럽(7월 24일-25일), 프랑스(8월 28일-29일), 영국(10월 30일-31일)으로 떠나는 음악여행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다.

홍석원 예술감독, 백승현 부지휘자의 고품격 해설과 함께 떠나는 세계 음악 여행

이번 무대의 해설과 지휘를 맡은 홍석원 예술감독은 전통적인 관현악 레퍼토리는 물론 오페라와 발레, 현대음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휘자로서, '젊은 명장'이라는 찬사와 함께 한국 음악계를 이끄는 지휘자로 자리매김했다. 서울대학교 작곡과 지휘전공 학사, 베를린 국립음대 지휘과 디플롬(Diplom) 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을 졸업한 홍석원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티롤 주립극장의 수석 카펠마이스터로 활약했으며, 오스트리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자 자존심인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를 지휘하며 성공적으로 극장 무대에 데뷔했다. 한국에서도 국립오페라단과 꾸준히 작업하면서 평창올림픽 기념 오페라 '동백꽃 아가씨, La Traviata', 2020년 코로나 시대 세계 최초의 전막 오페라 프로덕션으로 주목받은 '마농', 국립극장 재개관 기념 '나부코', 베르디 '시칠리아의 저녁기도' 한국 초연 등 굵직한 오페라 프로덕션을 이끌며 유럽 무대에서 갈고닦은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2023년 국립심포니 해외 연주, 2024년 국립예술단체(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 국립합창단)의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최 기념 공연 '처용'을 성공적으로 마쳐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석원 예술감독은 지난해 7월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음악 중심지로 떠오른 부산에서 클래식 음악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홍석원 지휘자와 함께 시리즈를 이끄는 백승헌 부지휘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과 지휘전공으로 학사를,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악대학 대학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와 합창 지휘 석사를 각각 취득하였다. 독일 문화부 산하 독일 음악협회의 ‘지휘자포럼’의 회원을 역임하였고, 2021년 제7회 에른스트 폰 슈호 상을 공동수상하였다. 데트몰트시립극장 오케스트라, 로이틀링엔 필하모니, 바덴바덴 필하모니, 바트라이헨할 필하모니, 앙상블 무직파브리크, 웨스트 보헤미안 심포니 등을 지휘하며 독일에서의 활동을 이어왔으며, 2019년에는 폴란드의 ‘안 데어 오더 음악축제 (Musikfesttage an der Oder)’에 초청되어 지엘로나구라 필하모니와 협업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비르투오지, 포항시립교향악단, 필하모니 코리아, 한경arte필하모닉, DIO 오케스트라 등을 객원지휘했으며, 특히 2022년 이데일리 문화대상 대상작인 와이즈발레단의 <VITA> 국내 순회공연을 지휘하며 관객과 만났다. 고전음악뿐 아니라 현대창작음악을 비롯한 각종 음악분야에 대한 관심은 현대음악 연주단체나 작곡가들과의 빈번한 협업으로 이어졌는데, 강석희, 백병동 등의 작품을 TIMF 앙

상블, 서울모던앙상블, 앙상블 위로 등과 함께 연주했으며, 작곡동인 소리목, 21세기악회 등의 연주회에 지휘자로 참여하였다. 백승헌 지휘자는 2023년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1962년 창단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인 부산의 자존심을 지닌 열정의 오케스트라이다. 부산시향은 그동안 미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해외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특히 1997년 미국 카네기홀 무대에 오른 대한민국 최초의 교향악단으로 화제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통영국제음악제와 교향악축제를 비롯하여 롯데콘서트홀, 여수 예울마루 등 주요 공연장에서 꾸준히 초청을 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전곡,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라벨의 관현악곡 전곡 사이클을 국내 최초로 도전, 성공적으로 완주했으며, 동시대의 음악작품을 소개하는 일에도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헝가리

1. 23(목) 오후 7:30

1. 24(금) 오전 11:00

- 지휘 및 해설 | 홍석원
- 피아노 | 박진우



홍석원



박진우

동유럽에 위치한 아름다운 나라 헝가리. 헝가리의 음악하면 떠오르는 음악이 바로 ‘애환과 열정’의 정서가 담긴 집시 음악이다. 집시들은 오랜 기간 헝가리를 중심으로 동유럽에 정착 해왔고 바이올린이라는 열정적 악기를 통해 그들 특유의 음악을 전해왔다. 이들의 매력적이 고도 이국적인 연주는 많은 작곡가들을 매료시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사라사테의 ‘치고이네르바이젠’ 등의 명곡들을 탄생시켰다. 또한 ‘피아노의 신’이라 불리는 작곡가 리스트를 비롯하여 코다이, 바르톡, 도흐나니 등 여러 유명한 작곡가들이 바 로 헝가리 출신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6번’을 비롯하여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라 ‘기사 파즈만(Ritter Pázmán)’ 중 ‘차르다시(Csárdás)’,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제1번’, 그리 고 코다이의 ‘갈란타의 춤(Dances of Galánta)’을 들려준다. ‘헝가리 무곡’은 독일 작곡가였 던 브람스가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에두아르트 레메니와 연주여행을 다니면서 채 보한, 헝가리의 민요를 편곡하여 출판한 21개의 피아노 연탄곡으로, 이들 곡 중 브람스가 완 전히 창작한 것은 11번과 14번, 16번뿐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번 무대에서 만나는 제6번은 피아노의 기교와 예술적 표현력이 돋보이는 곡으로, 21개의 무곡 중 가장 유명한 제5번과 더불어 자주 연주되는 곡이다.

우리에게는 몬티의 곡으로 유명한 ‘차르다시(Csárdás)’는 헝가리 집시들의 민속춤곡을 일컫 는다. 호소하는 듯한 멜로디를 노래하는 라스(Lassú)와 빠르고 격정적인 프리스(Friss)로 구 성되어 있으며,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등도 이에 속한다. 이번 무 대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유일한 오페라 ‘기사 파즈만(Ritter Pázmán)’에 등장하는 ‘차르다시(Csárdás)’를 감상할 수 있다.

이어지는 곡은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제1번’으로, 중앙대학교 부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박 진우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19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리스트는 쇼팽과 더불어 피아노 음악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무엇보다 낭만주의의 위대한 유산인 ‘교향시’ 의 창시자이다. 리스트는 생전 3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는데, 제1번은 리스트 스스로가 ‘교향적 협주곡’이라고 부를 만큼 한계에 도전하는 듯한 화려한 기교의 피아노 독주부와 낭 만적인 오케스트라의 악상이 균형미를 이루는 작품이다.

협연자 박진우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3년 만에 조기 졸업 후 도독, 데트몰트 음대에서 KA 과정을 만점으로 졸업한 후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Soloklasse)을 졸업했다. 독일에서의 유학생 생활 중 이태리에서 열린 Arcangelo Speranza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시작으로 Jacopo Linussio 국제콩쿠르 3위, Anton Garcia Abril 국제콩쿠 르 2위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2010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Pietro Argento 국제콩쿠르에서 1위 수상 후, 각 부문 1위 수상자들과 경쟁하여 선정하는 전체 대상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하여 2011년 Pietro Argento 국제콩쿠르에 심사위

원으로 초청되는 영광을 거머쥐기도 했다. 크로스오버 밴드 ‘라베이’ 멤버로 활동하며 독주뿐만 아니라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고희안, 김가온, 김혜미 등 국내 정상급 재즈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등 폭넓은 음악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박진우는 2021년부터 ‘슈베르트 피아노 전곡 시리즈’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헝가리 민족음악의 영웅’이라 불리는 작곡가 코다이의 ‘갈란타의 춤’. 특히 코다이는 ‘코다이 교수법’이 있을 정도로 20세기 음악 교육에 힘썼고, 특히 조국인 헝가리의 민속 음악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헝가리 전역을 돌며 민속 음악을 연구했고, 이 과정에서 또다른 헝가리의 작곡가인 바르톡을 알게 되어 그와 더불어 헝가리의 전통 음악을 세계에 알리려 노력했다. 코다이가 부다페스트 필하모닉 소사이어티의 창단 80주년을 맞아 작곡한 ‘갈란타의 춤’은 헝가리 민속음악에 대한 그의 노력이 집약된 곡으로, 헝가리 민속 음악 특유의 화성과 리듬, 그리고 선율이 잘 재현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메리카

3. 25(화) 오후 7:30

3. 26(수) 오전 11:00

- 지휘 및 해설 | 백승현
- 클라리넷 | 조인혁



백승현



조인혁

3월에는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과 함께 아메리카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아메리카의 음악은 초기 유럽 이민자들에 의해 전해졌으며, 초기의 많은 작곡가들은 19세기 후반까지 유럽의 양식을 고수했다. 20세기 초 들어서면서부터 재즈와 블루스, 아메리카 원주민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작품에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미국의 래그타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스콧 조플린과 20세기 미국의 중요한 현대음악 작곡가인 코플랜드의 곡으로 아메리카 음악을 살펴본다. 영화 ‘스팅’의 주제가로, 작곡가의 이름은 몰라도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을 없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스콧 조플린의 ‘The Entertainer’와 전설적인 클라리네티스트이자 재즈계에서는 ‘스윙의 제왕’이라 불리는 베니 굿맨이 초연한 아론 코플랜드의 ‘클라리넷 협주곡’, 발레를 위한 실내악 편성으로 작곡됐으나 오케스트라곡으로 편곡되어 더욱 유명해진 코플랜드의 ‘애팔래치아의 봄(Appalachian Spring)’을 들려준다.

코플랜드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협연할 클라리네티스트 조인혁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195:1의 경쟁률을 뚫고 블라인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어 클라리넷 종신 수석 주자로 활동했으며, 스위스의 빈터투어 무직콜레기움 오케스트라와 바젤심포니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을 역임하는 등 유럽과 미국을 누비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한국인 관악기 주자이다. 현재는 솔로 및 실내악 연주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북유럽

7. 24(목) 오후 7:30
7. 25(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지휘 및 해설 | 백승현
- 플루트 | 조성현



백승현



조성현

7월에는 북유럽 음악의 3대 거장인 그리그와 닐센, 시벨리우스의 고향 북유럽으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이들은 자국의 음악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북유럽 특유의 광활한 자연과 각국의 민족적 정서를 음악에 담아냈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 그리그는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작곡 기법과 독창적인 화음 구성으로 세련미를 입히는 반면, 노르웨이의 민요와 민속음악을 적극 활용하며 국민적 정서를 담아냈다. 이번 무대의 연주곡인 ‘홀베르크 모음곡’은 노르웨이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홀베르크 남작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작곡한 곡으로, 모두 5개의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 출신의 작곡가 닐센은 그리그, 시벨리우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으나, 20세기 후반부터 그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향곡 작곡으로 유명하며, 덴마크의 민속전통에 바탕을 둔 그의 가곡은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플루티스트 조성현의 협연으로 연주되는 ‘플루트 협주곡’은 그가 만년에 작곡한 작품으로, 일반적인 협주곡과 달리 2악장 구성으로, 대담하고 개성적인 오케스트레이션과 플루트 독주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 한국 관악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플루티스트 조성현은, 20대의 나이로 입단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독일 쾰른 필하모닉(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의 종신 수석으로 임명되며 음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2019년에는 연세대학교 관현악과 최연소 조교수로 발탁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시벨리우스는 국민악파의 대가답게 핀란드의 민족적 소재들을 많이 사용했으며 20세기에 살았음에도 후기 낭만주의에 기반한 국민악파 특유의 음악만을 작곡했다. 시벨리우스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핀란드리아’는 러시아에 저항하는 핀란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곡으로, 그를 세계적인 작곡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다.

프랑스

8. 28(목) 오후 7:30
8. 29(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지휘 및 해설 | 홍석원
- 색소폰 | 브랜든 최

8월 ‘프랑스 편’에서는 프랑스 근대음악을 이끈 작곡가 생상스와 이베르, 포레, 베를리오즈의 작품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낭만주의 시대의 가장 뛰어난 프랑스 작곡가이자 프랑스 근대 음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상스는 어려서는 ‘모차르트의 재현’이라고 불릴 만큼 신동이었고 작곡가로서뿐만 아니라 시인이며 화가, 천문학자, 철학자로 활동하는 등 그 재능이 남달랐다.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이야기와 음악을 혼합하는 생상스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죽음의 무도’를 들려준다.

이어서는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자크 이베르의 색소폰 협주곡 ‘Concertino da camera’를 들려준다. 이베르는 당시 유행하던 장르의 음악에 집착하지 않는 작곡가로 오페라, 발레, 영화 음악, 실내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렸는데, 특히 관악 작품에서 두각을 나



홍석원



브랜든 최

타냈다. 이번에 연주되는 협주곡은 정식 타이틀이 ‘알토 색소폰과 열한 개의 악기를 위한 실내 소협주곡’으로, 세련되면서도 관능적인 색소폰 연주를 만날 수 있다. 협연자인 브랜든 최는 현재 클래식 색소폰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클래식 색소폰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한편, International Saxophone Academy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랑스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포레는 교향곡 등의 대규모 음악보다 실내악, 가곡 등 소규모 음악에서 강점을 드러내었고, 실제로도 실내악, 가곡, 독주곡의 수가 상당히 많다. 이번 무대의 연주곡인 ‘파반느(Pavane)’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기, 프랑스에서 유행한 춤으로, 옛 무곡 형식인 파반느 리듬을 따라 아름다운 멜로디와 섬세한 하모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로, 당시 특정한 음악사조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낭만주의 음악가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던 베를리오즈는 표제음악의 실질적인 창시자로 이후 리스트, 바그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번 무대에서는 약혼녀의 변절에 대한 격분이 작곡 배경에 깔려있다고 전해지는 ‘리어왕’ 서곡을 들려준다.

영국

10. 30(목) 오후 7:30

10. 31(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지휘 및 해설 | 홍석원
- 하프 | 황세희



홍석원



황세희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의 마지막 나라는 영국으로, 하피스트 황세희와 함께한다. 첫 번째로 만나볼 작곡가는 20세기 영국 고전음악의 중흥기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엘가로, 이번 무대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위풍당당 행진곡 제1번’을 들려준다. ‘위풍당당 행진곡’ 시리즈 중 첫 번째 곡으로, 엘가 특유의 화려하고 강렬한 멜로디와 풍부한 하모니, 그리고 힘찬 리듬으로, 전 세계 공식행사 및 경축행사에서 자주 연주되고 있다. 이어서는 바로크 음악의 양대 산맥이자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헨델의 ‘하프 협주곡 제6번’을 하피스트 황세희의 협연으로 연주한다. ‘하프 협주곡’은 헨델의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레퍼토리 중의 하나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협연자인 황세희는 다수의 국내 및 국제 콩쿠르를 휩쓸며 수많은 독주회와 협연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하피스트로서 자리매김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본 윌리엄스는 20세기 전반기에 영국 민족음악운동을 개척한 영국의 대표적인 국민주의 작곡가로, 영국 민요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영국의 전통적 기반을 갖춘 독자적인 양식을 창조했다. 그의 ‘푸른 옷소매 주제에 의한 환상곡’은 영국 민요인 ‘Greensleeves’의 주제를 사용한 관현악으로, 환상곡이라는 곡 특성상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는 즉흥곡 풍의 자유롭고 몽상적인 분위기와 낭만적인 느낌이 전곡에 나타나 있다. 마지막 곡인 차이콥스키의 환상서곡 ‘햄릿’은 그가 좋아했던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햄릿’을 원작으로 작곡한 곡으로, 차이콥스키 만년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장중한 '부산 콘텐츠' 등장, 연합 공연의 가치를 거듭 생각했다

부산시립예술단 창작 칸타타 '가마 부(釜) 뫼 산(山)'



조봉권 국제신문 부국장 겸 문화라이프부 선임기자

그날 밤 우리 앞에 펼쳐진 공연에 관해 짧게 사실(fact)만 기록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부산시립예술단에 속한 7개 단체 가운데 5곳이 힘을 합쳐 창작 칸타타를 만들고 지난 12월 12, 13일 이틀 동안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했다. 공연에 참여한 단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소년소녀합창단이다. 시립예술단에 속하지 않은 많은 개인 예술가도 동참했다. 동래여고 학생들은 특별출연했다. 공연 제목은 창작칸타타 ‘가마 부(釜) 뫼 산(山)’이다. 김지용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이 연출했고 이청산 시인이 작사·대본을, 음악가 조원행이 작곡·편곡을 맡았으며 이동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이 지휘했다.”

2024년 송년 분위기가 짙어 가던 지난 12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객석에 앉아, 출연진이 200명에 이르는 ‘이토록 규모가 큰’ 공연을 보는 행운을 누렸다. 200여 명이 무대에 올라가는 ‘부산표’ 공연을 볼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객석에 앉아 작품을 보며 창작칸타타 ‘가마 부(釜) 뫼 산(山)’ 공연이라는 사실(fact)에 담긴 의미를 캐내보고자 했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1.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이라는 대범하고 꾸준한 시도가 갖는 좋은 측면 2. 공연 자체의 만들새·짜임새·장점 3. 아쉬웠던 점.

연합공연, 부산만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부산시립예술단 연합 공연이라는 기획이 갖는 의미를 먼저 들여다본다. 부산시립예술단 연합 공연은 부산만의 훌륭한 공연예술 콘텐츠가 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시립예술단이 감행한 연합 공연은 ‘즐거워라 무릉도원’(2004·2005), 국악 칸타타 ‘동래성 붉은 꽃’(2011·2013), ‘부산 맥 아리랑’(2015), ‘크리스마스 캐롤’(2021·2022·2023) 등으로 맥을 이어왔다.

여러 영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기량을 가진 단원이 모인 곳이 부산시립예술단이다. 이들이 힘을 모아 대규모

모 작품을 짜는 일 자체가 공공 예술단체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기획이다. 관람료도 1만~3만 원으로 싼 편이다. 4인 가족이 공연 관람으로 송년회를 갖는다 해도 10만 원 안팎 예산이면 된다.

부산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 도시는 규모·다채로움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굳이 연합 안 해도 각각 단체가 자기 스케줄 소화도 벅찰 만큼 수요가 있을 테니 나서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부산은 이게 된다. 전통도 있다. 여러 장르가 어우러지면 큰 상승효과도 볼 수 있다. 부산의 독특한, 유니크(unique)한 공공 공연예술 콘텐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부산에서는 연말이 되면 여러 장르의 시립 예술단체가 힘을 합쳐 큰 공연을 만들어 싼 관람료로 시민이 볼 수 있게 하는 전통이 있다더라”는 소문이 난다면, 그게 한 도시의 문화력(文化力) 증진이다.

어려움과 장벽은 있다. 시립예술단 각 단체가 자기 장르 활동만으로도 워낙 바쁘다. 각 단체는 본령인 자기 장르 공연과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연합을 위한 협력을 조율하기가 아주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과제를 푸는 게 기획의 힘이다. 연초부터 미리 계획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립예술단 연합 공연이 상설 작품이 되기 바란다.

인상 깊은 기량... 더 세심했다면

이제 작품을 들여다보자. 출연진의 기량이 좋았다. 김지용 연출은 무대 배치에서 그의 장기를 살렸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합창단이 모두 무대에 나와 자리를 확고히 잡은 상태에서 막을 올렸다. 이를 위해 무대디자인을 맡은 황지선은 대극장을 입체로 꾸몄다. 합창단·관현악단은 두 시간에 걸친 공연 내내 한 번도 퇴장하지 않고 작품의 일부가 돼 노래하고 연주한다. 여기서 일체감이 스며 나왔다.

출연진이 활용할 무대 면적은 줄고 말았지만, 대체로 출연진의 기량과 노련함이 이런 불리한 환경에 맞섰다. 노래를 맡은 성악가와 소리꾼은 장악력을 보여주었다. 시립무용단의 춤은 노련했다. 시립무용단의 춤은 가끔 좁은 무대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걸 연륜과 노련함으로 지우는 저력이 있었다. 능청스러운 연기로 긴장될 뻔한 맥을 풀어준 시립극단

단원들의 연기에서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다. 특히 홀로 춤추거나 군무에 동참한 남성 춤꾼의 힘차고 잘 단련된 동작은 돋보였는데, 그의 도약력은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느낌이었다.

작품 흐름은 부산이라는 고장을 무대로 삼고 시대순으로, 뜨겁고 뜻깊었던 순간을 시와 노래와 춤과 연기로 보여주는 구도였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펼쳐 일어났던 일신여학교 학생들의 후배인 동래여고 재학생들이 나온 장면, 소년 소녀합창단 노래에서는 좀 울컥했다. 킬라몽키즈의 비보잉과 특별출연한 레퍼 제이통, 연희퍼포머그룹 처랏의 공연은 어우러졌다. 풍물을 선보인 처랏 단원들은 아마 공간이 충분치 못해 열두 발 상모 공연을 보여주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을 듯하다. 무엇보다 든든하게 판을 깔아준 국악관현악단의 존재가 잊히지 않는다. 작시와 대본을 맡은 이청산 시인의 기여 또한 특기해 둘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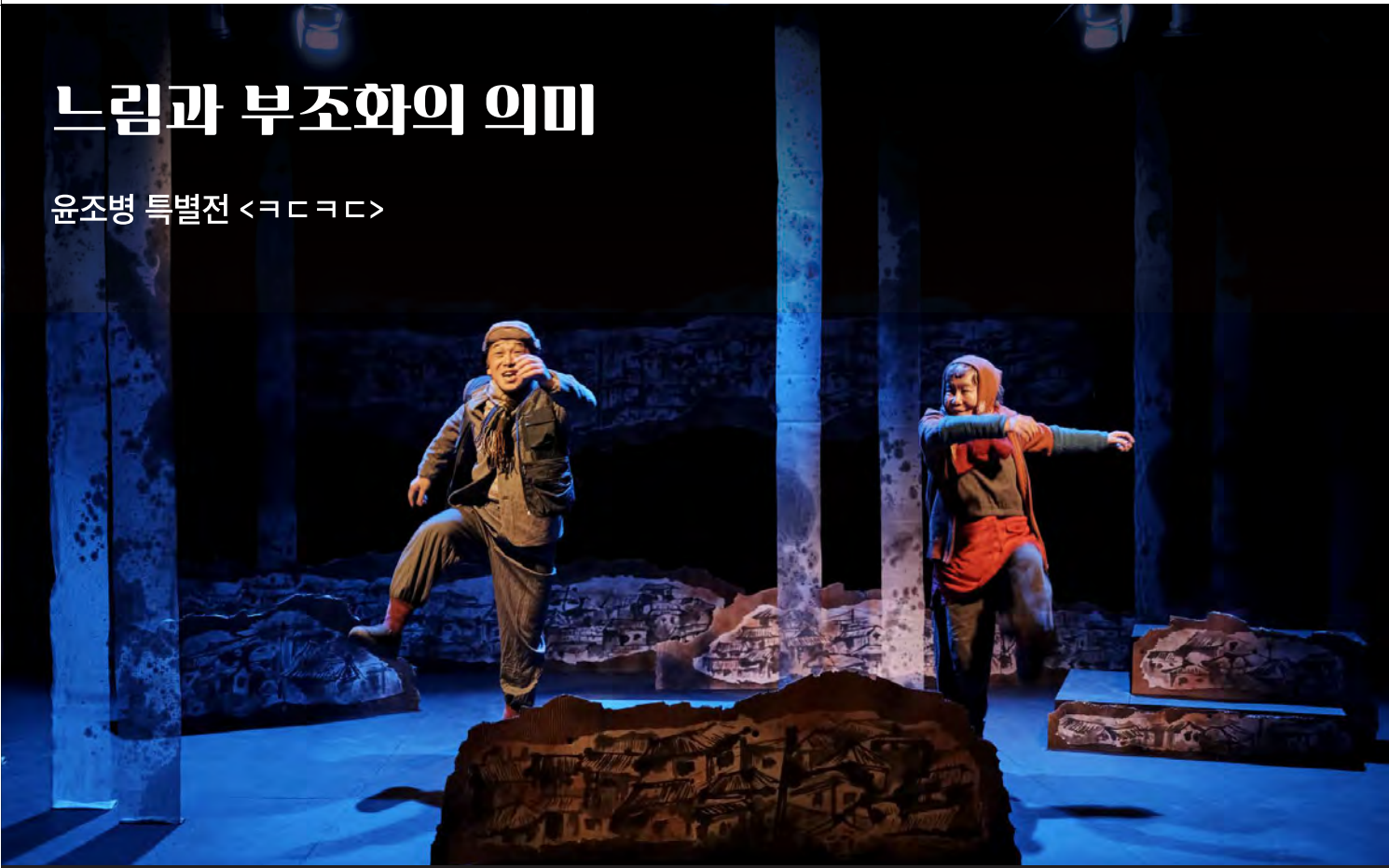
단점 또한 보였다.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공연을 서둘러 마련한 느낌이라고 할까, 짝 찬 밀도와 에너지를 객석에서 몸으로 덥석 강렬하게 받아 안았다기 보다 이 다음엔 또 뭐가 오려나 하고 기다린 기분이 있다. 정밀한 서사를 앞세운 작품이 아니라, 시대의 순서를 따라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흐름이었다 보니 뇌리에 선명히 찍히는 ‘이 장면’을 추리기가 쉽지 않다. 역시 ‘강렬한 한 장면’이란 대체로 퍼포먼스만으로 형성되기보다 서사와 논리 단계가 인상 깊은 행위와 만날 때에야 형성되는 듯하다. 조금 더 세심하게 조율했으면 더 빛났겠다 싶은 몇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이와 별도로, 더 많은 시민·관객을 만나는 일 또한 시립예술단 연합 공연의 목표에 들어있다면 공연 소재와 주제 폭을 넓혀보는 시도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산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담는 시도는 늘 중요하지만, 더 많은 이의 보편 감정에 가서 박힐 수 있는 주제를 모색해보는 일 말이다.

부산을 담은, 장중하고 서정성 높은 창작 칸타타를 기량 높은 시립예술단의 연합 공연으로 연말에 본 체험은 소중하게 남을 듯하다.

느림과 부조화의 의미

윤조병 특별전 <크크크>



허은 연극평론가, 전 경성대학교 연극과 교수

어니언 킹(공간소극장)은 최인훈 작가전에 이어 윤조병 전(展)을 시작했다(2024. 11/9~23. 공간소극장). 공연 단체나 연출이 작품을 선정하는 데에는 나름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전상배 연출가는 고집스럽게 일련의 시리즈를 만들어 낸다. 한국 명작희곡을 소개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하나둘씩 무대를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쉽지 않은 선택임은 틀림없고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한국 명작 희곡의 소개를 넘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공연된 <크크크>은 윤조병 희곡 창작의 4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물론 이 시기의 작품군에 속한다는 분류가 완전히 객관성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윤조병 희곡을 연구한 몇몇 논문이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4기를 중심으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표현된 제목들은 웃음소리, 혀를 차는 소리, 휘파람, 또는 바람 소리로 나타난다.(ㅎㅇㅎㅇㅎ, ㅉㅉㅉㅉ, 크크크) 제4기의 작품 세계는 '대립적인 세계와 경계 허물기'와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

기보다는 사회 현상들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로서 접근하며 현실과 이상의 경계 허물기와 욕망의 문제를 부각한다. 다른 세계 간의 경계를 허물게 되면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크크크>은 웃을 때 나는 소리의 자음만을 따서 만들었다. '키득키득'은 크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애써 소리를 감추어 내는 웃음이며 참다못해 입 속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다. 웃음은 비극을 치유하는 한 방법이며 현실을 우회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게 한다. 재개발 지역으로 이 두 노인을 이끌어 넣어서 쉽지 않은 현실의 사회 문제와 연결한다. 재개발 지역 달동네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첫사랑과 오래전의 기억을 꺼낸다. 이들의 '뒤돌아봄'은 과거를 회고하고 후회하는 행동과 맞닿아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윤조병 작가가 희곡에서 제시한 그것처럼 모두가 느리다. 느림은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 탄지를 거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의 발걸음은 등장부

터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 종종걸음이지만 이동 시간은 길고 느리다. 말투도 느릿느릿하다. 이들이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를 쓴다고 그 말들은 종종걸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했는디” 혹은 “~하는디” 같은 어미 처리로 되어 있다. 그 말투 속에는 화자의 의문이나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애들러 입을 닫아버리는 느낌과 이미 그들에게 잊혀진 과거에 대한 미련도 포함되어 있다.

할범의 역할을 맡은 전성호는 대사의 리듬과 움직임이 무난하게 조용시키고 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답답함이 어려 있다. 느리고 짧고, 더듬거리고 침묵하는 불완전한 말하기는 의사소통 부재나 단절이 아니라 함해져 온전한 의미를 도출하기도 하며, 엇갈려 말하기, 따로 또 동시에 말하기 등의 기법을 통해 음악적 효과를 내며 긴밀한 소통 관계를 보인다.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혼재된 대화들은 적절하게 말 전체의 템포와 리듬을 조절하고 있기에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 이상의 효과를 만들지만 때때로 이 일정한 무대의 흐름이 지루함을 주기도 한다. 그것은 아마도 전체 흐름의 긴장과 이완의 타이밍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변 분위기를 표현하는 효과음과 조명의 세밀함 부족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할범(황미애)의 대사는 극 전체에 흐르는 ‘느림’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할범의 느림과 묘한 대조를 이루기에 할범은 더 느리게 느껴진다. 이렇게 ‘느림’이 표면으로 부각되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이야기는 느리게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역설적으로 과거와 현재시간과 공간의 소통을 시도한다. 과거는 단순히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그대로 이어져 있다. 이 두 사람에게 단절되었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과 공간은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선명하게 살아나지만, 이 기억이 현재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무대 뒤편으로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작은 동네가 보인다. 가끔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무대 중앙 전체는 숲으로 만들어져 있고 무대 바닥 두어 곳에는 바위

혹은 언덕처럼 보이는 장치물이 배치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이 가는 곳은 그들이 잠시 머물 곳이다. 재개발로 토박이 주민들이 이주하고 난 빈집이다. 그들이 걸으며 지나가는 주변은 폐허의 지역이 아니라 나무들이 서 있다. 좁은 골목길이라기보다 숲속이나 재개발 지역에 이르는 길로만 보인다. 주민들이 떠난 달동네의 스산함과 을씨년스러움은 무대에서 살아 있지 못하다. 수직 배치된 나무들과 이들의 걸음걸이나 동작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가늠하기 힘들다. 나무는 자작나무처럼 보였다. 극 전체의 정서와 조화되지 못하고 어색하다. 바닥에 놓인 장치에는 동네의 집들이 작게 그려져 있는데 이 역시 극 전체의 분위기와 다소 어긋나 보인다. 두 사람이 그 위에 서 있을 때 이 작품의 양식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와 이를 통해서 연출이 무엇을 보여 준 것인지는 어렵듯이 짐작하게 하고 인연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에 대한 이해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설명되었지만 현재의 관객들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갔는지는 미지수며 불완전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대화·독백·방백을 적절히 조합하는 등, 연극적인 새로운 소통 방식의 모색에 주목하면서도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관객이 찾았는지는 확신이 없다.

한국 희곡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윤조병의 희곡이 무대에 오른 것은 의미 있지만 연출이 가진 의도를 읽어 내기에는 힘든 연극이 되었다. 물론 희곡에 대한 해석은 일차적으로 연출의 몫이지만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미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연출에 의해서 달라진다. 희곡의 서사를 무대에 옮기기에 한정되어 있기에 공연을 통해 얻는 감동은 강하지 못하다. 물론 윤조병 희곡이 가진 언어 특징이 시각화되고 청각화되어 나타나긴 했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기엔 단선적이고 한편으로는 정직한 연극이 되었다.

2025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일 시 | 1월 4일(토)~17일(금)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챔버홀
문 의 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펼치는 수준높은 실내악의 향연 '2025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매년 새해의 시작을 알려온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은 지난

2017년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을 기념하여 시작된 후 해마다 화려한 라인업과 풍성한 레퍼토리로 정통 실내악의 감동을 선사하며 부산 클래식 공연의 위상을 높여왔다.

4일(토) 오후 5:00 중극장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with Florin Iliescu



30년 관록의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와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종신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플로린 일레스쿠가 함께하는 개막 무대.

프로그램

요제프 수크/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6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봄'
바흐/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작품 1042
브리튼/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단순교향곡'
■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8일(수) 오후 7:30 중극장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솔리스트와 오케스트라 수석들로 구성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무대.

프로그램

베도벤/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거슈윈/랩소디 인 블루
생상스/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엔니오 모리코네/가브리엘의 오보에
생상스/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바흐/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작품 1043
베도벤/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 67
• 바이올린/스테판 피 재키브, 플로린 일레스쿠, 김동욱, 박찬호, 박수현, 조혜운, 릴리 시린 오파사논
• 비올라/데시엘 네스빗, 앤드류 링, 최영식, 배은진

- 첼로/벤자민 휴즈, 조형준, 홍승아
- 플루트/안명주 • 오보에/아오야마 사토키
- 클라리넷/김윤아 • 바순/최영진
- 호른/이동곤
- 입장료: R석 6만원, S석 4만원

10일(금) 오후 7:30 중극장

월드스타 실내악 페스티벌

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예술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월드스타 실내악 페스티벌'.

프로그램

차이콥스키/현악6중주 '피렌체의 추억'
멘델스존/현악8중주 작품 20
• 바이올린/스테판 피 재키브, 플로린 일레스쿠, 김동욱, 박찬호, 박수현

- 비올라/앤드류 링, 데시엘 네스빗
- 첼로/벤자민 휴즈, 조형준, 홍승아
-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14일(화) 오후 7:30 챔버홀

아벨과르텟+피아니스트 홍민수



하이트 국제 실내악콩쿠르 우승, 제네바 국제음악콩쿠르 현악사중주 부문 3위 등 세계 유수 콩쿠르를 석권한 아벨과르텟과 2017년 네덜란드 프란츠 리스트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2위 입상한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 홍민수가 함께하는 무대.

프로그램

슈베르트/현악사중주 '죽음과 소녀'
슈만/피아노5중주 작품 44
■ 입장료: 전석 3만원

17일(금) 오후 7:30 챔버홀

부산의 젊은 연주자

챔버페스티벌 마지막 무대로, 재능 넘치는 신진 연주자들의 활기차고 열정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는 '부산의 젊은 연주자'.

- 출연/양상블 KLEF, 피아노4중주단 스피렌데, 팀 에클레토, 에테르나 앙상블

프로그램

차이콥스키/현악6중주 '피렌체의 추억' 3, 4악장
말러/피아노4중주 가단조
그리그/홀베르그 모음곡 작품 40
엘가/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
브람스/피아노4중주 제1번 작품 25
■ 입장료: 전석 1만원

2024-25 린 전국투어 콘서트 Queen of Serenade

일 시 | 1월 4일 토요일 오후 1:00, 6: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4만3천원, S석 13만2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1인 4매)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대한민국 대표 여성 보컬 린의 전국투어 콘서트. 지난 2002년 데뷔 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린은 특히 'My Destiny(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시간을 거슬러(드라마 '해를 품은 달') 등 드라마의 감동을 극대화하는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MBN '현역가왕', '한일토티쇼'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린표 트로트'를 선보이며 트로트 가수로도 큰 인상을 남겼다.

이번 무대에서 린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별한 프로그램과 팬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토크로 관객과 만난다.

음악실험실 짜임 정기연주회

New Solo Pieces with Strings IV

일 시 | 1월 5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사전 예매시 30% 할인)
문 의 | 음악실험실 짜임 050-6568-0222



기존의 클래식음악을 다양한 악기편성으로 실험하여, 보다 새로운 짜임으로 재창작하여 연주하는 음악실험실 짜임의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솔로악기로서 저평가 받고 있는 악기들의 곡을 현악앙상블과의 협주곡으로 재창작하여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획된 'New Solo Pieces with Strings' 시리즈의 네 번째 무대로, 음악실험실 짜임 대표 황선영의 편곡과 프로젝트 앙상블 짜임의 현악반주, 임정빈(튜바), 황여진(비올라), 김태혁(호른), 이서림(마림바), 이주형(플루트), 고관수(오보에)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미완성 음악회

일 시 | 1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오픈 리허설을 통해 제616회 정기연주회를 미리 만날 수 있는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미완성음악회'는 실제 리허설을 통해 오케스트라가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실제 연주회와는 다른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제616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홍석원 예술감독과 단원들이 호흡을 하나로 맞추어 가는 과정이 여과없이 펼쳐진다.



Vivaacell International Philharmonic 2025 The 1st Regular Concert 부산시민을 위한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VIP석 6만원, R석 4만원
문 의 | (주)클렌딩아트컴퍼니 746-2023



서울, 부산, 경상권의 젊고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비바아첼 인터내셔널 필하모닉 창단 연주회.

부산시민을 위한 2025 신년음악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음악감독 및 악장으로 있는 중앙대학교 김덕우 교수의 협연으로 드보르작 '세레나데'와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를 들려준다.

- 음악감독, 협연/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
- 바이올린/이진, 장은아, 진혜빈, 김충만, 조혜란, 시명운, 임나래
- 비올라/황여진, 나윤채, 석나경
- 첼로/이강현, 윤예지, 김동찬
- 베이스/김서준, 박지수

제7회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With 아너스, 음악 속 명화 이야기

일 시 | 1월 12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010-2831-2836



플루트를 사랑하는 전공자 및 비전공자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고 있는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6년 창단한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는 창단 그 해, 부산관악콩쿠르에서 2등 수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으며,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 작곡가인 부아로르피에를 비롯해 브람스, 도플러, 차이콥스키, 모차르트의 작품과 영화 OST, 가요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지휘, 음악감독/정옥경
- 플루트 협연/석상희, 박소영 • 피아노/최보예

제3회 김희수 트럼펫 리사이틀

일 시 | 1월 19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김희수 010-5530-5777



화려한 테크닉과 풍부한 음악적 표현으로 청중들에게 다가가는 트럼페터 김희수 리사이틀.

영남대학교 음악대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를 수석 입학 및 졸업한 김희수는 그동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 진주시립교향악단, 경산시립교향악단 등 다수 오케스트라의 객원 연주자로 활동하며 트럼페터로서의 역량을 키워왔다.

2015과 2023년 두 차례 독주회를 가졌던 김희수는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 브라더스 금관양상블 대표, 대구관악단 수석, Lucente Trumpet Choir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트럼펫/조규형, 백향민 • 피아노/최우림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제1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월 17일 금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010-9944-8825



성악가이자 하모니카 연주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박기국이 2009년 창립한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정기연주회.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는 지난 2014년 부산경남 최초의 하모니카 오

케스트라인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오케스트라를 창단, 창단 10주년을 맞는 올해 3월 국내 민간 오케스트라 최초로 일본 후쿠오카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과 팝,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편곡, 하모니카 연주로 들려준다.

- 총감독/박기국
- 기타/김경태 • 피아노/사이토 아키코
- 콘트라베이스/박예송, 하승연
- 반주/박진화

2025 Nexen 월석문화재단과 함께하는 MUSICA BUSAN

일 시 | 1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KNN방송교향악단 850-9568



부산, 경남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Nexen 월석문화재단과 KNN방송교향악단이 마련하는 'MUSICA BUSAN'.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아티스트들과 까다롭게 선곡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무대에는 부산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공귀주, 피아노듀오그룹 KLDUO 멤버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남준희, 그리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중인 플루티스트 양다비가 출연, 그들의 색깔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서희태 • 바이올린/공귀주
- 피아노/남준희 • 플루트/양다비

부산시민교향악단 제3회 정기연주회 Spirit of Beethoven II

일 시 | 1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민교향악단 010-9081-4731,
010-9888-6888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부산시민들로 구성된 부산시민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지난 2020년 1월 설립된 부산시민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부산솔로이스츠양상블 리더로 있는 지휘자 정현진이 지휘하고 양상블 텐텐 대표, 한국페스티벌양상블 멤버로 있는 피아니스트 송영민의 협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 베토벤/‘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작품 43
-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3번 다단조 작품 37
- 베토벤/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작품 55
- 지휘/정현진 • 협연/송영민

트리오 헤르만 정기연주회

일 시 | 1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trio 헤르만 010-8287-8136



부산 출신의 음악가들로, 독일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임정은, 첼리스트 안수빈, 피아니스트 조민현으로 결성된 트리오 헤르만의 무대.

임정은은 베를린 국립음대를 졸업한 후 현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수빈은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학사 및 석사,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드레스덴 필하모니키 아카데미 단원을 역임한 바 있다. 조민현은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학사 및 석사,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프로그램

- 슈베르트/피아노트리오 제1번 내림나장조 D.898
- 스메타나/피아노트리오 사단조 작품 15

장사익 소리판 꽃을 준다, 나에게

일 시 | 1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문 의 | ㈜공연마루 1588-0766



노래인생 30년을 맞은 가객 장사익의 소리판 ‘꽃을 준다, 나에게’. 이번 콘서트 타이틀인 ‘꽃을 준다, 나에게’는 시인 황정원의 동명 시를 장사익이 엮은 곡으로, 노래 인생 30년을 다독

이며 자신에게 처음 전하는 위로와 축하이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그와 오랜 시간 호흡을 함께한 연주자들과 함께 ‘찔레꽃’을 비롯하여 지난 30년간 애정을 갖고 불러온 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 재즈퀸텟/정재열(기타·음악감독), 정영준(베이스), 앤디킴(피아노), 박현민(드럼)
- 트럼펫, 하모니카/최선배
- 타악/고석용, 신승균, 최영호 • 해금/하고운
- 아카펠라/The Solists(김재우, 이상익, 이재호, 윤덕현, 이성원, 김민중)

가족매직쇼 구구쌤의 매직쇼라구

일 시 | 1월 1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9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
(24개월 이상 관람가, 예매시 2만9천원)
문 의 | ㈜전공이엔티 1522-2061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무대 ‘구구쌤의 매직쇼라구’.

오랜만에 지하창고에 들어온 구구쌤.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아 먼지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일기를 발견한다. 옛날을 추억하며 일기를 펼치는 순간 어린 시절 꿈꾸며 일기에 적었던 마술공연에 대한 추억이 살아나고 추억 속 신비의 마술사와 함께 마술공연을 하게 되는데...

‘급식왕’으로 유명한 구구쌤 주현정과 마술사 한지호가 함께 그려가는 마법 같은 이야기로,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서프라이즈한 생각들이 현실 속에서 펼쳐진다.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2025 어린이 서커스 마술쇼

일 시 | 1월 11일-12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가, 예매시
2만7천5백원)
문 의 | KM기획 010-4095-3005



지난 한 해 전국 공연장을 돌며 화려한 마술쇼로 가족 관객을 사로잡은 ‘어린이 서커스 마술쇼’ 2025년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마술이 눈앞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다이나믹한 스테이지’를 비롯하여 초대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코믹한 무대 ‘코믹 팔로잉 매직’, 마술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술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감동 가득한 ‘스토리텔링 매직’, 그리고 링, 공, 모자, 디아블로 등 다양한 도구와 콘텐트로 진행되는 ‘저글링 서커스’ 등 다채로운 마술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호비와 꼬마요정 새미의 모험

일 시 | 1월 2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26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5만원(예매시 50% 할인, 전체 관람가)
문 의 | ㈜더화랑이엔티 1800-6567



영유아들의 인기 캐릭터인 호비를 주인공으로, 어린이 관객들이 무대 위 호비와 함께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며 함께 즐기는 참여형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2010년 시즌1을 시작으로 매 시즌 새로운 이야기로 관객과 만나온 ‘호비쇼’는 이번 시즌에서 호비와 친구들이 펼치는 신나는 모험을 통해 친구들과의 우정을 깨닫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준다.

특히 특수효과를 이용한 화려한 무대연출과 애니메이션을 능가하는 입체영상으로 볼거리를 더해준다.

지브리와 사랑에 빠지다 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 2025

일 시 | 1월 4일 토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5천(5세 이상 관람가,
어린이·청소년 20% 할인)
문 의 | 스테이지엠 0507-1338-4810



스튜디오 지브리의 OST를 아티스트의 해설과 라이브 연주로 만날 수 있는 지브리 영화음악 콘서트 2025. 이번 무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벼랑위의 포뇨', '천공의 성 라퓨타', '마녀배달부 키키', '기쿠지로의 여름',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웃집 토토로' 등 지브리 대표 영화음악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 해설, 퍼쿠션/이상준 • 바이올린/권수진
- 클라리넷/초츠이 마유미
- 첼로/이희수 • 피아노/박현우

우리가 사랑한 디즈니 OST 콘서트 2025

일 시 | 2월 9일 일요일 오후 5: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3만5천원(5세 이상 관람가,
어린이·청소년 20% 할인)
문 의 | 스테이지엠 0507-1338-4810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디즈니 OST를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우리가 사랑한 디즈니 OST 콘서트 2025'. 퍼쿠션리스트 이상준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터팬,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라퐼젤, 백설공주, 물란, 라이온 킹, 겨울왕국, 알라딘 등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디즈니 영화 OST를 들려준다.

- 해설, 퍼쿠션/이상준
- 바이올린/권수진, 전잠언
- 비올라/오지환 • 첼로/이희수
- 피아노/박현우

금난새와 함께하는 2025 F1963 신년음악회

일 시 | 1월 18일 토요일 오후 4:00
F1963 석천홀
입 장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문화재단 1963 760-1812



와이어 공장에서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F1963에서 펼쳐지는 2025 신년음악회. 한국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신년음악회의 대표 레퍼토리로 관객과 새해 인사를 나눈다.

프로그램

-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차이콥스키/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거슈윈/랩소디 인 블루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 음악감독, 지휘/금난새
 - 피아노/찰리 올브라이트
 - 첼로/채태웅 • 바리톤/김종표
 - 연주/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뮤지컬 택시안에서

일 시 | 2024년 3월 1일(금)-Open run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30, 6:00, 일요일 오후 2:30, 5:00
(월-화요일 공연없음) 해바라기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만 12세 이상 관람, 예매시 할인)
문 의 | 극단 바라 1600-1716



웃음과 감동, 사랑이 시작되는 리얼타임 코믹극 '택시안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만남으로 연애를 시작한 하영과 소희, 그러나 오랜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고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한다. 뒤늦게 후회가 밀려온 하영은 소희를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타게 되고 유쾌한 택시기사 민수와 만나게 되는데...

현실 커플 120% 공감스토리로, 리얼타임극에 걸맞는 속도감 있는 전개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제2회 금정구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마음의 숲에서 피어나는 노래

일 시 | 1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 의 | 후원석 010-3210-4116
단장 최선미 010-5034-4375



금정구 지역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구성된 금정구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지난 2022년 6월, 금정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창단된 금정구 소년소

녀합창단은 지난해 8월, 제12회 양산 전국청소년 합창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제35회 부산청 소년합창제에 출연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오고 있다.

- 지휘/우원석
- 반주/엄혜경 • 트레이너/박예은
- 게스트/금정구시니어합창단(지휘 박용선), 소프라노 변향숙, 타악 우정은

연극 달동네

일 시 | 2024년 4월 28일(일)-Open run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월-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팩토리
입 장 료 | 전석 4만원(예매시 할인)
문 의 | 극단 바라 1600-1716



어렵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추억의 달동네로 관객들을 이끄는 연극 '달동네'. 정음의 아버지 경민은 행정직으로 월남전 전사자 처리가 되고, 잘못된 전사통지서를 받은 아내 혜자는 아이들을 이끌고 부산의 달동네에 자리잡는다. 심한 화상을 입고 귀국한 경민은 가족을 찾아 부산에 오지만 정작 화상으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족들의 곁을 맴돌기만 하는데...

이번 무대는 그 때 그 시절 달동네를 통해 현대인들의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정(情)을 느끼게한다.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일 시 | 2024년 5월 1일(수)-Open run
수-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
(월-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 장 료 | 전석 6만원
문 의 | 극단 지우 664-8400



세대불문,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휴먼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노숙인이었던 주인공 독고가 올웨이즈 편의점 사장 염여사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이번 작품은 프로듀서 황기현, 연출 홍현우, 음악감독 김은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탄생한 웰메이드 뮤지컬 드라마로, 감각적인 선율과 극의 정서를 반영한 가사로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전한다.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초연된 후 연극을 본 관객이 책을 구매하는 역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스테디셀러극으로, 이번에 섀넌 KNN타워에 위치한 KNN 시어터에서 장기공연에 들어간다.

뮤지컬 나의 PS파트너

일 시 | 1월 3일(금)-3월 23일(일) 평일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1/28일 오후 3:00, 1/29일 오후 6:00, 월요일 휴관)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만 19세 이상 관람가, 예매시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역대 19금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중 최단기간인 10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하여 화제를 낳았던 동명의 영화를 무대화한 연극 '나의 PS 파트너'. 기존 로맨틱 코미디극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설정으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 이번 무대는 특히 원작의 큰 틀을 무대로 가져오되 극적 재미, 등장인물들 간의 감정선, 현실감 있는 연예담을 극 속에 더욱 밀도있게 그려내며 영화와는 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어린이 마술극 리온의 신비한 과자상점

일 시 | 1월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1:30, 3: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 장 료 | 전석 2만원(예매시 30% 할인)
문 의 | 와이엠케이 엔터테인먼트 010-7713-1461



박영준 마술사와 함께하는 어린이 마술극 '리온의 신비한 과자상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상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신기하고 다양한 마술세계와 더불어 과자상점에 등장하는 과자 소품을 관객들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펼친다. 박영준 마술사는 명량대첩제, 계룡지역 공감 어울림 축제, 세종시 게릴라 콘서트, 천안 흥타령축제 초청 마술공연을 비롯해 인도 뭄바이 서부 해군사 마술공연, 태국 파타야 항상 리셉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야야산 사바 공연장 문화 공연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마술공연을 선보여왔다.

어린이뮤지컬 누가 내머리에 똥 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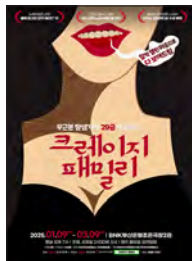
일 시 | 1월 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키즈런 031-633-4864



아이들의 호기심을 키워주고 즐거움을 선물해줄 어린이뮤지컬 '누가 내머리에 똥 썼어?'. 독일의 유명작가 베르터 홀츠바르트의 이야기와 2006년 안데르센상 수상에 빛나는 그림작가 볼프 에를브루흐의 그림으로 엮은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작으로 선정되고 여수세계박람회에 공식 초청받았다. 어느 날, 땅 위로 고개를 내민 두더지의 머리 위로 똥 무더기가 떨어지고, 잔뜩 화가 난 두더지는 직접 범인을 찾으려 나서는데... 이번 작품은 아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똥'이라는 소재를 통해 논리적인 추리와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사고력과 판단력, 관찰력을 키워준다.

연극 크레이지 패밀리

일 시 | 1월 9일(목)-3월 9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
(1/28일-29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예매시 할인, 만 19세 이상 관람가)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대학로를 사로잡은 29금 코미디 '크레이지 패밀리'. 돈 많은 장인과 갑질갑 부인에게 큰 소리 한 번 못내고 살던 왕성기 박사. 그런 처갓집 덕분에만한 인플루언서 의사가 됐지만 그에게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은밀한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와이프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여자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 성기는 장인과 부인의 눈을 피해 취미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크레이지 패밀리'는 유쾌하고 도발적인 어른용 코미디극으로, 2011년 초연부터 독특한 소재로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뮤지컬 광화문연가

일 시 | 1월 11일-12일 토-일요일 오후 2:00, 7:00 드림씨어터
입 장 료 | VIP석 16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7만원
문 의 | (썬)월드쇼마켓 1566-5490



전 세대를 아우르는故 이영훈 작곡가의 명곡들로 구성된 주크박스 뮤지컬 '광화문연가'. 2017년 초연을 시작으로 네 번째 시즌을 맞은 '광화문연가'는 죽음을 앞둔 '명우'가 인연을 관장하는 인연술사 '월하'를 만나 추억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특히 '옛사랑', '소녀',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 등 이영훈 작곡가의 명곡들이 8090세대의 향수를 자극, 누구나 경험해 볼만한 가사와 감성으로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명우' 역에는 기존 캐스트였던 윤도현, 엄기준과 함께 손준호가 새로 합류했으며, '월하' 역에는 차지연, 김호영과 함께 비투비 메인보컬 서은광이 관객과 만난다.

기타공연장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일 시 | 1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18일-19일 토-일요일 오후 2:00, 6:30 **드림씨어터**
입 장 료 |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 의 | 드림씨어터 1833-3755



예수 그리스도(지저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 마지막 7일간의 행적을 가롯 유다의 시선으로 바라본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부산공연.

1971년 미 브로드웨이에 서 초연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뮤지컬의 거장 팀 타이슨,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전설의 시작이자, 동시대적인 이야기가 전하는 감동적인 메시지와 더불어 발매 직후 천만장 이상 판매된 독보적인 음악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폭넓은 음역대와 고음의 한계를 뛰어넘은 넘버,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소화해야 하는 연기력과 카리스마까지 요구되는 '지저스' 역에는 마이클리, 박은태가 캐스팅되어 강렬한 무대를 선사한다.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일 시 | 1월 19일 일요일 오후 1:00, 3:00, 5: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 예매시 40% 할인)
문 의 | ㈜조이컬처 070-4045-2302



토네이도에 휩쓸려 신비한 오즈의 나라에 떨어진 소녀 도로시의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900년에 출간된 프랭크 바움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오즈의 마법사'는 두뇌가 없는 허수아비와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 용기를 얻고자 하는 겁쟁이 사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도로시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관객들에게 일깨워준다.

특히 도로시가 부르는 감미로운 노래 '오브 더 레인보우'부터 비트 넘치는 랩이 담긴 신나는 댄스풍의 노래에 힙합춤까지 어우러져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일 시 | 1월 1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1월 19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1월 25일 토요일 오전 11:30, 오후 2: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2만4천8백원(예매가)
문 의 | ㈜희망극단 070-7311-3149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명작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백설공주'. 백설공주는 태어나자마자 왕비인 엄마를 산후병으로 잃고 아름다우나 성격이 오만한 새 왕비와 살게 된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울로부터 이 세상에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던 왕비는 공주가 자라서 왕비의 미모를 능가하자 사냥꾼을 불러 그를 숲으로 데려가서 죽이라고 명령한다. 공주를 차마 죽이지 못한 사냥꾼은 공주를 숲속으로 도망치게 하는데...

특히 이번 무대는 검증된 스토리와 캐릭터, 지루할 틈 없는 노래와 춤, 그리고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무대로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설민석의 한국사대모험: 영웅의 시간

일 시 | 1월 25일-26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 장 료 | VIP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단꿈아이 1661-0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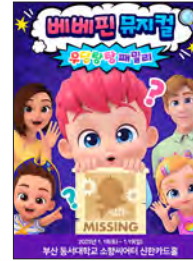
누적 판매 600만 부를 돌파한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을 모티브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다룬 어린이 뮤지컬 '설민석의 한국사대모험: 영웅의 시간'.

설쌤과 함께 떠나는 역사 판타지 어드벤처로, 향기로운 영웅 '선덕여왕', 백전불패의 영웅 '이순신'이 영웅으로 탄생되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특히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화려한 무대 연출, 배우들의 열연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첫 날인 25일에는 설민석이 특별출연, 그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베베핀 뮤지컬 **우당탕탕 패밀리**

일 시 | 1월 18일-19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VIP석 7만원, R석 5만5천원(24개월 이상 관람가, 예매시 40% 할인)
문 의 | ㈜애드칸 02-586-0622~3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9개국 넷플릭스 1위 및 24개국 넷플릭스 Top10에 등극하며 높은 화제성과 파급력을 입증했던 '베베핀'을 뮤지컬로 제작한 '우당탕탕 패밀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에서 펼쳐지는 예상치 못한 모험을 통해 베베핀 패밀리가 전하는 따뜻한 웃음과 가족애 넘치는 이야기를 그린 '우당탕탕 패밀리'는 특히 화려한 퍼포먼스와 LED 특수효과, 리듬감 넘치는 음악이 어우러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캐릭터 뮤지컬 **책먹는 여우**

일 시 | 2월 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전체 관람가, 1/8일까지 예매시 2만2천9백원)
문 의 | 극단 가람 010-2284-4842



독일 작가 프란치스카 비어만의 동명의 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책먹는 여우'.

책을 읽은 후 소금과 후추를 뿌려 책을 먹는 여우 아저씨. 가난한 탓에 전당포에 가구를 팔아가며 책을 사먹으나 그의 식탐은 더욱더 커지지만 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후 책을 먹던 여우는 도서관에서 쫓겨나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결국 책을 훔치기까지 하는데...

특히 이번 무대는 컴퓨터와 TV에 빠진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으로, 책과 무대가 주는 상상력과 즐거움을 어린이들에게 선사한다.

뮤지컬 사과가 쿵

일 시 | 2월 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입 장 료 | 전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가, 예매시
2만2천원)
문 의 | 조이컬처 070-7807-0701



동화 속 세계가 무대로 튀어나오는 국내 최초 팝업 뮤지컬 '사과가 쿵'.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진 커다란 사과. 애벌레부터 코끼리까지 각양 각색의 동물들이 차례로 등장하여 열심히 사과를 갉아 먹는다. 각각의 동물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며 사과를 갉아먹고, 다음 동물들을 위해 슬쩍 자리를 피해 준다. 그러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당황한 동물들은 사과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는데.. 이번 무대는 일본 작가 타다 히로시가 쓴 동명의 그림책이 원작으로, 동화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사과와 동물 친구들이 등장하여 시선을 사로잡고 '우적우적', '사각사각', '찹찹', '아삭아삭' 등 사과 먹는 소리로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가족뮤지컬 하늘을 나는 피터팬

일 시 | 2월 8일-9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KBS부산홀
입 장 료 | 전석 6만6천원(24개월 이상 관람가,
예매시 3만6천9백원)
문 의 | KM기획 010-4095-3005



동화의 나라 네버랜드에서 펼쳐지는 꿈과 환상의 모험 이야기 '하늘을 나는 피터팬'. 항상 바쁜 부모님의 꿈을 그리워하는 웬디와 마이클에게 어느 날, 네버랜드에 사는 피터팬과 요정 팅커벨이 찾아오고 그를 따라 네버랜드로 모험을 떠난다. 한편, 어린이를 끔찍이 싫어하는 후크 선장은 피터팬과 아이들을 네버랜드에서 쫓아내려 하는데, 과연 피터팬과 아이들은 후크선장과 해적들에게 맞서 이길 수 있을까. 특히 이번 무대는 오리지널 플라잉 기술을 도입,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피터팬의 화려한 등장과 함께 상상 속 네버랜드가 어린이들의 눈앞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2025 장윤정 라이브 콘서트

일 시 | 1월 11일 토요일 오후 2:00, 6:00
KBS부산홀
입 장 료 | VIP석 14만3천원, R석 13만2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1522-7613

2024 영탁 단독 콘서트 TAK SHOW3

일 시 | 1월 11일-12일 토-일요일 오후 3:00
벡스코 제1전시장
입 장 료 | SR석 15만4천원, R석 14만3천원,
S석 13만2천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에비스컴퍼니 02-567-2027

2024-25 허각 전국투어 콘서트 공연각

일 시 | 1월 11일 토요일 오후 6:00, 12일 일요일
오후 5: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전석 14만3천원
문 의 | 굿초이스 1833-4581

김옥균의 클래식뮤직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연주회 해설감상회&작곡가 탄생지 다큐멘터리 기행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 장 료 | 10만원(2개월)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뮤직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 음악감상과 함께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 연주회 실황 등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클래식 입문자 환영.

프로그램

비엔나 필하모니오케스트라 '2025 신년음악회 실황'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전막감상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국민주의음악 편'_스메타나

'물다우강', 드보르작 '첼로협주곡'
크로스오버클래식 '사라 브라이트만 라이브 콘서트'
뮤지컬음악영화 '미스 사이공'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
차이콥스키 발레공연 실황 '백조의 호수'

1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 장 료 | 전석 2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페라바움이 2025년을 시작하며 마련하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낭만·현대음악을, 금요일에는 고전·낭만 오페라를, 매주토·일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사전 해설과 감상 후 참여자의 자유토론, 감상소감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오페라/레하르 '즐거운 미망인'(3일~4일), 차이콥스키 '예브게니 오네긴'(10일~11일), 모차르트 '후궁탈출'(17일~18일),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24일~25일), 베르디 '돈 카를로'(31일)
콘서트/빈 요한 슈트라우스 갈라콘서트(6일, 11일), 브루크너 교향곡 제9번(13일, 18일),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20일, 25일), 말러 교향곡 제1번(27일)

제198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일 시 | 1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010-63670-0149

- 출연/송명희 시인, 박현숙 시낭송가 외 회원 22명
- 초대시인/승려시인 소암, 박희동 시인
- 사회/김병래(전 KBS 아나운서)
- 초청음악가/바리톤 한성권, 배웅, 가수 임미자

기타공연장

1월 아카데미 시네바움

일 시 | 1월 6일(월)-27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0일(금)-24일(금) 오후
2:00, 23일(목) 오후 5: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6일(월) 새로운 인공지능, 예술의 道와 氣를 사유하다: 당신은 도를 믿습니까?

- 강사/황빛나(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 이론과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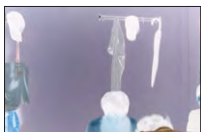
10일(금), 24일(금) 중국어로 낭독하는 당시 삼백수(참석 예약)

13일(월) 디지털 조형의 미래: 시네마틱 가상공간과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

- 강사/이동재(디지털 아티스트)

20일(월) 목격 없는 소요: 터벅 터벅의 기호학

- 강사/최재목(시인,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23일(목) 하이쿠 산책
(참석 예약)

27일(월) 시네마-언노운:
시네바움 스크리닝

‘블랙-아웃’(2020, 10min)

- 참석/김영광(감독) • 진행/문형근(영화평론가)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2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50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
입 장 료 | 3개월 12만원, 1회 청강비 2만원
(현장강의 9회, 음악회 1회)
문 의 | 박진영 010-3642-6436(문자 문의)



뮤직가이드 박진영과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과 노래여행.

각 나라를 대표

하는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을 위주로,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영상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수업 후에는 각 나라의 민요, 가곡, 뮤지컬, 클래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울 수 있으며, ‘세·음·여 중창단’ 활동 또한 가능하다.

2월부터 석 달간 진행되는 2025년 1분기 강좌에서는 생상스, 비제, 라벨, 포레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음악세계를 살펴본다.

박진영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해운대문화회관 아카데미, 해운대인문학도서관, 연제구 클래식을 만나다 등 다양한 음악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부산여촌민속관 테마기획전
부산, 짬내가 그리워지면

일 시 | 2024년 7월 19일(금)-4월 13일(일)
부산여촌민속관
문 의 | 부산여촌민속관 550-8888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소금을 주제로 부산 염전과 소금 문화를 둘러싼 짜디짠 서사를 담은 테마전.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展
크리스토프 루크헤베를레

일 시 | 2024년 9월 14일(토)-3월 9일(일)
포디움 다이브 엠
입 장 료 | 일반 1만5천원(19세 미만 1만3천원)
문 의 | ㈜크리스탈홀딩스 752-2200

2024년 교류기획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일 시 | 2024년 10월 29일(화)-2월 16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빈센트 발 : THE ART OF SHADOW

일 시 | 2024년 11월 1일(금)-3월 3일(일)
국립부산과학관 김진재홀
문 의 | ㈜디커뮤니케이션 070-8693-9758



중독성 강한 일러스트로 전세계 120만 팔로워를 매료시킨 빈센트 발의 ‘Art of Shadow’.

벨기에 출신의 영화감독이자 그림자를 활용한 일러스트레이터인 빈센트 발은 그 자신을 쉐도우올

로지스트(Shadowologist, 그림자학자)라 소개한다.

지난 2016년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코끼리 형태의 그림자에 약간의 드로잉을 그려 넣으면서 쉐도우올로지스트로서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빈센트 발은 유리잔, 포크, 과일 등 평범한 사물의 그림자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찾아 유머러스적이면서도 동시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작품으로 많은 이에게 사랑 받고 있다.

- 관람시간/오전 9:30-오후 5:30(매주 월요일 휴관)

스폰지밥의 우당탕탕 시간여행展

일 시 | 2024년 7월 19일(금)-4월 13일(일)
영도 피아크 전시장
입 장 료 | 일반 1만8천원, 청소년·어린이 1만5천원
문 의 | 우리공간연구소 1566-1957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7:30(오후 7:00 입장 마감)

꿈의 여정 : Journey of Dreams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2월 8일(토)
소울아트스페이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2024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항해와 세계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3월 2일(일)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
문 의 | 국립해양박물관 309-1900

이토 준지 호러하우스

일 시 | 2024년 12월 14일(토)-6월 8일(일)
DUEX 부산
입 장 료 | 일반 2만5천원, 청소년 1만9천원
(만 14세 이상 관람, 평일예매시 10%할인)
문 의 | ㈜덕스앤덕스 02-2261-1393



‘토미에’, ‘소용돌이’, ‘소이치의 저주일기’, ‘목매는 기구’ 등 단편부터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독보적인 공포만화 작가 이토 준지가 선사하는 치명적인

공포의 세계 ‘이토 준지 호러하우스’ 부산전.

이토 준지의 작품을 기반으로, 스릴과 공포, 기괴한 상상력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다.

- 관람시간/오후 1:00-오후 7:00(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00-오후 7:00, 3월 3일까지는 화-수요일 휴관, 이후부터는 월-목요일 휴관)

January 2025

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사업 '어릴적예(藝)' 2025년 '오프라인 매칭데이' 성료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재)부산문화회관이 추진하는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에 참여할 공연팀과 학교를 이어주는 2025년 '오프라인 매칭데이'가 지난 12월 11일과 12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막이 올라 부산지역 교육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어릴적예(藝)'는 '어릴 적+예술(藝)' 조합으로 '어릴 적부터 예술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우수작품을 선발하여, 부산지역 교사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매칭을 통해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어릴적예(藝)' 사업 첫 해인 2024년에는 54개교 13,908명이 '어릴적예(藝)' 선정 23개 작품을 관람했다.

올해는 지난해 9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음악(8개), 전통예술(7개), 무용(2개), 연극·뮤지컬(13개), 다원예술(4개) 등 장르별 균형을 고려하여 총 34개 작품이 선정됐고 이날 '매칭데이'를 통해 교육관계자들에게 공개되었다. 특히 이날 '매칭데이'에서는 34개팀의 작품 소개 및 매칭을 위한 단체별 부스에서 공연관계자의 작품 설명을 들으며, 'BEST 10'으로 선정된 공연 쇼케이스를 함께 볼 수 있어 공연을 선택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2025년 공연관람 준비를 위한 정보의 장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재)부산문화회관은 '오프라인 매칭데이'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각 작품의 영상과 자료들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부산문화포털 '다봄'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2024 송년음악회 성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2024 송년음악회가 12월 18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펼쳐졌다.

이날 송년음악회에서는 도용복 회장을 비롯한 후원회원 및 가족 60여 명과 차재근 대표 이사를 비롯한 (재)부산문화회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립교향악단 실내악팀, 부산시립합창단 중창팀이 출연, 후원회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송년 무대를 선사했다.



2024년도 SNS서포터즈· 주부홍보단 해단식 개최

지난 2024년 한 해동안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던 제10기 SNS서포터즈와 제2기 주부홍보단이 지난 12월 19일 해단식을 갖고 일년간의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했다.

(재)부산문화회관 SNS서포터즈는 그동안 (재)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립예술단이 주최하는 공연, 전시 소식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공유하며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부산시민들에게 알러왔다. 또한 한 가정의 교육, 문화와 소비의 주체가 되는 주부들을 서포터즈로 참여시킨 주부홍보단 역시 그동안 SNS 채널 홍보를 통해 우리 기관과 시민들의 가교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2024년도 온라인 홍보활동 결과 발표와 수료증 수여,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40년사 발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지난해 창단 4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40년사>를 발간했다.

1984년 5월 23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현 서울시국악관현악단, 1965년 창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창단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전통음악을 이어받아 시대의 음악으로 만들자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묵묵히 한길을 걸어왔다.

이번에 발간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40년사>는 전문 필진이 기록한 40년 역사와 주요 공연 소개, 역대 지휘자 및 예술감독, 단원들의 축하 메시지, 음반, 악보집, 위촉곡, 공연사진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걸어온 40년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40년사>는 발간 후 주요 도서관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었으며,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E북으로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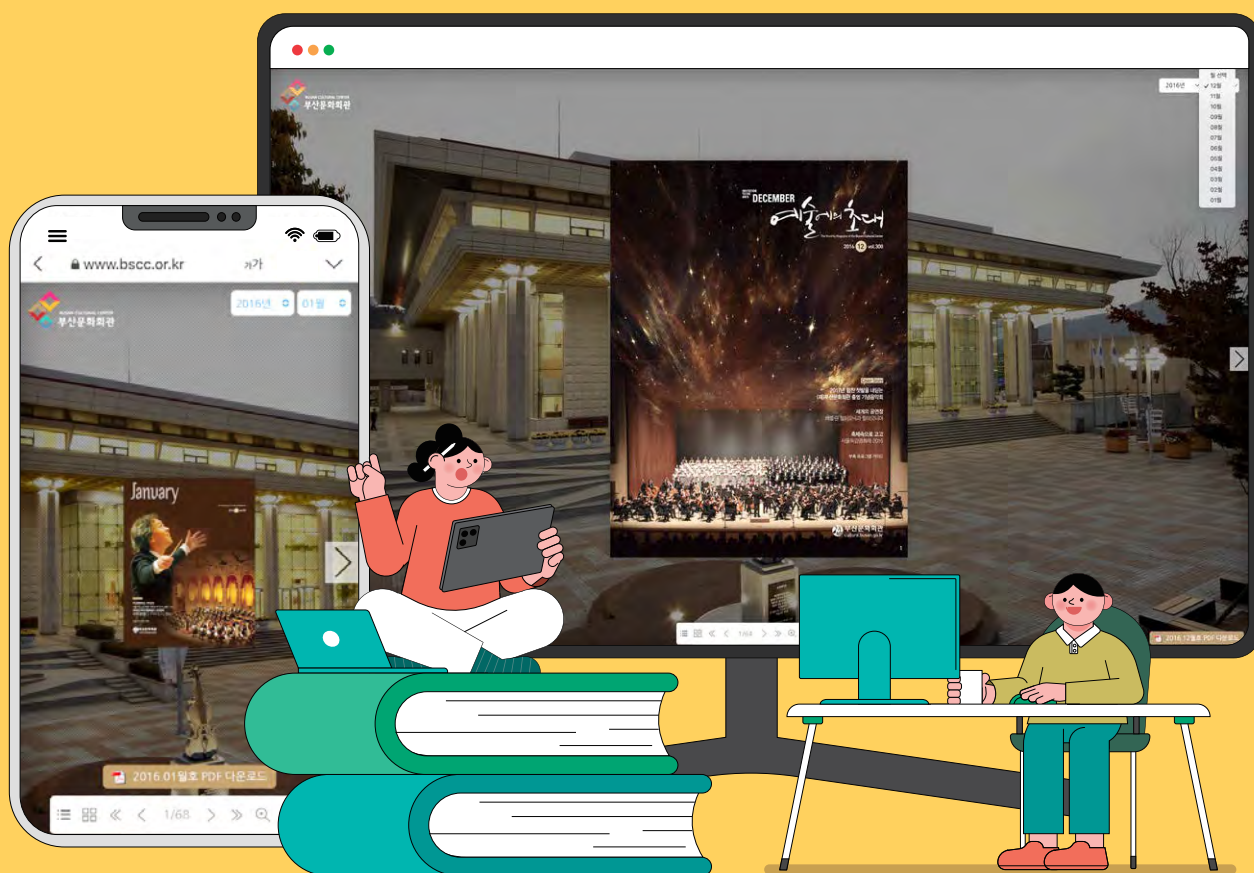
예술의초대

2006년 1월호부터
E-BOOK으로 열람 가능

올해로 창간 33주년을 맞는 월간 <예술의초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던 온라인 E-BOOK을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과 만납니다.

지난 1992년 1월호를 창간호로,
현재 통권 397호(2025년 1월호 기준)를 발행한 <예술의초대>는
지난해 E-BOOK 업데이트 작업(2006년 1월호~2019년 12월호)을 통해
2006년 1월호(통권 169호)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앞으로도 남은 과월호를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업데이트 작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E-BOOK 업데이트 기념 EVENT!!!

새롭게 업데이트된 <예술의초대> E-BOOK(2006년 1월호
~2019년 12월호)를 읽고 기억에 남는 기사나 기획시리즈를
선정,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10분을 선정,
기프트콘(3만 원 상당)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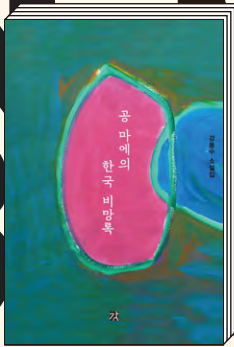
☑ **응모기간** : 2025년 1월 1일(수)-2월 10일(월)

☑ **응모내용** : <예술의초대> E-BOOK(2006년 1월호~2019년
12월호)에 게재된, 기억에 남는 기사나 기획시리즈를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 **응모방법** : 메일(book2580@bscc.or.kr) 혹은 QR 접속

☑ **중정선물** : 기프트콘





공 마에의 한국 비망록

강동수 소설집
강/ 1만 5,000원

등단 30주년을 맞은 강동수 소설가의 소설집. 강동수는 199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으로 등단했다. 국제신문 논설실장·문화부장 등 언론인·칼럼니스트로 활동했고, 부산작가회의 회장·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요산문학상 오영수문학상 교산허균문학상 봉생문화상(문학상) 등을 받았다. 이 소설집에는 <편의점은 살아 있다> <공 마에의 한국 비망록> <심연과 괴물> <집> <올레에서 만난 사람> <노다지> <도롱뇽의 꿈> 7편의 작품을 수록했다. 작품들은 개인을 덮치는 오해 또는 상대에 대한 현대인의 몰이해, 소통 단절, 고립이 이야기 단초가 되고, 거기서 시작하는 단절이 증폭되며 개인이 고립되고 마는 상황이 이어진다. 세상에 대한 근심이 내면화된 소설 속 깊은 시선을 따라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날카롭게 보여주는 작가의 메시지가 읽힌다. 구모룡 평론가는 “일곱 단편을 통하여 강동수가 제시한 인간상과 세계상은 다양하다. 각기 그에 상응하는 서술 상황을 만들어 구성의 동력을 이끄는 능력이 빼어나다. ‘글썸’과 같은 말을 통하여 멈추고 다시 생각하며 회의하면서 작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문체도 독특하다”고 해설했다.



솔스케이프

승효상 지음
한밤의빛 / 2만 3,500원

50년째 실무 현장에 있는 건축가 승효상은 집 짓기와 글짓기가 같은 일이라 여긴다. 자신의 건축을 서술하는 명료한 건축 언어를 지니고 비교적 많은 책을 펴낸 건축가이다. “좋은 건축은 어느 길, 어느 공간에서도 우리를 성찰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승효상이 마지막 과제로 붙든 건축 어휘가 바로 ‘솔스케이프(Soulscape)’, 영성의 풍경이다. 빛과 어둠이 번주되어, 채우고 비우며 활기를 불어넣는 공간. 세상의 감정을 덜어내고 다시 일상으로 나갈 힘을 얻는 장소. 현대인이 잃어버린 사유와 성찰을 회복하는 곳. 이런 의미로 풀 수 있다. 이 책은 승효상이 영성의 건축 풍경을 찾아 떠난 건축 순례기이자, 건축가로서 정체성의 근간과 오래 숙고한 건축론을 밝히는 인문적 건축 에세이다. 군위 수목원 사유원부터 하양 무학로 교회, 경주 독락당, 양산 통도사와 만취헌, 부산 구덕교회, 김해 봉하마을, 밀양 명례성지, 칠곡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까지, 건축의 본질과 영성의 의미를 묻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약 400킬로미터의 여정이, 150여 장의 아름다운 흑백 도판과 함께 제시된다. 독창적인 여행 안내서이자 깊은 묵상과 사유의 시간을 선사하는 책이다.



찰나의 승부사

한국보도사진가협회 편저
페이퍼앤북 / 2만 8,000원

사진은 한 장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며 인간의 삶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때로는 긴 글보다 사진 한 장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사진기자의 ‘순간 포착’은 어떤 역사를 기록해왔을까. 한국보도사진가협회는 언론사 사진기자 출신들이 모여 사진을 통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포토저널리스트 클럽이다. 이 책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격동의 시대를 누비며 세상을 담았던 사진기자 19명의 사진과, 삶을 한 권에 담았다. 그들은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사진기자라는 직업으로 활동하며, 한 시대를 기록하고 포토저널리즘을 발전시켰다. 사진기자들은 4·19 학생의거, 5·16 군사혁명 등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역사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고 사건의 현장에서부터 기획취재까지 늘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진을 선보였다. 카메라로 불의에 저항하고, 사라져 가는 사회적 단면을 따뜻한 시선과 냉정한 시선으로 기록했다. 그들이 찍은 사진이 수록된 이 책은 ‘카메라에 담은 한국 현대사의 기록’이다. 여든이 넘는 19명 원로 사진기자들을 후배들이 만나 당시 시대상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

2025 상반기 공연프로그램(1월~6월)

부산시립예술단

2025 공연프로그램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I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I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I ARS 1번 외국어 문의 I ARS 2번

티켓수령 I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일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일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마감은 공연 1일전 14시 ※ 취소마감은 공연 1일전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ARS 1번)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2025 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챔버홀 2025. 1. 4.(토) 5:00pm,
1. 8.(수), 1. 10.(금), 1. 14.(화), 1. 17.(금) 7:30pm
• 예술감독 | 김동욱 ※ 7세 이상 관람



2024-25 린 전국투어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5. 1. 4.(토) 1:00pm, 6:00pm
R석 143,000원 S석 132,000원



2025 (재)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문화 | 대극장 2025. 1. 11.(토) 5:00pm
VIP석 150,000원 R석 130,000원 S석 110,000원 A석 90,000원
• 지휘 | 요하네스 빌드너 • 협연 | 소프라노 조수미
• 연주 |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 7세 이상 관람



부산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시리즈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문화 | 중극장

전석 20,000원

#1. 2025. 1. 23.(목) 7:30pm - 1. 24.(금) 11:00am | with 박진우
#2. 2025. 3. 25.(화) 7:30pm - 3. 26.(수) 11:00am | with 조인혁
#3. 2025. 7. 24.(목) 7:30pm - 7. 25.(금) 11:00am | with 조성현
#4. 2025. 8. 28.(목) 7:30pm - 8. 29.(금) 11:00am | with 브랜든 최
#5. 2025. 10. 30.(목) 7:30pm - 10. 31.(금) 11:00am | with 황세희
• 지휘, 해설 | 홍석원, 백승현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 7세 이상 관람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문화 | 대극장 2025. 2. 20.(목), 4. 4.(금), 5. 29.(목)
7. 25.(금)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2025. 2. 20.(목)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2번
2025. 4. 4.(금)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1번
2025. 5. 29.(목)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4번
2025. 7. 25.(금)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 브람스 교향곡 제3번
※ 7세 이상 관람



압도적 박력으로 넘나드는 장르의 경계, 록 그너머의 록 잠비나이 콘서트 with 미역수염

문화 | 중극장 2025. 3. 15.(토) 5:00pm

전석 40,000원

• 출연 | 잠비나이
• 서포트 액트 | 미역수염

※ 7세 이상 관람



두 남녀의 만남과 사랑을 그린

연극 <랑데뷰>

문화 | 중극장 2025. 4. 4.(금) 7:30pm, 4. 5.(토) 3: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작·연출 | Yossef K 김정환

※ 7세 이상 관람



독일 고전주의 전통의 정수

크리스티안 테슬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문화 | 중극장 2025. 5. 2.(금) 7:3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7세 이상 관람



서로 다른 음악적 깊이가 만나 빛어내는 우정의 선물

김영옥&김다솔 듀오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5. 5. 3.(토) 5:00pm

R석 60,000원 S석 40,000원

• 바이올린 | 김영옥

• 피아노 | 김다솔

※ 7세 이상 관람



완벽한 균형으로 선사하는 절묘한 음악적 해석의 극치

에스메 콰르텟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5. 6. 5.(목)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연주 | 에스메 콰르텟

※ 7세 이상 관람



세상의 다양한 존재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춤

국립현대무용단 <암! 암! 암!>

문화 | 중극장 2025. 6. 14.(토)-6. 15.(일) 2:00pm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안무 | 뽀넝쿨, 인정주

※ 48개월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다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시민 | 대극장 2025. 1. 17.(금) 7:30pm

VIP석 50,000원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지휘 | 이동훈 • 사회 | 정희정
- 출연 | 하윤주, 이대하, 이희문과 뽐뽐, 정태춘, 궁궁, 트래블러크루
- 연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7세 이상 관람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천상의 화음'

2025 빈 소년합창단

시민 | 대극장 2025. 1. 23.(목) 7:30pm

VIP석 88,000원 R석 66,000원 S석 44,000원

A석 22,000원

- 지휘 | Oliver Stech

※ 7세 이상 관람



황치열 The Special

시민 | 대극장 2025. 2. 15.(토) 5:00pm

VIP 99,000원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55,000원

※ 7세 이상 관람



독보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살롱 드 바이올린 토크콘서트 I 대니 구

시민 | 소극장 2025. 2. 21.(금) 7:30pm

R석 44,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잊고 있던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특별한 작품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시민 | 전시장 2025. 3. 7.(금) 2:00pm, 7:30pm

8.(토) 2:00pm, 5:00pm

전석 30,000원

- 프로듀서 | 석재원 • 연출 | 오경택
- 출연 | 김아영, 정새별
- 제작 | 크리에이티브테이블 석영

※ 13세 이상 관람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키즈송 위드 클래식>**

시민 | 소극장 2025. 3. 15.(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5세 이상 관람



도심 속 문화 쉼터

2025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광장 2025. 4. 25.(금), 5. 2.(금), 5. 9.(금)

5. 16.(금) 12:10pm

무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감성의 키가 한 뼘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클래식 댄스! 댄스!>

시민 | 소극장 2025. 5. 3.(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5세 이상 관람



정태춘&박은옥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5. 5. 17.(토) 5:00pm

VIP석 121,000원 R석 99,000원 S석 88,000원

A석 66,000원

※ 7세 이상 관람



캐나다 대표 오케스트라와

대한민국 간판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만들어내는 울림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시민 | 대극장 2025. 5. 29.(목) 7:30pm

VIP석 150,000원 R석 130,000원 S석 90,000원

A석 50,000원

※ 7세 이상 관람



뮤지컬 '파가니니'의 주인공, '지붕 위의 바이올린' '모비딕' '페임' 주역

살롱 드 바이올린 토크콘서트 II KoN(콘)

시민 | 소극장 2025. 6. 20.(금) 7:30pm

R석 44,000원 S석 33,000원

※ 7세 이상 관람



2025년 제5회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 초청작

<당신은 지금 바비레타에 살고 있군요>

시민 | 소극장 2025. 6. 27.(금) 8:00pm

6. 28.(토) 3:0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출연 | 강애심, 장은정, 최지연, 김혜숙, 조민수

※ 36개월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1. 9.(목) 7:30pm
• 지휘 | 홍석원



제616회 정기연주회 RHAPSODY & CAPRICCIO

문화 | 대극장 2025. 1. 10.(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이진상



제617회 정기연주회 VALENTEIN

문화 | 대극장 2025. 2. 14.(금) 7:30pm
• 지휘 | 백승현
• 바이올린 | 박은중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 1

문화 | 중극장 2025. 2. 21.(금) 7:30pm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5. 3. 5.(수) 7:30pm
• 지휘 | 홍석원



©함필주

제618회 정기연주회 (ENT)SPANNUNG

문화 | 중극장 2025. 3. 6.(목)~3. 7.(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최송하, 유다윤



©SylvainBarres

제619회 정기연주회 PARADISO

문화 | 대극장 2025. 4. 11.(금) 7:30pm
• 지휘 | 홍석원
• 소프라노 | 박미자



기획음악회 실내악시리즈 2

문화 | 챔버홀 2025. 4. 30.(화) 7:30pm



제620회 정기연주회 NEW WORLD

부산콘서트홀 2025. 5. 23.(금) 7:30pm
• 지휘 | 홍석원



©함필주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5. 6. 18.(수) 7:30pm
• 지휘 | 홍석원



제621회 정기연주회 DSCH

문화 | 대극장 2025. 6. 19.(목) 7:30pm
• 지휘 | 홍석원
• 첼로 | 최하영



©andrei-gric

부산시립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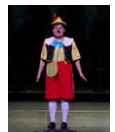
제195회 정기연주회 봄의 교향곡(Spring Symphony)

문화 | 대극장 2025. 3. 13.(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협연 | 최정원, 이아경, 김효중, 김대영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합창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196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피노키오와 파란마녀>

문화 | 대극장 2025. 5. 3.(토) 11:00am, 3:00pm,
5. 4.(일) 5:00pm
• 지휘 | 이기선, 임희준
• 연주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310밴드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전쟁과 평화 그리고 희망>

문화 | 중극장 2025. 6. 20.(금) 7:30pm
• 지휘 | 성상철



제197회 정기연주회
2025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2025. 7. 2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제192회 정기공연
해외 안무가 프로젝트(가제)

문화 | 대극장 2025. 11. 7.(금) 7:30pm, 11. 8.(토) 3:00pm
• 연출 | 이정윤



제198회 정기연주회
광복80주년 기념음악회 <Song of Arirang>

문화 | 대극장 2025. 9. 18.(목) 7:30pm
• 지휘 | 이기선



특별공연
홀로홀출

문화 | 중극장 2025. 12. 5.(금) 7:30pm, 12. 6.(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윤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6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28.(화)-10. 30.(목) 7:00pm
• 지휘 | 이기선, 임희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9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 <부산, 바다>

문화 | 대극장 2025. 3. 27.(목) 7:30pm
• 지휘 | 이동훈



제199회 정기연주회
세계의 합창음악 여행

문화 | 중극장 2025. 11. 18.(화) 7:30pm
• 지휘 | 임희준



특별연주회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

문화 | 중극장 2025. 4. 23.(수) 11:00am
• 지휘 | 이동훈



제200회 정기연주회
현대 오라토리오 2 <이 시대의 한 아이>

문화 | 대극장 2025. 12. 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제230회 정기연주회
**New Composition Series II
부산국악작곡가협회와 함께하는
<초연의 밤>**

문화 | 대극장 2025. 6. 24.(화) 7:30pm
• 지휘 | 이동훈



부산시립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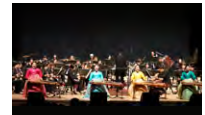
제191회 정기공연
남풍

문화 | 대극장 2025. 5. 9.(금) 7:30pm,
5. 10.(토) 3:00pm
• 연출 | 이정윤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중극장 2025. 7. 22.(화) 7:30pm
• 지휘 | 이동훈



특별공연
이정윤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5. 7. 11.(금) 7:30pm, 7. 12.(토) 3:00pm
• 연출 | 이정윤



부산시립극단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_창작초연 <오롯이 빛나는>

시민 | 소극장 2025. 3. 28.(금) 7:30pm, 3. 29.(토) 5:00pm

- 작 | 차승호
- 객원연출 | 미정

스타프로젝트
창작초연

제79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_창작초연 <초월자>

시민 | 소극장 2025. 4. 4.(금) 7:30pm, 4. 5.(토) 5:00pm

- 작 | 김민우
- 객원연출 | 미정

스타프로젝트
창작초연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문화 | 사랑채극장 2025. 6. 6.(금)-7. 6.(일)

주말·공휴일 11:00am, 2:00pm

- 작 | 김영화
- 작곡 | 이영재
- 연출 |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6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5. 4. 1.(화)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2025 솔로리스트들의축제

문화 | 대극장 2025. 5. 13.(화)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5. 6. 14.(토) 5:00pm



제77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5. 9. 16.(화)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문화 | 중극장 2025. 3. 29.(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6회 정기연주회

엄마 같이 걸어요

문화 | 대극장 2025. 5. 31.(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7회 정기연주회

평화의 노래 Song of Peace

문화 | 대극장 2025. 9.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특별연주회

제36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5. 10. 31.(금)-11. 1.(토) 5:00pm

- 출연 |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합창단 및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8회 정기연주회

하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문화 | 대극장 2025. 12. 13.(토) 5:00pm

- 지휘 | 천경필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가입 기간(1년)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선매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차량번호 등록 시 할인 적용(1대에 한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무료 및 일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차 측 협의에 한함)

VIP SPECIAL MEMBER



연회비 3만원
초대권 2매
(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
(전사)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5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연극 <이단자들> **종료**

2024년 10월 25일(금) 오후 7:30, 10월 26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앙코르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 **종료**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4 제아음악회 **종료**

2024년 12월 31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2025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25년 1월 4일(토) 오후 5:00, 8일(수), 1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14일(화), 17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회차별 20매)

2025 부산문화회관 신년음악회 요한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수미 **종료**

2025년 1월 1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20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2025년 1월 1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40매)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3월 25일(화) 오후 7:30, 26일(수) 오전 11:00
7월 24일(목) 오후 7:30, 25일(금) 오전 11:00
8월 28일(목) 오후 7:30, 29일(금) 오전 11:00
10월 30일(목) 오후 7:30, 31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2025 빈 소년 합창단 **종료**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Sound of Busan #1 브람스 교향곡 No.2 외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

2025년 2월 20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

2025년 3월 7일(금) 오후 2:00, 7:30
8일(토)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전시실(회차별 10매)

잠비나이x미역수염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4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콘서트

2025년 3월 15일(토), 5월 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2 브람스 교향곡 No.1 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연극 <랑데부> **종료**

2025년 4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30매)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종료**

2025년 5월 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30매)

김영욱&김다솔 듀오 콘서트 **종료**

2025년 5월 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30매)

Sound of Busan #3 브람스 교향곡 No.4 외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캐나다 국립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종료**

2025년 5월 29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국립현대무용단 코레오 커넥션 3

<얹! 얹! 얹!>

2025년 6월 14일(토)-6월 15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40매)

에스메 파르텟 리사이틀 **종료**

2025년 6월 5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샬롱 드 바이올린 KoN(콘) 토크 콘서트

2025년 6월 20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관객참여형 감성치유 프로젝트

<당신은 지금 바바레따에 살고 있군요>

2025년 6월 27일(금) 오후 8:00, 2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Sound of Busan #4 브람스 교향곡 No.3 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25년 7월 2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40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대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 일반회원

김흥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이은석 (주)엘제이이엔에스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홀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흥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안금주 하나유치원 원장
안진우 경성대학교 교수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성임 엘가 대표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정명선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종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허혜영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회원명 가나다순

부산문화회관 주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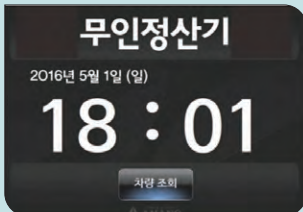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을 찾으시는 고객들의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해
기존 주차요금제가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설치된 사전 무인정산기를 통해 출구에서 기다림 없이 빠른 출차가 가능합니다.

P 주차요금 안내

주차시간	요금	할인 대상	
입차 후 4시간 이내	2,000원	- 정기회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 경차, 친환경, 다자녀, 요일제 - 다회(2회 이상) 수강등록한 아카데미 수강생	50%
4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1일 최대	4,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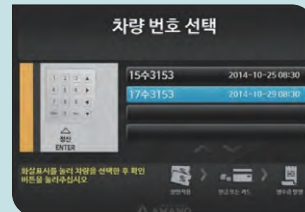
P 무인정산기 등록안내



Step 1 차량조회 선택



Step 2 차량번호 입력



Step 3 차량선택



Step 4 바코드 할인 후 결제
(바코드 할인 인식 후 폐기)

정기회원 주차 안내

- **무료주차권 사용** 기존의 정기회원 주차쿠폰은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편을 통해 새로운 바코드주차권을 발송해드렸습니다.
주차권을 수령하지 못한 회원들은 고객센터(607-6000)로 연락바랍니다.
- **주차요금 할인** 기존 정기회원카드 제시가 아닌 사전 등록 차량에 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하며, 정기회원 기간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 등록 방법** E-메일(cus@bscc.or.kr),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 차량번호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 607-6000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 ★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홍보 마케팅팀(607-6045)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퍼즐풀기 60



- 참여기간 : 2024. 12. 26.(목)~2025. 1. 15.(수)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5. 1. 27.(월)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티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4년 12월호 낱말퍼즐 정답 및 당첨자

당첨자

010-****-5299 010-****-2407
010-****-6701 010-****-8581
010-****-9115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재)부산문화회관



@배시시TV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당일 \$100 이상 구매시, 1만원 면세포인트 증정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사은정책 적용

증정 기간 : 2025. 1. 31까지
증정 장소 : 부산점 고객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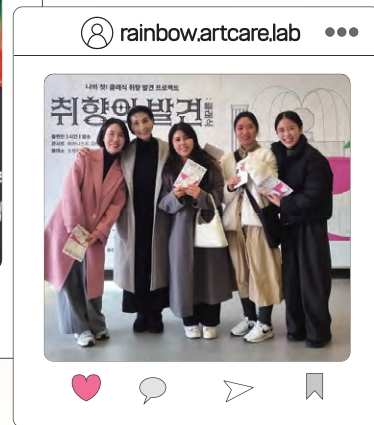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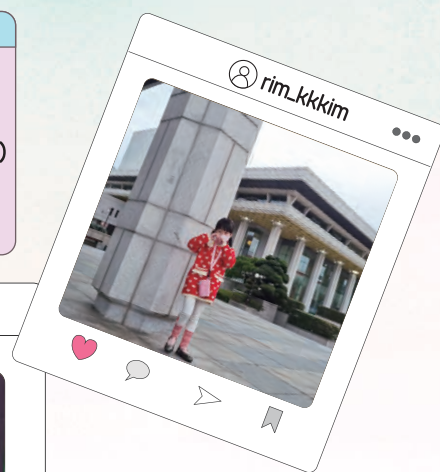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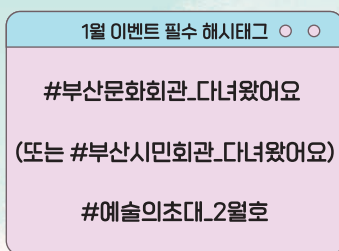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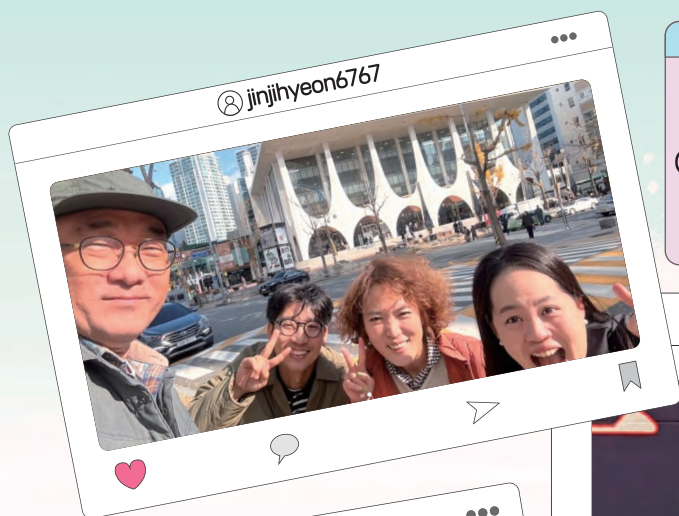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 여행사 판매가의 5%를
-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에서는 유료 기면광고를 게재할 협찬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는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 발행하는 공연예술정보지로,
지난 1992년 1월호를 시작으로 현재 통권 397호(2025년 1월호 기준)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연, 전시, 문화행사 등 부산지역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 문화를 짚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획 기사를 게재하면서
부산의 문화와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현재는 국배판 변형(210*280mm) 80페이지, 4천 부가 발행되고 있으며
정기회원을 비롯하여 공연장 및 대중집합장소, 문화계인사, 유관기관 등에 배부되는
문화를 사랑하는 부산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부산 유일의 공연예술정보지입니다.



부산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거나
기관의 홍보를 원하시는 협찬사가 있으면
<예술의초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초대> 담당자 051-607-6045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황치열 The Special

Hwang Chi Yeul



Guest 미교



2025. 2. 15.(토) 17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입장료 | VIP석 9만 9천원 / R석 8만 8천원 / S석 7만 7천원 / A석 5만 5천원 입장연령 | 7세 이상
문의 |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ARS 1번)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 interpark 티켓 1544-1555

2025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홍석원



BPO SYMPHONIC SEASON 2025
Seokwon Hong, artistic director

GilSans

RHAPSODY & CAPRICCIO

월튼 / 카프리치오 부를레스코
W. Walton / Capriccio burlesco

거슈윈 / 랩소디 인 블루
G. Gershwin / Rhapsody in Blue

라벨 / 스페인 랩소디
M. Ravel / Rhapsody Espagnol

림스키-코르사코프 / 스페인 기상곡
N. Rimsky-Korshakov / Capriccio Espagnol

*

지휘 홍석원 / 피아노 이진상

616

2025.1.10(금) PM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www.bscc.or.kr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

Sound of Busan #1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브람스 교향곡 No.2 외

2025. 2. 20.(목) 19:30

Sound of Busan #2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브람스 교향곡 No.1 외

2025. 4. 4.(금) 19:30

Sound of Busan #3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브람스 교향곡 No.4 외

2025. 5. 29.(목) 19:30

Sound of Busan #4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브람스 교향곡 No.3 외

2025. 7. 25.(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30,000원, S석 20,000원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문의 051-607-6000(ARS 1번)



J. Brahms

2025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Imagine in Busan

2025
BUSAN CHAMBER
FESTIVAL

예술감독 | 김 동 욱

2025. 01. 04 [토] 17:00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with Florin Iliescu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25. 01. 08 [수] 19:30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Stefan Pi Jackiw Vn. | Florin Iliescu Vn.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제1악장)
김동욱 Vn. (부산대학교 교수) | 박찬호 Vn. (전 전주시향 악장) | 박수현 Vn. (아벨라르테)
조혜운 Vn. (knn 교향악단 객원악장) | Lily Sirin Opasanon Vn. (태국 연주자)
Dashiel Nesbitt Va.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 Andrew Ling Va. (홍콩필하모닉 수석)
최영식 Va. (경북도립 수석) | 배은진 Va. (대구국제방송교향악단 수석)
Benjamin Hughes Vc. (BBC 심포니 첼로 수석) | 조형준 Vc. (아벨라르테)
홍승아 Vc. (강남심포니 객원수석) | 안명주 Fl. (전 KBS 교향악단 수석)
Aoyama Satoki Ob. (전 NHK 오케스트라 수석) | 김윤아 Cl. (길드 국제 콩쿠르 우승자)
최영진 Fg. (도쿄필하모닉 수석) | 이동곤 Hn. (수원시향 수석)

2025. 01. 10 [금] 19:30 월드스타 실내악 페스티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Stefan Pi Jackiw Vn. | Florin Iliescu Vn.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종신악장)
김동욱 Vn. (부산대학교 교수) | 박찬호 Vn. (전 전주시향 악장) | 박수현 Vn. (아벨라르테)
Andrew Ling Va. (홍콩필하모닉 수석) | Dashiel Nesbitt Va.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Benjamin Hughes Vc. (BBC 심포니 첼로 수석) | 조형준 Vc. (아벨라르테)

2025. 01. 14 [화] 19:30 아벨라르테 + 피아니스트 홍민수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2025. 01. 17 [금] 19:30 부산의 젊은 연주자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티켓 | 공연벌 상이 | 예매 |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 문의 | 051.607.6000 (ARS 1번)

부산시향과 함께 걷다

세계 클래식 음악 산책

지휘 및 해설 **홍석원**(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백승현**(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헝가리 1. 23(목) 19:30 / 1. 24(금) 11:00

지휘 및 해설 **홍석원** 피아노 **박진우**

아메리카 3. 25(화) 19:30 / 3. 26(수) 11:00

지휘 및 해설 **백승현** 클라리넷 **조인혁**

북유럽 7. 24(목) 19:30 / 7. 25(금) 11:00

지휘 및 해설 **백승현** 플루트 **조성현**

프랑스 8. 28(목) 19:30 / 8. 29(금) 11:00

지휘 및 해설 **홍석원** 색소폰 **브랜든 최**

영 국 10. 30(목) 19:30 / 10. 31(금) 11:00

지휘 및 해설 **홍석원** 하프 **황세희**